朝鮮日報

發行所 朝鮮日報社 京城府三角町七十一番地 電話 二三六四 振替口座京城四〇九九番
購讀料 … 廣告料 …
編輯兼發行人 … 印刷人 …

新年의辭

過去一個年의歷史를讀ᄒᆞ면吾人으로ᄒᆞ야금無量의感慨를起케ᄒᆞᄂᆞ니다歷史者가吾人에게對ᄒᆞᆫ아ᄂᆞᆫ로多福ᄒᆞᆫ歷史가안이오平隱한歷史도안이지만은半島發展의機運을促ᄒᆞ고民衆活躍의先活를與ᄒᆞᆷ은其功이多ᄒᆞ다ᄒᆞᆯ것ᄂᆞ이다惟컨ᄃᆡ何邦을不問ᄒᆞ고最近數年間社會問題에關ᄒᆞᆫ一般民衆의思想이非常히進步ᄒᆞᆫ것은今에다시論ᄒᆞᆯ必要도無ᄒᆞ거니와支配階級의人들이「國民思想의動搖」라ᄂᆞ니「外來思想의影響」이니ᄒᆞ야盛히論ᄒᆞᄂᆞᆫ것은이事實을明證ᄒᆞᆷ이다안이오닛가果然民의思想이動搖ᄒᆞ얏지만은그것은支配階級의人들의思考ᄒᆞᆷ과갓치外來思想의影響으로由ᄒᆞ야來ᄒᆞᆫ것이안이라思想의動搖가生活의動搖에伴ᄒᆞ야來ᄒᆞᆫ것은人의다도能히了解ᄒᆞᆷ을得ᄒᆞᆯ것이니이갓치一大變化가來ᄒᆞ얏슴을不拘ᄒᆞ고그것이政治上에ᄂᆞᆫ何等의影響이及지안인ᄃᆞᆺᄒᆞᆫ外 故로政治와民衆間의沒交涉한傾向을生케ᄒᆞ야主의矛盾衝突과生活의攪亂이요가起ᄒᆞᄂᆞᆫ同時에支配階級의人들은往々所謂制度를施設ᄒᆞᆯ시라도民衆의思想에符合치안임으로因ᄒᆞ야於是乎名殺에亘ᄒᆞ抵抗의運動을開始ᄒᆞᄂᆞ니彼等의標榜ᄒᆞᄂᆞᆫ바ᄂᆞᆫ비록國家觀念或은民族觀念等의好名目으로써ᄒᆞᆯ지라도究竟則天賦自由와生活의安全을圖ᄒᆞᄂᆞᆫ最善의目的을達코져ᄒᆞᆷ에不外ᄒᆞᆷ이안이오닛가然이나此等의解決을非常時에見코져ᄒᆞᆷ은너무早計라ᄒᆞᆯ것ᄂᆞ이다我鮮도此例에逸ᄒᆞ지안이ᄒᆞ야最近數年來의激變ᄒᆞᆫ思想과劇烈ᄒᆞᆫ運動이果然何等의原因을誘致ᄒᆞᆫ結果된은何이라도此에見識을據ᄒᆞᆫ者ㅣᄒᆞᄂᆞ다ᄒᆞ니近代進運의滔滔ᄒᆞᆷ을隨ᄒᆞ야自然의原因을誘致ᄒᆞᆫ結果이지만은吾人當面의急務되ᄂᆞᆫ者ᄂᆞᆫ生活의問題니我民族의將來發展與否가全然히此에係ᄒᆞ얏ᄂᆞ이다我半島의進化與否가亦此에係ᄒᆞ얏ᄂᆞ이다此를解決치안이ᄒᆞ면其他의事도從ᄒᆞ야解決되믈見키難ᄒᆞ다고思ᄒᆞᄂᆞ이다世界의變局即時勢의推移를隨ᄒᆞ야主義나思想이나變幻의新機에當着ᄒᆞᆫ事ㅣ有ᄒᆞ니如此ᄒᆞᆫ現象은純히自然의成行이오人爲로左右치못ᄒᆞᆯ바ㅣ니이다우리兄弟여우리姉妹여우리半島開發과우리同胞의向上을苦로硏究ᄒᆞᄂᆞᆫ우리兄弟姉妹여萬의民衆에서生活難이라ᄂᆞᆫ惡魔의脅迫을被치안ᄂᆞᆫ者ㅣ幾個人이나잇ᄉᆞ리잇가人은嚴正ᄒᆞᆫ意義下에서一思를試ᄒᆞ되吾人의生活이裕足ᄒᆞ면何事던지成치못ᄒᆞᆯ것이無ᄒᆞ리라ᄒᆞᄂᆞ이다此ᄂᆞᆫ架空ᄒᆞᆫ理論이안이오現在目睹ᄒᆞᄂᆞᆫ事實論이외다如何間過去一千九百二十年의運動ᄒᆞ던바實行ᄒᆞ던바硏究ᄒᆞ던바各般의事爲에對ᄒᆞ야現在一千九百二十一年의時勢와適合치안ᄂᆞᆫ點이有ᄒᆞ면此에適合ᄒᆞ도록運動ᄒᆞ고實行ᄒᆞ고硏究ᄒᆞᄂᆞᆫ것이吾人의職務요또千九百二十一年을歡迎ᄒᆞᄂᆞᆫ本義의闡明이라ᄒᆞᆯ것ᄂᆞ이다抑我社의社是綱領이亦此에不外ᄒᆞᆫ고로吾人筆政에從事ᄒᆞᄂᆞᆫ者ㅣ其社是綱領下에順從ᄒᆞ고輿論의上에立脚ᄒᆞ야其旨를立ᄒᆞᆷ의公正ᄒᆞ고其志를伸ᄒᆞᆷ이不羈ᄒᆞ고利祿에阿치안코權貴에屈치안코ᄒᆞ야一代의人心을警醒ᄒᆞᆷ에努力ᄒᆞ야써半島의開發과民族의向上을助長ᄒᆞ야新半島의建設에貢獻ᄒᆞᄂᆞᆫ바ㅣ니ᄒᆞᆫ期ᄒᆞᄂᆞᆫ同時에苟히硏究論議ᄒᆞᆷ에關ᄒᆞ야ᄂᆞᆫ다시우리兄弟姉妹의多數ᄒᆞᆫ相談對手者됨을得ᄒᆞ얏슴은世人의周知ᄒᆞᄂᆞᆫ바ㅣ오吾人의欣悅을禁치못ᄒᆞᄂᆞᆫ바ㅣ옵시다目下世界의變遷民心의趨向은더욱吾人筆政者로ᄒᆞ야금使命과任務의更히重ᄒᆞᆷ을切感케ᄒᆞᄂᆞ니이다吾人의所說은全然히舊를舍ᄒᆞ고新을取ᄒᆞ자ᄒᆞᆷ이안이올시다舊도良ᄒᆞᆫ者ᄂᆞᆫ取ᄒᆞ고新도短ᄒᆞᆫ者ᄂᆞᆫ舍ᄒᆞᆯ것이라ᄒᆞᄂᆞ니다今日에在ᄒᆞ야ᄂᆞᆫ一千九百二十年은舊라ᄒᆞ고一千九百二十一年은新이라ᄒᆞ리니此ᄂᆞᆫ昨年이오新은今年이라新年의初에ᄂᆞᆫ誰何던지今年은如何히ᄒᆞᆯ가思ᄒᆞ고今年은如何히ᄒᆞᆯ가思ᄒᆞᄂᆞᆫ者ㅣ만ᄒᆞ되昨年은如何ᄒᆞ얏든가思ᄒᆞᄂᆞᆫ者ㅣ만다시事業의成就ᄒᆞᆫ가此亦一考의價値가有ᄒᆞ다ᄒᆞᆷ이無ᄒᆞ야ᄒᆞᆷ을回憶ᄒᆞ고人生의如意치못ᄒᆞᆷ을悔嘆ᄒᆞ야況ᄒᆞ얏스리오다然이나人生은果然如意치못ᄒᆞᆫ것인가或은如意보다超過됨이ᄂᆞ니다左右間今年에依ᄒᆞ야今年을思ᄒᆞ고明年을推ᄒᆞ야明年을思ᄒᆞᄂᆞᆫ同時에恆昨年을思ᄒᆞ며過去十年의背을思ᄒᆞ며未來十年의後를思ᄒᆞᄂᆞ니이것이人生이오人生이此中에在ᄒᆞ니이다今日은此新한感이多ᄒᆞᆫ時오그만큼人生味의多ᄒᆞᆫ時라誰何던지此日에ᄂᆞᆫ深省遠思의習이有ᄒᆞᆯ거니와우리兄弟姉妹여今年은如何히ᄒᆞ고져思ᄒᆞᄂᆞᆫ잇가昨年의長을取ᄒᆞ고今年의短을舍ᄒᆞ쇼셔昨年의短을舍ᄒᆞ고今年의長을取ᄒᆞ쇼셔鷄林江山에金鷄가高鳴ᄒᆞ니天이我族에게幸運을賦與ᄒᆞ심인줄確信ᄒᆞ나이다天을順ᄒᆞᄂᆞᆫ者ᄂᆞᆫ興ᄒᆞ고天을逆ᄒᆞᄂᆞᆫ者ᄂᆞᆫ亡ᄒᆞᄂᆞ니天의賦與ᄒᆞ신幸運을順受ᄒᆞ야우리半島의發展과우리民族의向上을計圖ᄒᆞ시되先生活의裕足ᄒᆞ며安全ᄒᆞᆫ方法을硏究ᄒᆞ며實行ᄒᆞ야最後의目的을達ᄒᆞ고百年의大計를償謀치안ᄒᆞᆷ이一千九百二十一年을歡迎ᄒᆞᄂᆞᆫ本義에違越치안ᄂᆞᆫ所以오우리兄弟姉妹와一致되ᄂᆞᆫ吾人의熱誠입으로써聯ᄒᆞ야一言을呈ᄒᆞ야賀詞를代ᄒᆞ고同時에諸位의非常ᄒᆞ信ᄒᆞ심을苦ᄒᆞᄂᆞ이다

鷄德頌

職司晨

花冠鳳尾 職司晨 不違時辰 萬家同唱
光彩維新 惟此大膽 其德則仁 信如金石
其色介潔 白玉同然 適値新年 曙色輝姸
日我同胞 淸曉齊鳴 春光淡蕩 紅日吐輪
迎此光鮮 成雨新春 萬像芸々 鷄林天地
一城奇冷 金塊白鷄 警醒吾人 二千年來
歷史流傳 緬懷古昔 慨想自偏 靑邱文明
三國最先 歷年長久 福祉綿々 嗚呼今日
文化闡明 人生多事 守信守義 濟弱扶傾
鷄兮守時 符合人情 吾人背信 寧不愧鷄
宇內大勢 無東無西 舟車聯絡 口萬耳齊
羅針不迷 信此道德 競々業々 一毫差錯
人皆嗤非 守正秉德 毫釐或違 鷄兮素性
崇德同歸

鷄史

靑吾

世에新을好ᄒᆞᄂᆞᆫ者ㅣ만다시舊를排斥ᄒᆞ나舊에도害가無ᄒᆞ고益이有ᄒᆞᆫ者ᄂᆞᆫ此를仍存採用ᄒᆞᆷ이可ᄒᆞᆯ지니彼天干地支와如ᄒᆞᆫ者ᄂᆞᆫ太陽曆을用ᄒᆞᄂᆞᆫ今日에在ᄒᆞ야無用에歸ᄒᆞᆷ과如ᄒᆞ나歷代와年령計算等에極히便利ᄒᆞᆫ者ㅣ안이라其他參考上必要가多ᄒᆞ며又地支에在ᄒᆞ야ᄂᆞᆫ自來物名을付ᄒᆞ야使用에便利를圖ᄒᆞ얏스니例如子年을鼠、丑年을牛라ᄒᆞᆷ이是ㅣ라此를少思ᄒᆞ면

金鳥鷄 同上
鷄從陽火之精故陽出則鳴
鷄大者曰蜀雛未成曰鷚三尺爲鵾
絕有力曰奮
雄曰鷄公雌曰鷄母子曰鷄兒
祝鷄翁善養鷄雞幾千首皆有其名
呼之則必來故世人呼曰祝々
朱氏翁化爲鷄故亦云呼鷄曰朱々
鷄有五德頭戴冠者文也足搏距者
武也敵在前敢鬪者勇也見食相
呼仁也守夜不失時信也
祭宗廟之禮鷄曰翰音
婦人之內助謂鷄鳴
箕有四星一曰天鷄

鷄舌香
鷄頭竹
鷄腸草
鷄冠草
荷篠丈人止子路宿殺鷄爲黍而食
毛遂至楚定從約用鷄狗馬之血
鷄兒鳴
諸葛亮作鷄鳴枕
鷄項草
商相如手無縛鷄之力
謝安夢見鷄
張良上鷄鳴山吹簫散楚兵
孟嘗君客有善鷄鳴者乃出秦關
莊子紀渻子曰羊溝之鷄三歲爲株
勝人者以司晨終非鷄也
也相者鷄之則非良鷄也然數以
鷄麻
鷄眼
鷄肋菜
范蕁公以鐵爲鬪鷄假距
割鷄焉用牛刀
鷄犬之聲相聞
牝鷄之晨惟家之索
鷄犬相聞以達乎四境
女曰鷄鳴
匪鷄則鳴
鷄鳴喈々
鷄豚狗彘之畜勿失其時
鷄鳴而起孳々爲善者舜之徒也孳々爲惡者跖之徒也
鷄棲于塒
鷄立鷄群
鷄初鳴咸盥漱
何日金鷄放赦回
金鷄叫罷無人識
夜半金鷄啁哳鳴
時鷄凍不鳴
鷄鳴山枕龍樓晚
鷄聲茅店月
西鄰鷄兒秋正肥
日出雲中鷄犬喧
鷄肋之勢
鷄 鷄鑒
山東六鷄
殺鷄占吉凶謂之鷄卜
之頭者曰鷄
至晚不能視物者謂之鷄盲
鷄司晨
鷄不能俱上於棲
雉一名野鷄

越人相交時設壇祭以白犬丹鷄故友人相會處謂之鷄壇
六月沙鷄振羽
淮南王女化爲仙餘藥在鼎家鷄食之皆昇空中
快鷄
司鷄
鷄林 新羅別名脫解王夜坐聞金城西始林間有鷄聲遣瓠公視之有金色小櫝掛于樹梢鷄鳴其下王使人開之有小兒姿貌奇偉王喜曰天祚我以胤、錫名曰閼智以金爲姓有鷄怪改始林爲鷄林因爲國號
操鷄搏鴨 唐高王昌瑾於市中得老人賣鏡其鏡文曰三水中間維下上帝降子於辰先操鷄後搏鴨云々(下略)盖、麗太祖得鷄之兆也
萬家鷄一時鳴 李朝太祖高皇帝微時夢萬家鷄一時鳴令術者解之曰鷄聲高貴位也當爲帝王之兆云
鷄龍山都 李朝太祖高皇帝初欲定都于鷄龍山開基之夜夢神人曰此地別有主人更卜他地乃移都漢陽故今云新都
黃鷄詞 朝鮮歌詞名
村鷄官廳 朝鮮俚言

鷄冠花
鷄冠石
鷄毛菜
鷄 (林名)
鷄 (藥名)
鷄窓 兗州刺史宋處宗嘗養長鳴鷄於窓間遂至作人語處宗終日談論不已以此成大業故今之讀書舍謂之鷄窓
寶母鷄
鷄尾鷄
食火鷄
究竟如鷄鳴
吳黃人一三月群鷄謳歌不中音律
竹鷄
聞鷄起舞 昔祖逖與劉琨爲司州主簿夜聞荒鷄鳴蹴起琨曰此非惡聲也因起舞
賓孟適郊見雄鷄自斷其尾問之侍者曰憚其爲犧

新年感想과 朝鮮日報

谷溪 張樂英

日月은如流ᄒᆞ야元旦은亦… 라壁上에걸닌日曆은倏… 니使是一月一日이로다我朝鮮同胞ᄂᆞᆫ此新年新日을當ᄒᆞ야… 此ᄂᆞᆫ從來의慣例이다然이나此時가何며此年이何年이며人이何人인가

前日의冷酷的精神은東流長江에泛送ᄒᆞ야滌盡無餘케ᄒᆞ고新年新月에新氣新思想新事業으로臨的精神을振作ᄒᆞ야我朝鮮全地의面目과我鮮民族의新知識新文化를東西兩球에자랑ᄒᆞ지어다

天下에難爲ᄒᆞᆯ事가有ᄒᆞ며天下에易爲ᄒᆞᆯ事가有ᄒᆞᆫ가? 勇往ᄒᆞ면難爲ᄒᆞᆯ事도易ᄒᆞ고退步ᄒᆞ면易ᄒᆞᆫ事도難ᄒᆞ니一往一退에國民의程度가係ᄒᆞ얏도다

[illegible]

大槪社會를改造ᄒᆞ야民族의歷史를빗나게ᄒᆞ고宗敎를革新ᄒᆞ야眞理를發展식히며溟海의波를掄케ᄒᆞ고大事業의期成에勇猛ᄒᆞᆫ全責任을가진者ᄂᆞᆫ靑年이라그럼으로靑年은民族의生命이오社會의中樞다故로靑年은… 新聞이안이면新鮮ᄒᆞᆫ智慧를… 文明… 의貧人賤人이라도新聞을購覽ᄒᆞ야그聞見知識을充ᄒᆞ며… 事를知ᄒᆞᄂᆞ니新聞의盛衰로써國勢의興替를論ᄒᆞᆫ다ᄒᆞ야도過言이안이리라

今此朝鮮日報君은我朝鮮에唯一無二文明의關門인同時에勇進無退ᄒᆞ며豪宕不羈ᄒᆞᄂᆞᆫ丈夫的氣風으로邁往猛進ᄒᆞᄂᆞᆫ도다我아君은健康無病ᄒᆞ야日新又日新ᄒᆞ며千萬億歲에至ᄒᆞ도록長壽長生ᄒᆞ야永遠의幸福을享ᄒᆞᆯ지어다

我아君은現代의世運을拊循ᄒᆞ나되世界의風潮에抵觸ᄒᆞ나되우리의社會우리의家庭은如何ᄒᆞᆫ가傾耳ᄒᆞ야滿天下의… 耳目인朝鮮日報君을사랑ᄒᆞ며사랑ᄒᆞᄂᆞᆫ同時에恒茶飯을作ᄒᆞ야家々購覽에人々愛讀ᄒᆞ기를心祝熱望ᄒᆞ노라

新覺悟

서울 禹昇圭

[illegible]

白鷄

明農生

其一
白鷄聲裏歲今年 神彩色鮮姸値吉辰
始識鷄林春氣動 鷄人報近萬家春

其二
白鷄聲裏喚人耳 聰明倍覺…
三百六旬始今日 靜觀物々各迎春

其三
白鷄聲裡世情均 耶蘇人主辨富貧
都看循環眞理在 大寒暫過是陽春

其四
白鷄聲裏鳳風壓 角犬淮河笑吠隣
…每野心都掃盡 能令天下助仁春

其五
白鷄聲裏送庚申 過去歲有果因
困苦終看來福日 一年一時春

其六
白鷄聲裏起身細 …坤一氣…
溫古知新先哲訓 頭猶自說靑春

其七
鷄林春色淸晨 萬歲家々樂酒
一域含生皆活氣 鷄聲裏任長春

◎結婚豫備學校

젊은婦人들이結婚의理想的義務에對ᄒᆞ야홀몽ᄒᆞᆫ심각이업ᄂᆞᆫ닭에一般男子가적지안은苦痛을感ᄒᆞ다이苦痛을免ᄒᆞ기爲ᄒᆞ야米國에서ᄂᆞᆫ結婚豫備學校를組織ᄒᆞ라ᄒᆞ게되엿다이엿갓흔約婚ᄒᆞᆫ處女에게最初의學校가米國에리노이즈에建設되리라ᄒᆞᄂᆞᆫ데그學校ᄂᆞᆫ約婚된일을充分히證明ᄒᆞᆯ수잇ᄂᆞᆫ젊은處女들만入學ᄒᆞᆯ수가잇다

그러면이生徒들은各方面의講義를듯ᄂᆞᆫ다그例를ᄒᆞᆫ如何히ᄒᆞ면和ᄒᆞᆫ同接가理想的으로될수가잇ᄂᆞᆫ가!男子의人格性質職業을如何히ᄒᆞ면判斷ᄒᆞᆯ수잇ᄂᆞᆫ가!男子ᄂᆞᆫ物質的關係에如何ᄒᆞᆫ禮和와義가잇ᄂᆞᆫ가!同時에結婚ᄒᆞᆫ婦人이如何히ᄒᆞ면經濟上節儉과快樂上要求를實現ᄒᆞᆯ수잇ᄂᆞᆫ가此外에衛生、育兒、兒童敎育、下人을부리ᄂᆞᆫ法、法律問題、財産整理等이잇다

(出獨逸雜誌)

謹告

本報가前日二日再刊을開始ᄒᆞᆫ當時브터工場의整理、他種々의故障을排除ᄒᆞ기爲ᄒᆞ야殆히十의五字를費ᄒᆞᄂᆞᆫ刹那終이追至ᄒᆞ니實로措手莫及이외다所謂例의ᄒᆞᆫ新年號와如ᄒᆞᆫ記念號에도記事도無ᄒᆞ얏더니讀者諸位의高意를孤負ᄒᆞᆫ키難ᄒᆞᆫ點이多ᄒᆞ와本社同人最善의努力으로一晝一夜를費ᄒᆞ야十二頁의新聞을構成ᄒᆞ얏승수其紙面의粗率疎略ᄒᆞᆷ은一言을不須ᄒᆞᆯ것이어니와左右間本報의苦衷을諒察ᄒᆞ야寬大ᄒᆞ신諸位의아何를憚ᄒᆞ야肝膽을披瀝치안이ᄒᆞ리잇가

李堈公殿下擁立한大同團判決書 (五)

丹忠熱血은決코非正理的壓迫에萎縮한事가안이요正義人道로勇往邁進하며誠意努力으로血戰不辭라하고朝鮮獨立宣言及政府를建設하든全協外卅四名의判決言渡

被告羅景說은同年五月中旬頃知人全相鎭과府內路傍閑前에서相逢하야同人으로브터上海假政府의軍務總長李東輝가露領浦鹽斯德新韓村에서軍士를養成하고居하며또朝鮮獨立에對하야內外의重勢를添하며且獨立目的을達할것을朝鮮內에서政府親兵을爲할것임으로朝鮮內에서有望의青年을募集하고新義州榮町金成鎰等의手를經하야滿洲의通過로露領에派遣하기로勸誘하는것을受하고其趣旨에贊成하야承諾한爾來被告趙鍾桓等에게同計劃을告하고助力하야달라고請求하얏든바被告趙鍾桓은此를承諾하고同年六月中旬頃魏廣厚高景鎭等에게右劉景根의企圖를告하고軍士되기를勸誘하야魏廣厚高景鎭等은又曹圭象外四人을勸誘하야以上의사람等은被告趙鍾桓의紹介에依하야同府貫鐵洞朝鮮旅館其他에서被告劉景根과會見하얏고同被告는右者와共히新義州金成鎰宛으로暗號記載한紹介狀(大正八年領米九三一號)를與하야同年七月初旬南大門驛으로브터新義州에向하는順次出發의周旋을하얏슴으로安寧秩序를害한者라 被告崔能鎭은大正八年四月中被告崔益煥等과協議하고上海에가서朝鮮假政府에身을投하야獨立運動에參劃으로하야其旅費調達에腐心中京城府仁寺洞李鍾[illegible]으로브터孫永澤이가洪淳馨所有에係한土地의舍音을希望하고잇는것을聞知하고被告가周旋하면其目的을達得하겟다고稱하며同月二十四日右李鍾[illegible]에서孫永澤의代理人되는金升基를對하야(洪淳馨의女子와는何等親族가업슴으로其周旋의與否不明은不拘하고)洪淳馨及其子洪[illegible]와는懇意間柄으로周旋하야必定成功한다고虛言하야周旋費를要求하니金升基는此를信하야孫永澤으로브터周旋料名義下에金三百圓을受取

하야目的을遂하얏고 被告金永喆은犯意를繼續하야大正八年三月一日及同月五日京城府파고다公園附近과南大門驛附近에서朝鮮獨立을目的으로하는示威運動에參加하야群衆과共히朝鮮獨立萬歲를高唱하얏슴으로治安에妨害하얏고 被告全協은明治四十五年七月二十日京城地方法院에서私文書僞造行使詐欺又는財罪에因하야懲役三年의處分을受하야執行中大正三年五月勅令第百四號에依하야懲役二年四月十六日로變更되얏고被告權益煥은明治四十二年十一月二十七日京城控訴院에서盜係官財產罪에因하야懲役七年의處分으로執行中大正三年五月勅令第百四號에依하야懲役五年八月二十日로變更되얏고被告李在浩는大正四年八月二十五日大邱地方法院에서外國紙幣僞造詐欺罪에懲役三年의處分을受하얏다가同年中恩賜에依하야懲役二年三月에減刑되얏기로何如間에執行을受了한後判示의犯行하얏든者이다以上事實中判示第一에對하야는當法廷에서는被告權益煥權泰錫에關한部分을除한外判示에應當한趣旨事實을自供하얏고上被告金[illegible]權泰錫에關한部分은印刷物의頒布의目的의關한點을除한外判示에適應한趣旨의事實을供述 被告權益煥의對한豫審第二回訊問調書中三月一日孫秉熙宣言書는鳳翼洞百六十三番地全協方에同居中全協과共히一見하얏는데其後進々市中에서熱心에運動하난被告等도朝鮮을爲하야盡力한다고參起하야十二月中全協과對談하고被告로부터大同團組織의事를發議하야全協은經費를提出하고判示의三大綱領을提하야其實行으로하야團員의募集及集會不可能形으로는故로出版에依하야該主義를宣傳하고團員이各自最後의一人이되기까지

日本政府及總督府에主義를 陳하야其主張을貫徹하기 協議하고外部員募集하는

것과및여러가지를全協의擔任으로하야被告는內部의일로出版物을擔任하얏스나被告도權泰錫李能雨金思國金永哲等을對하야四月中에가다공원에서會合한其項의被告住所되는鍾路四丁目場의方에連來하야說하고資金을出케하야又出版에手傳을請求하며即四月二十五六日頃右場[illegible]方諸費用百圓許를被告에게提供

에서獨立運動으로出版物印刷機械購入費三百圓을出金케하야此를全協에게交付하얏고全協은漢字諺字取交하야三萬許의活字와및인크手押印刷器等을買來하고其外權泰錫과

其外一百四十名同人이此選擧를爲하기로하야議政院會員에게承認하고互相因在選에一方許의州黃하얏고押收하二十一號에對하야刊行함을許하얏다 同人의文書는五月十三日頃被告의宿所되는鍾路九丁目에잇는被告二十九號鮮에書하얏든것을權泰錫이가印하고同二十七號의貴書와至五日又十月頃慶尙方面에셔被告와共히收印하얏는二十九號三號의文書도同所되는者의供述記載하얏고司法警察官의被告權泰錫에對한審問調書中三月一日의騷擾後時局에感하야自分도同人으로부터印刷物을作하야共同으로國民에配布하는目的에供할印刷器用紙等의費用에大百圓許出金하고又々種々의文書를起案하야印刷하얏든일의供述을記載하얏더라

王世子御成婚御祝으로 鮮銀株二千八百株

를일본황실로부터 리왕뎐하께어하사

요사이 일본황실로브터 리왕직장관리직국(李載克)씨에게 뎐하계되야 리왕세자뎐하의 혼례의축하로 조선은행주이천팔백주(時價約三十萬圓)의 어하사가잇슴으로 지난달이십구일오젼십시 지등총독으로브터 리왕뎐하께 그동을뎐달케하얏심으로 동일리왕뎐하게서는 말례사와함께 어려의뎐달을 총독에게의뢰하셧다더라

鮮銀株下賜에對하야 李王殿下御禮言上

國分李王職次官 談

리왕세자뎐하어가례에되하야 일본황실로브터 조션은힝주이천팔빅주의다외을 하사하셧스므로 창덕궁리왕뎐하로브터 리왕가일동의 감사한신뎐은을감읍하는터인디 리직국(李載克)씨는 왕직장관 보하셧더라 리왕뎐하의명으로 이십구일오젼십시 총독관뎌에서 어최지를뎐달하얏스며 즉시각총리대신에게 어례의언상집주방을뎐하셧다더라

徐世昌의第四女와 宣統幼帝의結婚說

滿洲人은一齊反對 二個理由의下에

이왕브터 헌천하든 설청국황실선통유데(宣統幼帝)와 지금디춘풍으로 잇는 서세창(徐世昌)씨의네스지딸사이에 결혼한다는말은 요사이또북경에서써드는바

△宣統帝의영어교사로잇는영국사람「지온손」씨가 그혼인에되하야종々알선하야 명년정월에는 일즉이 조혼을선뢰하야 혼례를거힝하기로하는중인데 결혼비용은 세속(世續)으로브터십만원을요구한다는풍설이잇다 그런데 천청국황실과 민국과의결혼은 작 칙약(策略)으로브터보아도 실현될것은예상하는바이나 공에이르러

△光緖帝의황비 유희(瑜姬)로위시하야 만인(滿人)은 반듸시 이를체긔하야 오리와갓흔조건을 케긔하얏다더라

一、청됴를통하야 정비(正妃)를 한인(漢人)으로드러온일이업는일

二、서세창은 청조에대하야 충신이안이라는일

이우의두가지조건으로써 단연히결혼의성립을반항하야아즉엇지될는지는확지치못하깃다더라

朝鮮內地에侵入한 百世名暗殺團

황히도각군과평안도 각군에좀입하여잇다

비일하는조선사름으로 조직된 암살단일빅이십명이 조선니디에잠입하얏다함은 임의긔재하얏거니와 요사이련하는바에의하면 암살단 리서(瑞)이하 일빅이십명은 황히 평산 송화 승산 빈천등각군과 평안북도초산 위원등각군에잠시하얏다더라

在米朝鮮人 日本軍을批難

미국화성돈발뎐 당디의조선인의원회는 일편의진술서를 발하야 일본군이 간도에서힝한일은 디건정시디에 독일、빅이의에서 힝한여러가지픽힝보다 다도더하다고 비란하얏는데그위원회예진술서는 만주로브터 그위원회에발송한 보고에의하야 귀져한것인바그진술사게우는 에 혼츈 「작년십이월 혼츈서 일본인과 비일조선인사이에 츙돌이싱기여 일본은 그디방에 토벌대를 파견하야 일본군은 숨십이기쇼 촌락을쇼실케하고 고곳에잇는남자전부를살육하고 또엇든곳에서는 일빅오십명의 량민을 학살하얏는데 기중에는 부인과쇼오들이 집안에들어잇는데로 불노으바렷다하고또가히맛올만흔보도 의하면 비전투원(非戰鬪員)으로 처형훈자가이빅구십여에달한중 육십팔명녀자와 십이명의 불근이기잇다우의공포정치이 남만주에와지밋쳐 약빅만명의조선사람이자긔고향을 니여쪽겨 지나동치의하에 싱활하고 잇다하얏더라」 (說實新聞譯)

東三省에 暗殺團

潛入說 一隊十五名式 合計十隊出發

니고리스구를 근거디로한 비일조선인의 암살단은 일본관민을오살할목뎍으로 동삼셩에잠입하얏다는쇼문이잇는디 이에되하야 안동현모쳐에달한뎡보에의하면 장순엽시(張巡燁)도 밀령으로브터 우리와갓흔보고를접하얏다더라「지금니고리스구」를근거디로한 비일조선인의암살단은 그단원의힝동을저희하야 지나관헌과 맛조션인관리를암살코져하야 일뒤십오명식 합계십뒤를편성하야 각々혈포와폭탄등을휴대하고지난달에시출발 입하리라는바 동삼셩으로 잠입하얏다 우니주의하얏다더라

朝鮮米의輸出

일본복강시(日本福岡市)에서는 이번각디농업가로브터 쌀을밧아치안이하다는 등랑에되하야 되영회으로 번키갓치 쌀을밧치싸르게 조선으로브터 조선산쌀을수입하야 일반시민은 크게할긔를이루어 모니바수갈치를하는중이오 또이곳브터 동긔에필요품되는 목탄도 연리를계획하야 농본디리구스와교섭하야관조목탄약오비셔사오기로계약하얏는디 디력셔에셔는사셰에의하야 각디브터쥬문하는것을 여의하슈치못하야 셩적이불양하얏다더라

淨土宗의大事業

圖書室、勞働宿泊所、沐浴湯其他娛樂機關等을新設한다

主로朝鮮人을收容

졍토종긔교원(淨土宗開敎院)으셔는 사회사업단으로 화광교단(和光敎團)을조직하야 경셩부니관수동에 젼도부、교육부、사회부를셜치하고 사회으기관에공헌홀터인데 지금종노삼쳥동에잇는 칠버디에 숙박케하기옥에 작년십월초순브터가영하설에착수하야동년십이월에 이십오일락셩화지한는데그숙박소에는 독신으로일쳥의노동업에종사하는자에하야조선사름의노동자를 동자의힐동안정을계획하며그거은독디가와가라의긔부로유지홀터인대 이에디하야 조선노동자에게는 큰복음이되겟다하며 한번유숙하는지 보다여러달유숙한사람들에대한편영한다더라

旅客激增으로 客車增發

昨臘二十八日부터

예년브터 요사이년말을당하면 자연 여각리리왕의빈번흠터이라 수일젼브터 남디문정거쟝에도 오젼륙시이십분 인쳔의일시렬차의승긱으로만달하야도 최간젼브터 쳥거쟝에츙만하야 최가 부절하기도 중렬차의셔지 연속과의지휘가엄하야 십칠시를교가 마、안이호고로、성관리국우셔도 임시렬차를증발 협의한결과 동 렬차수에

大幸運은誰의게

◇今年에萬事如意를

죠선민족은왜비참한운명만갓고 구미인은왜힝복을누리고지내나

무ㄱ은히를보니고 새히를마즐써에 누구나다한가지로 축하며 희망하는것이무엇인가! 이러니저러니 조목을들것업시 간단히말하자면 각기또스후바디는 이루으는것이라고하겟다 그럼으로 스름々々이 환세인사를하되 쇼원셩취(所願成就)라고하지안이하는가 그런데금갓치귀하다는세월이작고덧업시가며 날이가셔달이되고 달이가셔히를밧구게되야 각기운명의새히를맛게되며 신(神)에게 힝복을축원하야셔 또스는디로되여지기를바라게되얏스니 이새히를맛는것은 엇더한나라사람이던지 남녀를

세계각국이 다일반으로 블론하고 부귀한사람이나 빈천한사람이나 다이희망을가지고잇슬것이다 그런데、제우리조선민족의현상은엇더하며 그사회와 각기인의정형도엇한쳐디에잇는가 일々히들어말하지안을지라도 다각기엇더한지안이하고 룩이잇겟심으로 길게말말하면 누구나다한가지로 우리조선민족은 가는히에구차한어 눈물만히지는 비참하디궁에잇다고안이홀슈업다 그렁으로 우리는 다른사롬인가 특별히축수하는것이안코 남들은누리는히복을불떡에 그것을한우시 우러워하고 비참한우리의運명을한탄하야 를먹음는민족이다그리면왜우리는비참한運수만가지고구미렬강의빅성들은엇지하야마음것남의게자랑답、힝복을누리고지니게되엿나니이것은마치기인스스로 비교하면 누구는빈한하야울음으로지니고 누구는호화롭게잘며 사회가 고로지못하고 세계가간스회가고로지못하고 [illegible]

二部長으로브터 三巡査에게賞與

룡산 원뎡사른、창사를 살히한범인 가등시차랑(加藤小次郎)을 체포하야 룡산경찰셔 본뎡경찰셔순사 석쳔풍마(石川龍馬) 빌연졍(瀨練作) 뎡티용(鄭泰容)삼씨에디하야 그공로를표창으로 기우하야 지난달이십팔일 천엽경긔도데삼부장으로브터 금일봉을 급여하얏다더라

豫約出版協會

경셩부황금뎡의 죠선츌판협회(朝鮮出版協會)셔는예약출판허가를어더 처음으로조션병합(朝鮮併合)의 뎐사독립문뎨 진상은 발표한다는데 발셔디방으로브터예약신청이답지하야 예약모집원에게예약하더되게하는경우에는 어더보기가어려우리라더라

新年祝

慈城 李大立

朝陽權史 大地三千
鮮明東方 純無亦長
日進月將 民智漸啓
報館擴張 文化益光
新迎舊歸 鷄鳴義春
年事有年 信推春陽
祝日胡彌 敢述陳荐
賀爾一章 不覺且荒

土 潘福昌君

경긔도강화군(京畿道江華) 출싱으로 지금으로브터약 년전에 인천에이주하얏다 무엇에든지솔총한졈이만다 그러나인천에이쥬홀당시에 공부할자유를쥬지못 군은또거운 한탄 그림으로 남의집고용을시작 이리히 여몇히를 동안 지난후 군은또人을박구 아 연구하기에게을니하지안이하엿고또모든일에 당하야는현신적이엿심으로 얼마안이되아쥬인에게두터운신임(信任)을밧게되엿다 그리고일반시장 출입하는여러사람에게도 군의수완을탄복지안이치못하게되엿다 이러한군은 이업에종사하기를팔년을지난금일에 군은사회(社會)에널니신용을밧은터라 인천미두거래소에 조선인시세에 표준이되는 인천미두취좌우(△△)회만한실역(實力)을손에

당시인천미두거래소 황목중미졈(荒木仲買店)에쳥원의한사람이되엿다 군의지금영업은 이상에말한미두이외에곡물무역(穀物貿易)과 인삼 업을경영하는중이다 군은항상주인의일에당하야는 셩실(誠實)히직히여왓슬뿐더러 본셩(本性)이자인대겸(慈仁大謙)하고 친절함으로 일반동업자에모범적쳥원이라는평을밧지 여러형제간에우익가두터웁(厚) 군이항목쥬미졈으로온이후 여가만잇스면 시세등락(騰落)에원리(原利)에취하더라(인천일긔자)

투서란

이사름은본리 현구도 우리지 에이다 만은 춥다 나다 못야 한마디 겟십 우편쇼에서 천동에잇는종노 입본人름온 사무보든 고보니가 아조고등관보다 더 [illegible]

謹賀新年

開城北本町 高麗人蔘 蒸果製造所 主任 田在玉

開城北本町 ゴム靴製造元 開城靴店 孫啓南

開城高麗町八八六 高麗人蔘販賣業 白駿基

謹賀新年

開城北本町四九四番地 便利靴製造元 松都靴店
便利靴가各種이 놋거니와 便利靴第一
便利靴許多하나 堅固가 忠實가 第一

開城北本町七七番地 高麗人蔘商 唯一商會 主 崔增復

朝鮮日報社 庶務部長 崔駿

東亞婦人商會
賀 新 年
동아부인상회
振替口座 京城 [illegible]
電話 [illegible]
조선부인의 이용하시는 물품을 구비하얏삽고 다시올회상은 동아부인상회

中央理髮館 京城府鍾路通二丁目九 主 柳養浩

送舊迎新敬惟元正 各位 體候康泰多福仰賀而 生 開業後雖淺諸位之護佑蒙嘶進繁榮則不勝感荷 新年則倍舊年之顧伏祈 元日之謹賀借以紙面敬具
開城滿月町 中京商會高麗人蔘部 金完基

朝鮮開城 朝鮮產高麗人蔘特大發賣 京城振替口座五四四四 池町貳貳七番 高麗元蔘商會 主務 朴致珪

朝鮮開城北本町三九九番地 名產高麗人蔘製造大發賣 開城商會 主任 孫得和

賀正 朝鮮日報社 金思益

喪中이옵기年始의禮慶을 [illegible] 鮮于日

極東關係

英佛新協定調印

佛國首相 뿌리안 氏及駐佛英國大使 하-디ㅇ가 氏ᄂᆞᆫ「바른레스타인」及「메소포타미아」間에 新國境을 劃定ᄒᆞᆫ 英佛協約에 調印ᄒᆞ얏더라(倫敦電)

印度新議會始開

印度新議會ᄂᆞᆫ今也「데리-」에서開ᄒᆞ얏ᄂᆞᆫ되政府ᄂᆞᆫ華盛頓의國際勞働會議에提出ᄒᆞᆫ勞働規約을同議會에提出ᄒᆞ야印度工場法을修正코자ᄒᆞᄂᆞᆫ意向이有ᄒᆞᆷ을發表ᄒᆞ얏더라(倫敦電)

日米新協約如何

幣原大使ᄂᆞᆫ米國에在ᄒᆞ야國務省當局及諸議員을會見ᄒᆞ고排日運動中心인加州로부터歸來ᄒᆞ야이明「가구리머니」도「써-紙」의主筆「마시구리」ᄂᆞᆫ加州에歸來ᄒᆞ야日「日本移民問題에關ᄒᆞ야日米協約의成立說은虛說이고日米交協은容易히되지못ᄒᆞ리라」ᄒᆞ얏고加州會計檢查官「치에스-」氏의談을據ᄒᆞᆫ즉來一月加州議會에重大ᄒᆞᆫ排日案은現치안이ᄒᆞ깃스나但日米兩國政府가條約又ᄂᆞᆫ他形式으로加州土地法을無效로ᄒᆞᄂᆞᆫ事가有ᄒᆞ면加州ᄂᆞᆫ臨機應變ᄒᆞ야國民에在ᄒᆞ야困難ᄒᆞᆯ터이라若吾人이協力ᄒᆞ면容易히此를踏破ᄒᆞᆷ을可得ᄒᆞᆯ事ᄂᆞᆫ太陽이中天에上ᄒᆞᆷ과如히明々白々ᄒᆞᆫ事實이나全國民은一致團結ᄒᆞ라ᄒᆞ얏더라(國際通信)

英政局의一大危機

英國의輿論을槪觀ᄒᆞ건ᄃᆡ擧皆露國並中歐諸國과至急히通商을開始ᄒᆞ기를希ᄒᆞᆷ에不拘ᄒᆞ고此를實行ᄒᆞᄂᆞᆫ方法에就ᄒᆞ야其間에多大ᄒᆞᆫ意見의扞格이잇다首相로이드조-지氏ᄂᆞᆫ下院에서財界가全歐를通ᄒᆞ야常態에不復ᄒᆞ면英國의失業者問題ᄂᆞᆫ解決키不可能이라宣言ᄒᆞᄂᆞᆫ同時에露國並中歐諸國이今尚疲弊ᄒᆞᆫ狀態에잇ᄂᆞᆫ것은英國産業界가今日々지不振ᄒᆞᆫ原因인것을容認ᄒᆞ면서一面으로ᄂᆞᆫ歐羅巴大陸과의通商再開를益々困難케ᄒᆞᆯ法案을今春의議會에提出ᄒᆞ라ᄂᆞᆫ것과[illegible]을不全ᄒᆞ敢ᄒᆞᆷ으로假令次期議會에提出ᄒᆞ라ᄒᆞᄂᆞᆫ不當廉價의締結을阻止ᄒᆞᆯ目的이게의獨逸의經濟的地位도益々絶望케ᄒᆞ라ᄒᆞᄂᆞᆫ것이잇다因是로獨逸通商이ᄭᅡ지되다此等은正히로이드、조-지氏의自縄自縛을示ᄒᆞᄂᆞᆫ것이며失業問題도秋毫도解決之望이無ᄒᆞᆯ것이라ᄒᆞ겟다그리고英國의現狀은如何ᄒᆞᆫ가ᄒᆞ면失業者ᄂᆞᆫ발서百萬을超過ᄒᆞ야왜근스에서ᄂᆞᆫ五萬의炭坑夫가同盟罷業을ᄒᆞ며又其他各種至大重大ᄒᆞᆫ産業的難問題가到處에一決을强迫ᄒᆞᄂᆞᆫ狀態이라政局은將次危急을告ᄒᆞᆫ다크리스마쓰의買物ᄒᆞᄂᆞᆫ群衆에對ᄒᆞ야倫敦의街道를往來ᄒᆞᄂᆞᆫ失業者가行列을見ᄒᆞᄂᆞᆫ것은이엇지慘憺ᄒᆞᆫ對照가아니리라其中에도同情을難禁ᄒᆞᆷ은昔日에國家를爲ᄒᆞ야力을다ᄒᆞ든歸休兵이行人의衣袖를執ᄒᆞ며哀乞ᄒᆞᄂᆞᆫ光景이다事情이此와如ᄒᆞᆫ故로都市團體州三個의代表者ᄂᆞᆫ로이드조-지氏에對ᄒᆞ야政府가失業者救濟에七制五分을負擔ᄒᆞ기를要求ᄒᆞ엿스나首相은此에答ᄒᆞ되國民이重稅에苦痛ᄒᆞᄂᆞᆫ今日에此以上더賦課ᄒᆞ기ᄂᆞᆫ不可能ᄒᆞᆫ事이라ᄒᆞ고拒絶ᄒᆞ엿다過般로이드조-지ᄂᆞᆫ下院에서職業이無ᄒᆞᆫ者ᄂᆞᆫ海外에移住ᄒᆞᄂᆞᆫ것이好ᄒᆞ다ᄂᆞᆫ意味로演說ᄒᆞ엿ᄂᆞᆫ되自由黨側의新聞紙ᄂᆞᆫ此를評ᄒᆞ야로이드조-지氏의政治的破産의率直ᄒᆞᆫ自白에不外ᄒᆞ다고痛罵ᄒᆞ고又政府의對露方針과如ᄒᆞᆫ것은國民의輕視ᄒᆞᄂᆞᆫ것이라ᄂᆞᆫ批難이甚盛ᄒᆞ다何故이냐ᄒᆞ면政府의方針은過激派와通商은ᄒᆞᆫ다ᄒᆞ나過激派를滅亡코져ᄒᆞᆷ으로到底히ᄒᆞᆯ수업고露國開의通商上은事實上過激派政府를承認ᄒᆞᆫ것이되엿고又海外貿易으로말ᄒᆞ여도輸出만獎勵ᄒᆞ고輸入을制限ᄒᆞ라ᄂᆞᆫ것이政府의目的인듯ᄒᆞ나如此ᄒᆞᆫ事가잘實行될것갓지도안이ᄒᆞ다結局은海外貿易이不振ᄒᆞ게되야最近에ᄂᆞᆫ首相이考慮ᄒᆞᄂᆞᆫ以上의大規模의組織으로써强制的으로移ᄒᆞ지안이치못ᄒᆞ게되리라더라(倫敦電)

英露通商頓挫乎

英國과勞農露國의通商交涉은過激派側이政府承認問題를몬져解決ᄒᆞᆷ을主張ᄒᆞᆫ結果目下談判進行이困難ᄒᆞᆫ狀態이다故로過激派의代表者로現今倫敦에在留ᄒᆞᆫ크랏신은去十四日英國政府에對ᄒᆞ야其提議에係ᄒᆞᆫ過激派의東方에對ᄒᆞᆫ宣傳中止、英國俘虜의還送、外債償却의三條件을承認ᄒᆞ기不能ᄒᆞ다ᄂᆞᆫ旨를通告ᄒᆞ고併ᄒᆞ야通商開始前에몬져英國政府ᄂᆞᆫ承認問題를解決ᄒᆞ기爲ᄒᆞ야羅馬或은倫敦에會議를開催ᄒᆞ기를願ᄒᆞ며又露國에對ᄒᆞᄂᆞᆫ

封鎖를解除 ᄒᆞ고波羅的海及黑海의水雷를除却ᄒᆞ라고要求ᄒᆞ엿다그리고如斯ᄒᆞᆫ要求ᄂᆞᆫ英國의主張과全然相反ᄒᆞᄂᆞᆫ것으로外英國政府가今後如何ᄒᆞᆫ態度에出ᄒᆞᆯ것인가ᄒᆞᆷ은注目ᄒᆞᆯ價値잇다고ᄒᆞ겟다又英國의實業家中露國通商開始를希望ᄒᆞ든者도最近露國內의實情이明瞭ᄒᆞ게된結果現狀에ᄂᆞᆫ到底히安全ᄒᆞᆫ貿易을行ᄒᆞ기不能이라ᄒᆞ고過激派政府가英國에對ᄒᆞᆫ外債를償還치아니ᄒᆞ면絶對로

通商을開始 치말나고主張ᄒᆞ게되엿다그리고過激派ᄂᆞᆫ現在의狀態에鑑ᄒᆞ야英國에對ᄒᆞ야何等積極的動作에不出ᄒᆞ나英國이過激派政府를承認ᄒᆞ면卽日通商을開始ᄒᆞ리라ᄂᆞᆫ得意의宣傳을試ᄒᆞᄂᆞᆫ中이라ᄒᆞ다

元朝祝賀順序

齋藤總督은今日元朝午前十時十分부터官邸에서左와如히祝賀를受ᄒᆞᆫ다더라

午前十時三十分 李王李堈公兩殿下

自午前十一時 至同十一時卅分 各國總領事領事館員並一般外國人

午前十一時三十分

一、本府並所屬官署(京城)勅任官

一、本府官房及各局高等官三等以下ᄂᆞᆫ各總代一名同上判任官은各總代一名

一、所屬官署長官은各自의官署員에게祝賀를受ᄒᆞᆫ後總督官邸에參集ᄒᆞ야其旨를報ᄒᆞᆷ

一、李王職은前項에準ᄒᆞᆷ

一、中樞院副議長顧問、贊議、

道新年祝賀式

京畿道廳에서ᄂᆞᆫ今一月一日午前十時부터道會議室에서新年祝賀式을擧行ᄒᆞᆫ바上道長官以下道職員一同과市內各警察署長、高陽郡守、京城殖林苗上席者等、京城森林保護道森林主事等이參集ᄒᆞ야御眞影의御前에서拜賀ᄒᆞ얏다더라

●朝鮮貴族拜賀 午前十一時四十分 其他의[illegible]貴族은高等官[illegible] 賀禮服裝은[illegible]帽子

客年의各市場 今年財界ᄂᆞᆫ何如

株式、米穀、綿絲의各市場은多少의好勢裡에서納會를告ᄒᆞ얏스나要컨ᄃᆡ客年의市況은百花爛漫ᄒᆞᆫ夢想卿으로一轉ᄒᆞ야寒風枯木의荒涼ᄒᆞᆫ面目을呈出ᄒᆞᆫ者오本年의景氣에至ᄒᆞ야ᄂᆞᆫ豫斷키姑難ᄒᆞ되作年昇ᄒᆞᆫ價의前途에著大ᄒᆞᆫ變動이有ᄒᆞᆯ기ᄂᆞᆫ財界ᄂᆞᆫ오직樂觀키難ᄒᆞᆷ과如ᄒᆞ다ᄂᆞᆫ觀測이居多ᄒᆞ더라

客年全鮮의 郵貯와爲替

郵便爲替貯金業은民間金融과感觸이最히銳敏ᄒᆞᆷ으로財界의動搖ᄂᆞᆫ直히爲替貯金의消長에反映됨을投ᄒᆞᄂᆞᆫ者임으로今에全鮮에在ᄒᆞᆫ爲替貯金의趨勢를管理所當局에聞ᄒᆞᆫ즉

郵便爲替

最近一個年間의郵便爲替의受拂狀況을以前一個年과比較ᄒᆞ면左와如ᄒᆞᆷ

年度	受口數	受金額
八年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拂口數	拂金額
八年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以上表示 ᄒᆞᆫ數字로觀之ᄒᆞ면受口數가一割七分一厘受金額이一割九分二厘의增加를示ᄒᆞ야一見增進의傾向이지만仔細히內容을窺ᄒᆞᆫ즉大正七年以來取扱高ᄂᆞᆫ一々히增進ᄒᆞ더니되九年七月頃부터ᄂᆞᆫ反對의現象을招來ᄒᆞ야今에大正七年六月과八年及九年의六月과

取扱金額 을比較ᄒᆞᆫ즉

年月	受口數	受額
七年六月	[illegible]	[illegible]
八年六月	[illegible]	[illegible]
九年六月	[illegible]	[illegible]

	拂口數	拂金額
七年六月	[illegible]	[illegible]
八年六月	[illegible]	[illegible]
九年六月	[illegible]	[illegible]

右와如히口數及金額이共히增進ᄒᆞ야九年下半에至ᄒᆞ야ᄂᆞᆫ

年度	受口數	受額
九年七月	[illegible]	[illegible]
同 八月	[illegible]	[illegible]
同 九月	[illegible]	[illegible]
同 十月	[illegible]	[illegible]

	拂口數	拂金額
九年七月	[illegible]	[illegible]
同 八月	[illegible]	[illegible]
同 九月	[illegible]	[illegible]
同 十月	[illegible]	[illegible]

此表에因ᄒᆞ야觀ᄒᆞᆷ에六月에對ᄒᆞ야

七月口數 ᄂᆞᆫ何如間一割二分六厘요金額은九分五厘乃至二割二分九厘로減少ᄒᆞ고同十月은口數가二割六分四厘乃至一割九分八厘요金額은七厘乃至二分四厘의減少를示ᄒᆞ얏더라然이나如斯ᄒᆞᆫ現象은獨히郵便爲替에止치안니ᄒᆞ며此ᄂᆞᆫ各銀行의爲替受拂에就ᄒᆞ야觀ᄒᆞᆷ과同樣인現象을呈ᄒᆞᄂᆞᆫ더이며

郵便振替

貯金도爲替와[illegible]以上과如히人員金額이共히增加ᄒᆞ야元來振替貯金의新加入은[illegible]方漸減ᄒᆞᄂᆞᆫ法則이有ᄒᆞ나[illegible]後退ᄒᆞ야減少ᄒᆞᆫ것이法則이라今에八年度及九年度에在ᄒᆞᆫ新加入人員을調查ᄒᆞᆫ즉

大正八年度	一、六〇一人
大正九年度	一、四二五人

右와如히九年度에在ᄒᆞ야一割六厘의

大減少를 示ᄒᆞ고前述의拂出에도依ᄒᆞ나亦新設會社의勃興事業의擴張等이停止케됨으로朝鮮에在ᄒᆞᆫ振替貯金業務ᄂᆞᆫ年々히其取扱高를增加ᄒᆞ야來ᄒᆞ고九年度의受拂高ᄂᆞᆫ前年의同期에比較ᄒᆞ야見ᄒᆞᆫ즉

	拂込口數	同金額
八年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拂出口數	同金額
八年	[illegible]	[illegible]
九年	[illegible]	[illegible]

右와如히拂込度數에在ᄒᆞ야九厘拂出度數에在ᄒᆞ야一割의減少를示ᄒᆞ고拂込金額이一割二分요拂出金額은一割六分의增加를示ᄒᆞᆷ이요

拂出金額 은一割六分의[illegible]此에拂入度數及拂出度數의減少ᄂᆞᆫ一時의天井을不知ᄒᆞᄂᆞᆫ好景氣를呈ᄒᆞᆫ雨後의竹筍과如히簇生ᄒᆞᆫ新設會社의中에서勤業債券投賣의看板으로申込者를欺瞞ᄒᆞ야不正의利益을收ᄒᆞᄂᆞᆫ所謂幽靈會社가昨冬一時에

其內情을 暴露케ᄒᆞ얏슴으로當局의峻酷ᄒᆞᆫ取締와一般人民의警戒에因ᄒᆞ야遂히一片의煙과如히消ᄒᆞ야振替集金의減少를招來ᄒᆞ얏ᄂᆞᆫ되拂込口數減少의主ᄒᆞᆫ者도拂込口數의減少ᄂᆞᆫ昨年七月의規則改正에依ᄒᆞ야高額拂出制度를縮少ᄒᆞ얏슴으로國庫金拂出減少等에因ᄒᆞᆷ이라金額은

口數減少 에對ᄒᆞ야反對의數字를示ᄒᆞ다今에財界不振의時인ᄃᆡ增加ᄂᆞᆫ聊히奇異의感이有ᄒᆞ나此ᄂᆞᆫ一般取引能率의高ᄒᆞᆷ에因ᄒᆞᆫ事임으로外로政府가國債證券募集을行ᄒᆞᆫ結果受拂金額의增加를來ᄒᆞᆫ事와地方銀行이本店又ᄂᆞᆫ他銀行에資金을送附ᄒᆞᆷ에當ᄒᆞ야

現金直送 의繁雜을避케ᄒᆞ야振替貯金을利用ᄒᆞᄂᆞᆫ者增加ᄒᆞᆷ에因ᄒᆞᆷ이라次에現金高ᄂᆞᆫ如何ᄒᆞ가ᄒᆞᆫ즉大正五年以降의受拂高의比較ᄂᆞᆫ

年次	現在高
大正五年末	[illegible]
大正六年末	[illegible]
大正七年末	[illegible]
大正八年末	[illegible]
大正九年末	[illegible]

右와如히受拂高의增加ᄒᆞᆷ에對ᄒᆞ야現在高의率은恒常反比例가되얏더라此ᄂᆞᆫ金融機關인振替貯金의利用에關ᄒᆞᆫ觀念의向上을語ᄒᆞᄂᆞᆫ者이라斷ᄒᆞᆷ을得ᄒᆞᆯ터이라其受拂의金額과現在高의比較的大ᄒᆞᆫ數字를示케ᄒᆞᆷ은振替貯金本來의特質일터이며

郵便貯金

郵便貯金의九年十月末現在高를見ᄒᆞᆷ에

人員	[illegible]人
金額	[illegible]圓

인ᄃᆡ此를八年末現在高

人員	[illegible]人
金額	[illegible]圓

에比較ᄒᆞ면은人員에在ᄒᆞ야四厘의減少를來ᄒᆞ고金額에在ᄒᆞ야ᄂᆞᆫ一割一分一厘의增加를示ᄒᆞ얏ᄂᆞᆫ되今에大正五年以降의貯金의趨勢를見ᄒᆞᆷ이

年次	人員	金額
五年末	[illegible]	[illegible]
六年末	[illegible]	[illegible]
七年末	[illegible]	[illegible]
八年末	[illegible]	[illegible]

二大原因 이有ᄒᆞ니其一은昨春에突發ᄒᆞᆫ騷擾事件인ᄃᆡ此結果如何에朝鮮人思想의突變을興ᄒᆞ야[illegible]本年下半期의現在高를見ᄒᆞᆫ즉日本人側은

年次	人員	金額
七月末	[illegible]	[illegible]
八月末	[illegible]	[illegible]
九月末	[illegible]	[illegible]
十月末	[illegible]	[illegible]

人員金額 이共히漸次增加ᄒᆞ나亦一面에在ᄒᆞ야官公吏의俸給生活者를占領ᄒᆞ얏ᄂᆞᆫ되日本人이物價漸落에際會ᄒᆞ야生活이緩和ᄒᆞᆫ者로觀ᄒᆞ야도過言이안일터이며朝鮮人側의狀態ᄂᆞᆫ

九年次	人員	金額
七月末	[illegible]	[illegible]
八月末	[illegible]	[illegible]
九月末	[illegible]	[illegible]
十月末	[illegible]	[illegible]

右와如히日本人側에反ᄒᆞ야日々히

增加됨에 反ᄒᆞ야減少의傾向을示ᄒᆞᆷ은前述ᄒᆞᆫ理由에基ᄒᆞᆫ者이며此의狀態ᄂᆞᆫ今後當分間繼續ᄒᆞ리라ᄂᆞᆫ者도思ᄒᆞ나要컨ᄃᆡ財界의動搖가爲替貯金에在ᄒᆞ야最히顯著히表示ᄒᆞᄂᆞᆫ者이라더라

泰西의才談

◆女子와衣裳

衣裳은女子의武器ㅣ

知識은男子의武器ㅣ

男子의衣服입ᄂᆞᆫ것은防禦버문ㅣ

女子의衣服입ᄂᆞᆫ것은攻擊버문ㅣ (혼돈、매인)

女子의本心은그身體와갓치疊々히衣裳에덥혀잇나니라

女子가華麗ᄒᆞᆫ衣服을자랑ᄒᆞᄂᆞᆫ것은孔雀이쇼리를펴ᄂᆞᆫ것과갓치그天性이니라 (英國俚諺)

治粧잘ᄒᆞᄂᆞᆫ四十歲된女子ᄂᆞᆫ治粧잘못ᄒᆞᄂᆞᆫ十五歲된女子보다往々히젊어보이나니라 (만스필드)

안히의衣裳을보면그男便을斟酌ᄒᆞᆯ수잇나니라 (한발드)

華麗ᄒᆞᆫ衣裳을입으면美人도別로더어엽버보이지도안코醜婦나不具者ᄂᆞᆫ더욱못싱겨보이나니라 (짐매르만)

옷안이갈아입고敎會에가ᄂᆞᆫ女子ᄂᆞᆫ眞正ᄒᆞᆫ女丈夫니라 (키쓰及其他)

金煥氏丁憂

東京創造社同人金煥氏의母堂金炳善夫人은宿患으로去十二月二十九日上午五時에別世ᄒᆞ얏ᄂᆞᆫ되出棺日時ᄂᆞᆫ陰十一月二十三日上午十時요葬地ᄂᆞᆫ龍岡郡大代面梧山里이라더라

●餘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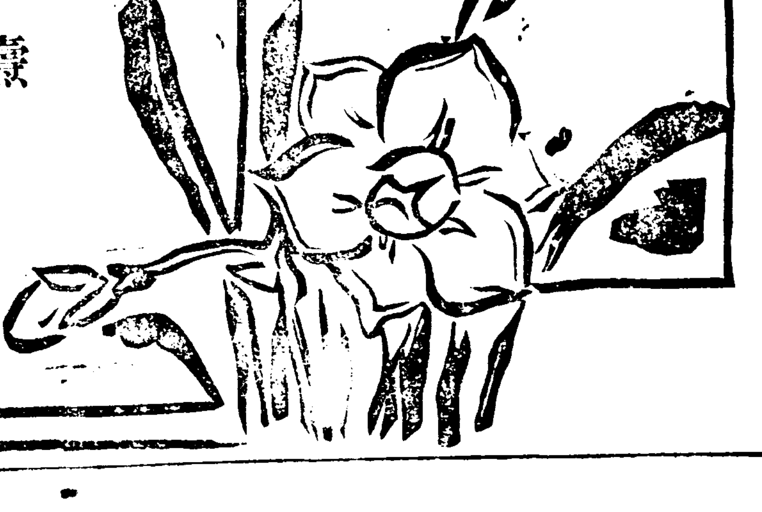
千九百二十年의三百六十有餘日은 雨々風々中에서無事히經過ᄒᆞ고今年此日의元朝를迎ᄒᆞ게되얏다◆年의經過ᄒᆞᆷ을ᄯᆞ라敎齡이一歲를加ᄒᆞ게되ᄂᆞᆫ報自身의壽命靈長의關係上何人이던지擧手頂祝ᄒᆞᆯ바어니와◆此와同時에秉筆者의馬齒가一矢를加添ᄒᆞ게된즉記憶力과其他의關係로因ᄒᆞ야新年의新筆이或者由是로鈍滯ᄒᆞᄂᆞᆫ大失이無ᄒᆞᆯ가ᄒᆞᄂᆞᆫ內心의悶憂가不無ᄒᆞ다(錦堂生)

休刊 明二日은元旦의翌日이기로本紙의發行이無ᄒᆞᆷ

謹賀新年
京城府貫鐵町一丁目四九番地
朝鮮出版協會
電話二七九七番 振替京城六四一七番
顧問 柳在[illegible]
主務 宋世[illegible] 鄭允[illegible] 成澤

謹賀新年
城西府大門町二丁目七番地(前西大門跡三掛里側)
朝鮮料理 中華料理 靑松館

賀
京城通義洞廿二番地
勞働大會
會長 副會長 總務部長 庶務部長 財務部長 營業部長 評議長 [illegible]
外會員一同



謹賀新年
京城府武橋町二十二番地
張燾
電話一三三六番

謹賀新年
京城府仁寺洞
明月館
電話[illegible]

謹賀新年
京城瑞麟洞一三八
朝鮮料理 李王職御用達
海東館
電話 五八六 七二五
主 李元[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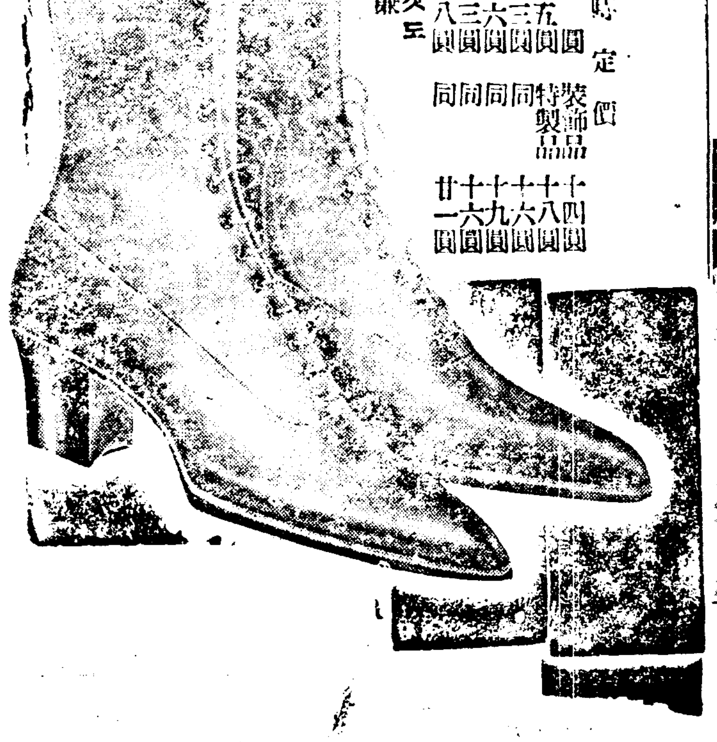
謹賀新年
京城光化門通二〇九
蔘茸草根乾材貿易 有名賣藥製造販賣
漢藥社
長 電話二六四一番
振替口座京城四四六五番

謹賀新年
京城府宮井洞一番地
金勇漢

謹賀新年
京城府義州通二丁目三番地
朴東煥

謹賀新年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株式會社 海東銀行
電話 二三〇〇番 一五四八番 三一四五番

京鍾路靑年會館
世昌洋靴店



現時定價
福壽短靴 十五圓 裝飾品 十四圓
깃도短靴 十三圓 特製品 十八圓
福壽淺고무靴 十六圓 同 十六圓
깃도고무靴 十三圓 同 十九圓
福壽編上靴 十八圓 同 十六圓
깃도編上靴 [illegible] 同 廿一圓
西洋福壽도各色깃도便보담一圓低廉

梁世鎭
振替口座七八七八番

元朝瑞旭의屠蘇杯로써滿天下僉位君子의新年新禧를擧手頂祝ᄒᆞ옵나이다本店은開業ᄒᆞᆫ지十有年霜에顧客本位의主下에서業務가年々復年擴張ᄒᆞ게됨을得ᄒᆞᆷ은江湖諸君子의假賜ᄒᆞᆫ德이라ᄒᆞ야過去의厚誼를深謝ᄒᆞᄂᆞᆫ同時將來永遠히德音을垂賜ᄒᆞ심을懇願ᄒᆞ옵나이다此懇望을가지고新年元朝를迎ᄒᆞᄂᆞᆫ本店一同은僉位의眷顧ᄒᆞ심을萬一이라도報答키爲ᄒᆞ야品質이란務擇其精ᄒᆞ고酬應이란務圖迅速코저ᄒᆞ오니幷此垂량ᄒᆞ시옵

謹告

冬期家庭에 木炭의로만스

겨울이되면만히쓰는 숫시니야기올시다!

나는겨울마다면 여러분가々에 쓰시는부인네들과 제일가깝게 지내는숫이올시다 세계에셔제 일만히 우리의힘을입는이는 도다미 방에사는 본人들이 올시다 그다음에 조션셔도 우리들을 쓰는닙니다 그중에도겨 울만되면 여러부인네들이 인 도를 니화로 불이니하야 퍼ㄱ 친절히 지만은 우리가 엇더면 조흔지엇더면글 눈지여러분 자 세히모르는것갓흡니가 모수자 쳐오도 니가니말을하는것은조 금미안흔것갓하나 그런안이 다 신년새해에 숫 커먼이사람이얼 굴을 닉혓는것은 여러분이그 처럼 조케싱각을 하지안이흘 즐업니다 그러나검은것이잇셔 야 흰것이잇스니셔 이사람이 검은것도 그처럼흉보실것은안 입니다 하여간

새희세비겸

두어말솜을려고 홈니다요사이갓 흔치운씨에 한셤에일원삼사십전 이나주고 우리들을 하천ㅅ셔 광구석이나 부엌구석에 합부 로쳐박어노앗다가 쓰니일적에 도 하얀손에는 옷에나뭇을셔 바 으조겁흡니고 길다란시뎌 치로 푸ㄱ쓱셔 화로에다집어 녓코 불을부치지요 가만이싱 각하면 넘이 구박하고괄세하는 것이분히셔 분이상투끗셔지나 셔오몸놈이셔지 빨기집니다 이럿케 골닉는것을보고야 여 러사람들이 마음이풀니는지 그 제야손을별니고 오쥬조타고입 이하야자기도하고 그뿐인가요 엇던사람은 비는것갓치 손을 싹々부비는이도잇지요 그외 에도 엇던때는 남도하야금

부부사이에

싸홈도지하는이가잇지요가만이 안자셔구경을하면흥미만하고가 엽셔 못견되겟습니다 그것은 다른싸홈이운이라 남편되는이 는 나를만이 쓴다고 꾸짓 고 부인은 너무 쓸데 쓰지오 함부로만히쓴일이 업는데우 에그러시오하며 쥬고밧고야 단이나지오 그리다가도 그치 렴 큰싸홈이 되재안케하고하 지부지 말으자는것은 좀고마 운 일입니다 이런홍 우시기 는 다그만두고 여러분이 우 리들을 식커먼숫덩이리고 념 어뎌시만 할거시안이라 우리 들의 속닉를 잘알어두시면조 체상도 필요할거시오 또숫 으로하야 니외싸홈도 그처럼 업슬줄밋슴니다 우리들의 조 코 그른것을 으는데는 어려 운합류이나 또는만는지식이들 지 안이하고 잘알수가잇슴니 다제 칫지로

빗갈은것을

살골나 사셔야 할것심니다본 리 쓰거운 불긔운으로 숫수 구어야만 빗치조습니다 이검 는 숫치불긔운도 만코 또오다 리 갈쇈만안이라 탄쇼라고하 는것이 만이들어잇숩니다 그 것을 조금자셔히 말홈 하자 고하면 숫헤도 여러가지 종 류가잇습니다

一、갈탄이라고하는숫은 빗 치 그쳐럼 검지못한것이니 셥씨한란계로 二十도의온 도로 구운것이며 탄쇼는七 十三프셰ㄴ트가되며

二、흑석탄은 시컴한숫이니 셥씨三十五도 불긔운으로 구운것이오 탄쇼는八十파 ㅅ셰ㄴ트가들어잇고

三、숫컴엇고 광치가나는숫은셥지四十도 상의불긔운으로구은것이며 탄쇼는九十七파셰ㄴ트가들어잇다고ㅎ는숫이올시다

딘 기숫으로말ㅎ면 이세가지가 잇스며 빗치검 광치가만히나 는것이 제일조흡니다 스름에도 근본이조흔사람도잇고 텬질이 ㄱ약한사람이잇듯시 우리숫도 나무를따라 조흔숫도잇고 글 은숫도잇슴니다 혹은소나무숫 도잇고 참ㅅ나무숫도잇고 근탄 라고 나무뿌리로만든숫도잇ㅅ 슴니다 그것은여러분도보 시면다 아실것이나가 별로다른 발흥지안이흡니다만은 엇지 던지 숫이단々하여아조키쓸니 다 단々한면셔라셔 부서지々 도안이하야 되단조흔것입니다 또뚜다려보아셔 쇠리가쇠쇠 갓치나면 숫품이조코 또다ㄴ 々한증거이올시다 ㅇ면 써여지々안이하고 원나 무비탈디로잇셔야만 상픔숫치 라고하겟고 또불힘도만습니다

불꿋이활々

일어나는것은 셩질이조치못한 숫이니 그리들아시요 혹시엇 던이는 숫에다 몸음부어셔쓰 면 불이모되인나고 하는이가 잇지만은 그것은풀무쟝이갓흔 이외에 집안에셔쓰는이에게는 도ㅁ히려 불경제가되는것이니쥬 의하시기바람니다 그것은우에 그러ㄴ냐하면 원릭우리숫은떠 러분의 사람들이일에숨쉬는것 갓치 우리도공긔중에셔 한 상일이할식은 물긔운을가지고 잇슴니다 가령너돈중 숫이이 할ㅡ슈분을가지고잇다고하면그 숫에불이붓기젼에 二千가로리 ㅅ열을쇼비한다고 할수가잇슴 니다 숫헤다만物품적시연적 이도 삼사할 물을먹음고잇 스니 열량의손실이 비상하만 흡것은 뎡한일이올시다 그러 홈으로 될수잇는디로는 주의 하야셔

말느게두어

쓰시게하는것이 조슴니다 한 번쳐진숫은아모리 볏헤말녀도 쪽거럼 물긔운이다시엄셔지는 안이하는것이올시다 물뭇은숫 은오린간다고 조흔것갓치싱각 는는이가잇지만은 오린가는디 신에 불긔운이만히업셔지는것 이니 결국불긔운에드해셔 손 해를보는것입니다 또우리목탄 은 여러가지 와쓰라는긔운을 빠라드리고잇는것이니「사우카 수으늬라고하는 학자가연구하여 말ㆍ기를 일반이목탄이라고하 는것은흔히밤과 흐로낫동안에

암모니아 九〇〇
오류산와쓰(亞硫酸와스) 九〇〇
염산와쓰(鹽酸와쓰) 八五〇〇
우화싸쇼(硫化水素) 五五〇〇
탄산와쓰(炭酸와쓰) 三五〇〇

이 여러가지 와쓰를 흡슈한 다고말을하엿슴니다 우리네들 숫에 불이붓흘띠

냄시가나는

것은 이여러가지와스가나오는 그닙세 올시다 속담에이것을 쥐오줌이라고하지만은 그것은 몹으는말이올시다 이냄시는 사람의 정밧을 히롭게하는것 이니 병인갓흔이가 잇는방에 셔는 숫을피울쇠에 박게셔 피여가지고 들어오는것이 조 켓슴니다 숫치타々튀는것은나 무의셩질도잇거니와 이숫쓰 고 하는것이 나올띠에쭉발 이되여셔 튀는것이올시다이러 흔것은 우리숫이라고하는것이 다불만피우는디만 쓰는것이안 이라 물을걸를때에도 쓰고또 근에 너욕셔를한시라는디로되 용용하는이가 잇슴니다이것은 다 우리숫이 쓰쓰흡수하는것 을 옹기셔분넘니다 또빗을회 게하는수도 잇스니셔 교할한사람들이 우리숫을리용 하여검은것을 회게하는디쓰는 일이 만슴니다 가령흉은곳도 주 흑회게한다면지 그외에표 범지(濾紙)로쓰고 또숫이영 구히 썩지안이하는외닯에 이 디에는국경이나또산쇼솔씨에가 장자리에넛키도홉니다

신년식히에

여 단미아흡니다 그러나여 식컨데는 가나셔ㄴ 증언부언 이가 구시면 업슈하여길것 여안이라 잘싱각하여 우리를 구시면 떠ㄱ자미잇는일 만슴니다 우리들도 사롬보다 자랑할것은 영구히썩지안이하 는것과 저는검어도 남은희게 하고 무장공자 갓튀보여도청 만나면 발리켜셔 뜨거운열괴 들토홉니다 그러나 여러분사 룹은 우리숫보다도 붓그러운 일이만치요 으모조록올브는ㄴ 글을읽어ㄷ록 잘하여 힘쓰시 기를 바랍니다 (끗)

戀愛哲學

◆戀愛는主義홈必要가업다。字典에업든네人적부러男女가셔로사랑한것이다

◆戀愛……戀愛만이人生에게가장必要한것이다人外에모든것은幻影이며木偶이며空想이니라

◆戀에는吾人의生命을覺醒하기爲하야는吾人의生存이夢中行步와如하니라

◆戀愛는糧食이다……荒蕪한人生의曠野의甘露蜜이니라 (오레ㄹ)

◆戀愛와婦人의關係는太陽의花卉의關係와如하다……戀愛는婦人을빗나게하며 化粧식혀주면곱고어엽부게하지만는 너무甚하면에는婦人을태와바리고 시들게하나니라 (오레ㄹ)

취人드민의詩

張星苑

어늬움에셔보앗다

썽우의것이외人좋나들어볼을지라도못의일로都市를나어늬움에셔보앗다

그것은朋友의新都市이엿다偉壯훈사랑의本質에셔더偉大훈것은여나니사랑은餘의引率훈다

그都市의사름들의行爲는恒常그것이뵈엿나

더들의얼굴과모든말가운데에一

『草葉』에셔

너희가永續홀리라不斃훈는바그것은큰都市이냐

또는般成훈工業國이냐完備훈憲法이냐堅固훈汽船이냐또는花崗石과강鐵로建築훈劇場이냐工業上의大工事이냐蒸氣이냐鐵艦이냐?

말지어다이것들은그物件自身를爲하야存在홈이안이니그 만맛초숌데에시되고니여달녀올것은毀壞뿐

큰都市이란큰男子와큰女子를가진곳이라

비록그것이二三모屋으로부터成立되엿나훌지라도오히려全世界에셔最大都市이라하리라

큰都市이란어늬곳에잇는가?

平等이事實우에셔證明되는곳에

가장友誼가돗타운朋友사는巨里가잇는곳에

兩性의純潔훈巨果가잇는곳에

가장健全훈아비사는巨果가잇는곳에

가장體格조흔어미가사는巨果가잇는곳에

거긔큰都市가잇다

京城公平洞七十一番地 毛物業 漢昌商會 主 鄭漢[illegible] 主務 金俊明 會計 鄭鎮民 電話四一二三番 振替京城二四九四番

京城府公平洞一〇四番地 金銀美術細工製造 漢城商會 主 鄭鼎漢 主務 金根植 會計 金榮祚

京城府松峴洞四〇 曙光雜誌發行 圖書出版販賣 文興社 長電話一六二三 振替京城七〇〇五

京城西部笠洞一二七番地 鞋店 金永斗 電話二四四番 振替一〇三六番

京城鍾路通四丁目三四番地 德昌號自轉車舖 崔錫宇

賀正 登錄商標 朝鮮賣藥株式會社 京城黃金町二丁目九番地 電話二三八四番 振替二四八〇番

崔慶植洋靴店 京城府鍾路二丁目一〇六

株式會社百三十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第一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漢城銀行
株式會社十八銀行京城支店
株式會社商業銀行
株式會社朝鮮實業銀行
株式會社韓一銀行

京城鍾路二丁目 大陸商會 金炳奭 電話二〇〇參番

京城茶屋町十五番地 京城毛物同業組合 組合長 副組合長 評議員 [illegible] 電話二四七一番

賀正 和平堂大藥房
京城鍾路 電話長一六九七番 振替京城八一八番
本舖主 李應善
本舖各部店員一同
各處支店特約店一同
去歲中特殊하오신貴眷愛와多大하온去來를賜하신은 本堂의深히感謝하는바이옵니다新年은一層勉勵하야一般의福利를增進케하라期하오니新年中에도依舊愛顧하시옵소셔

仁川物産客主組合 仁川新町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百十八番地 各種毛物都散賣商 南昌商會 主任 金汝完

仁川穀物小賣組合 仁川外里

仁川米商組合 仁川外里

仁川府牛角里五番地 米穀及委托販賣取扱 大安商店 主 崔求永
同越便 大安堂冷麵屋 〈顧客本位로本店의特色〉

仁川府房町一丁目一三番地 販賣及運送業 共信商會
仁川花房町二丁目十一番地 電話七六八番 物産客主部 共信昌 店員一同

新年號大增 美術月曆附 開闢 本號에限하여 特價六十錢 郵稅貳錢
日本出來 文藝品增大
重要目次
◆鷄鳴而起하야
◎大食主義를宣言하노라
◎新年改良의第一着으로
◎朝鮮의衣食住를擧하노라
◎迷信의「갸두」를버스라
◎新年과各階級의希望
◎朝鮮青年會의成立에就하야
◇農村青年會設立을促함
◎權花三千里를踏破하고
◎弓裔의네ᄉ서울을밟고
◎歲拜를들입니다
●意識上으로觀한自我의概念
◎朝鮮製麻事業과그의襤褸利用策
◆겨울의農村生活을들어
●上下七十一 辛酉史
◎現代文藝와입세ㄴ
◎달밤에故國을그리면서
◎그날밤
◎小說은파리貧妻
其他詩、歌、散文、紀行文、小說、脚本、等四十餘題(二百餘頁)
京城府松峴洞三四番地 開闢社 振替京城八一〇六

謹賀新年 京城昌信洞六九六 廣熙堂大藥房 主 金[illegible]守

優美館 京城貫鐵洞
晝의部 伊國이다라會社 史劇 가비리아 一萬五千尺 其他實寫喜劇等
夜의部 米國유니버살會社 一連續 深夜의人 三十六卷內 其他實寫喜劇等
電話二三二六

仁川龍岡町一七 穀物原賣 海陸物産 委托販賣業 廣信商會 主 鄭寅河

仁川新町 仁川信用組合

仁川府龍岡町一七 太陽旅館 主 奇成俊

高陽郡纛島面纛島里 纛島青年會

高陽郡纛島面東纛島里四四六 穀物 薪炭 貿易委托販賣業 延永模 電話二〇六七番 振替口座八七四番

高陽郡漢芝面漢江里四五九 天一質屋主 黃始淸

高陽郡漢芝面漢江里一三四 紳士 朴淳构

朝鮮日報 其二

歷代辛酉年史

해石 李明宰

△新羅赫居世五十四年
△箕子朝鮮哀王三年
△馬韓□一年
△新羅南解王五十八年
△高句麗琉璃王二十年。春正月에太子都切이卒ᄒᆞ다
△百濟始祖王十九年
△新羅脫解王四年。秋八月에馬韓將孟召가複巖城으로써來降ᄒᆞ다
△高句麗太祖王九年
△百濟多婁王三十四年
△新羅祇摩王十年。春正月에翌飡昌으로伊飡을拜ᄒᆞ고大甑山城을築ᄒᆞ며倭가東邊을寇ᄒᆞ다
△高句麗太祖王六十九年。[illegible]
△百濟己婁王四十五年
△高句麗故國川王[illegible]
[illegible]

新年의感想

湖南聖壇山房　南海樵山

[illegible]

鷄林과辛酉

[illegible]

鳥編

放花編

[illegible]

新年有感

詞藻　雲若 李壽根

迎由迎酉陽春節、萬事皆□亦不遲。五大瀰漫瀰漫際、一年光景劈頭。經營於此張計、所願下成就期。南山壽福無疆進、仰願安寧極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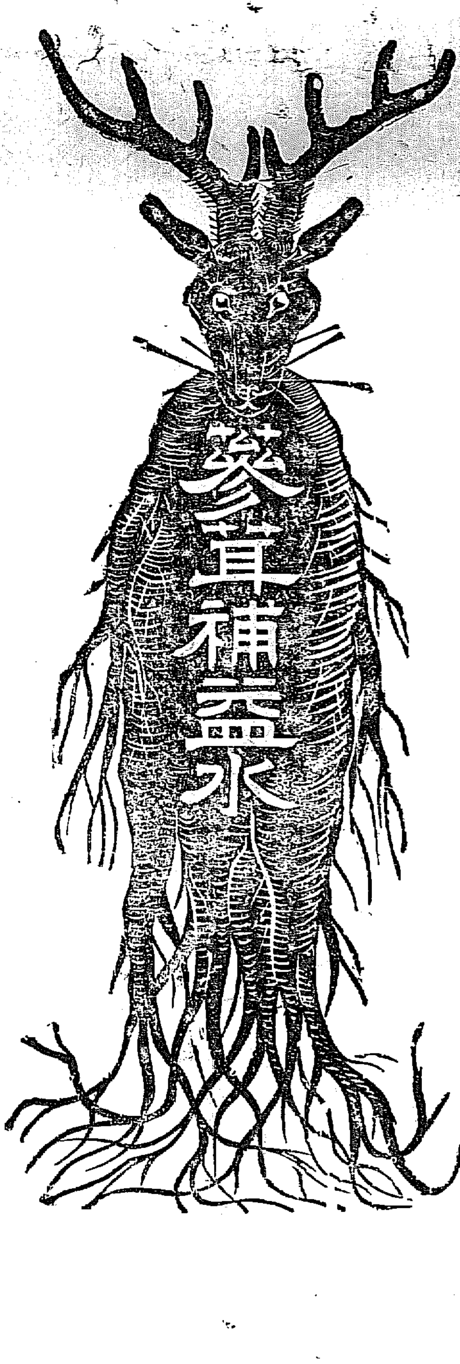
恭賀新年

新年健强을祝賀ᄒᆞ라면 即蔘茸補益水

服用ᄒᆞ시면先히胃經을補ᄒᆞ야口味을實케ᄒᆞ며元氣를助ᄒᆞ야疲困홈을免케ᄒᆞ기는累萬人의實驗뿐外라施服幾日이면其實을可知이외다

◎

●事務를執홈에元氣가無ᄒᆞᆫ人　●腎氣不足의人　●房事不容의人
●惱가重ᄒᆞ야직근직근痛ᄒᆞᆫ人　●腎虛腰痛의人　●手足厥冷의人
●便秘、逆上、不眠의惱ᄒᆞᄂᆞᆫ人　●顔色蒼白의人　●遺情多夢의人
●健忘症으로記憶力이無ᄒᆞᆫ人　●身體虛弱의人　●其他不足의人



二十日分　參圓
一個月分　四圓
二個月分　七圓五十錢
三個月分　十一圓

引換小包料每月分五十錢式其他包代가有하고郵便으로注文할時는郵料先送ᄒᆞ시옵

◎

賣藥各種製造發賣　株式會社 模範賣藥商會

京城鍾路二丁目二十一番地
電話二〇一一番　振替四七二番

敬頌新春
京城黃金町一丁目(美洞)
美北鞋店 金 滙
電話 振替口座[illegible]

敬頌新春
京城寬勳洞七四
壽昌醫院長 李 喜
電話七二八五番　振替[illegible]

謹賀新年
京城南大門通
滙東書館
高裕相

敬頌新春
京城寬勳洞一三〇
昌興洋靴店
主 李昌應

謹賀新年
京城鍾路二丁目一番地
大昌洋靴店
崔在興
振替拂込京城五二二〇番

謹賀新年
一月元日特別割引홈
京城府寬勳洞八番地
洋靴。短靴。雨靴。長靴。便靴
商日盛洋靴店
主 金錫應

謹賀新年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一番地
光信鞋商 崔斗漢

謹賀新年
京城府義州通二丁目十二番地
全永祚

謹賀新年
京城寬勳洞一六九
朴德裕洋靴店
電話一四八三番

敬頌新春
京城中學洞一七
商務研究會本部
電話一四三四番

謹賀新年
京城鍾路一丁目八三
桂信洋靴店
主 金桂燦

謹賀新年
京城黃金町五丁目一四九
東亞商會

謹賀新年
活字製造販賣
鉛版附屬品一式販賣
活版インキ各種
活版機械買賣
滅字高價買入
京城府貫鐵洞一四〇(長谷川北川邊)
東洋活版製造所

謹賀新年
本人이仁寺洞五十七番地에셔表記住所로移轉ᄒᆞ와產婆業을繼續ᄒᆞ나이다
京城府仁寺洞百七十一番地
產婆 慶興善

謹賀新年
京城府瑞麟洞三十一番地
織物業 仲立業 廣信號
電話一三九番

敬頌新春
京城府鍾路通五丁目一〇〇
京城府協議員 李康𤣰

臨時敎育調査委員에게望ᄒᆞ노라

一記者

敎育이民族發達上에重大ᄒᆞᆫ關係가有ᄒᆞᆷ은此에贅言ᄒᆞᆯ바가無ᄒᆞ나其時代와其民族性에適應치못ᄒᆞ면良好ᄒᆞᆫ結果를得치못ᄒᆞᆯ지라故로甲國에서敎育制度가如何히完美ᄒᆞᆯ지라도乙國에不適ᄒᆞᆫ事가有ᄒᆞ며前日에敎育制度가如何히完美ᄒᆞᆯ지라도現代에不適ᄒᆞᆫ事가有ᄒᆞ나니換言ᄒᆞ면其民族의性質歷史風俗習慣等을中心으로ᄒᆞ야其時代에適切ᄒᆞᆫ敎育을施치안이ᄒᆞ면不可ᄒᆞᆯ지라例컨ᄃᆡ參茸은藥의良材이나患者에게適當히用치안이ᄒᆞ면效力이無ᄒᆞᆷ과如ᄒᆞ도다我朝鮮은自來로敎育이無ᄒᆞᆫ바는안이나專혀支那의系統을受ᄒᆞ야自存的精神이缺乏ᄒᆞ고浮文과虛禮를是事ᄒᆞ며因循과姑息으로第二天性을作ᄒᆞᆫ中加ᄒᆞ야統一的訓練이無ᄒᆞᆫ結果로人心이分離ᄒᆞ야黨爭이常出ᄒᆞ다가大事를是誤ᄒᆞ야遂히他民族의落伍者가되얏도다更張以後로當局에서新敎育을施ᄒᆞ야各種學校를設立ᄒᆞ며民間側에서도亦諸學校를設立ᄒᆞ고熱心敎育ᄒᆞ엿스나時日이尙淺ᄒᆞ고人心이固頑ᄒᆞ야良好의成績을見키難ᄒᆞ던바現今에在ᄒᆞ야도敎育의當局者가朝鮮人이少ᄒᆞᆷ으로(一殆無)如何히熱心의指導와完全ᄒᆞᆫ設備가有ᄒᆞ다ᄒᆞᆯ지라도言語가不同ᄒᆞ고風俗이相異ᄒᆞ며民族性이適殊ᄒᆞ야今日所謂新敎育이目的을徹底히遂키難ᄒᆞ도다此는吾朝鮮人만遺憾으로思ᄒᆞᆯ안이라當局에서도亦多少諒解가有ᄒᆞᆯ줄로思ᄒᆞᄂᆞᆫ바라今에當局에서도此를思ᄒᆞᆷ인지時代의思潮를鑑ᄒᆞᆷ인지我朝鮮의敎育制度를改正에着手ᄒᆞ야旣히高等普通學校와普通學校의制度를多少改定ᄒᆞ고且朝鮮人諸氏를特히選擧ᄒᆞ야臨時調査委員의任을當케ᄒᆞ니此는我朝鮮敎育界의一大新曙光이라可謂ᄒᆞᆯ지니諸氏는果然責任이重大ᄒᆞ도다勿論多年敎育界에經驗이多ᄒᆞ고硏究가多ᄒᆞ고素養이多ᄒᆞᆫ지나果然如何ᄒᆞᆫ事項을調査ᄒᆞ며如何ᄒᆞᆫ意見을陳述ᄒᆞ야如何ᄒᆞᆫ效果를生케ᄒᆞᆯ가其範圍와目的과實施如何는當局에在ᄒᆞ고諸氏가左右ᄒᆞᆯ權限이無ᄒᆞᆯ지나旣히朝鮮人敎育에朝鮮人을採用ᄒᆞ야調査케ᄒᆞᆷ은[illegible]目을括ᄒᆞ고良好ᄒᆞᆫ成績의現出ᄒᆞᆷ을待ᄒᆞ거니와平素의希望ᄒᆞ던바를左에列擧ᄒᆞ야參考에供코자ᄒᆞ노라

一、師範學校의獨立　此는獨立이라ᄒᆞᆷ보다寧히復活이라ᄒᆞᆷ이可ᄒᆞᆯ지니師範敎育은全國敎育의最高最重ᄒᆞᆫ者이라卽敎育者를敎育ᄒᆞᄂᆞᆫ處이니一國의敎育을完全實施코자ᄒᆞ면先히師範敎育을完全히實施치안이ᄒᆞ면不可ᄒᆞᆯ지라少ᄒᆞ야도二千萬民族을包容ᄒᆞᆫ此地에幾個師範學校가有ᄒᆞᆯ지나도滿足키難ᄒᆞ거던一個도完全獨立ᄒᆞᆫ者無ᄒᆞ고普通學校에附屬케ᄒᆞᆫ高等普通學校訓導養成所나마體裁로見ᄒᆞ던지何方面으로見ᄒᆞ던지萬々不適ᄒᆞᆫ者인즉此를改良ᄒᆞ야完全獨立케ᄒᆞ야普通學校에限ᄒᆞ지말고中等以上敎員을養ᄒᆞ게ᄒᆞ지오

二、外國語學校設立　我朝鮮人은半島三千里彊域에만生活ᄒᆞ고外國人과交涉ᄒᆞᆯ資格이無ᄒᆞᆫ즉現今事情은必要치안타ᄒᆞ야不許ᄒᆞᆯ지不知ᄒᆞ나外國은政治에不關ᄒᆞ고도學術上其他業務上必要不可缺ᄒᆞᆫ者이라朝鮮人을敎育치안이ᄒᆞ면已어니와敎育을奬勵ᄒᆞ고向上的生活을ᄒᆞ게ᄒᆞ라면現今에는外國語를敎치안이치못ᄒᆞᆯ지오

三、은普通學校에서日本語로敎授ᄒᆞᆷ을廢止ᄒᆞᆯ事　此는少思ᄒᆞ면排日的思想이有ᄒᆞᆫ者로思ᄒᆞ기쉽ᄒᆞ나敎育問題와政治問題는別個問題이라日本에往ᄒᆞ야日本人의思想을被ᄒᆞᆫ[illegible]此를廢止ᄒᆞᆷ이可ᄒᆞ고

四、大學의設立　此의必要는說明을不待ᄒᆞᆷ

五、官私立待遇의差別撤廢　勿論表面으로見ᄒᆞ면何等差別이無ᄒᆞᆷ과如ᄒᆞ나實際는不然ᄒᆞ니例如日本人의敎育을受ᄒᆞ얏슴[illegible]親日人이有ᄒᆞᆫ즉此는論ᄒᆞᆫ바아니라現今各學校의敎授狀況을見ᄒᆞ건ᄃᆡ時間의配當에日本語가多數를占ᄒᆞᆷ은不管ᄒᆞ라言語를通치못ᄒᆞᄂᆞᆫ學生이其學課의眞理를解ᄒᆞ기는고사ᄒᆞ고說明ᄒᆞᄂᆞᆫ바를聽치못ᄒᆞ니此는魚를得코져ᄒᆞ다가筌을棄ᄒᆞ고牛의角을正코저ᄒᆞ다가牛를殺ᄒᆞᆷ과如ᄒᆞ도다現今朝鮮에서完全ᄒᆞᆫ敎育效果를見코져ᄒᆞᆷ　私立中等學校卒業의專門學校入學ᄒᆞᆷ과其他收用上區別이有ᄒᆞᆷ이是ㅣ라

六、普通學校敎科書를朝鮮語로編成ᄒᆞᆯ事　此理由는上의三項과如ᄒᆞᆷ

右外에도必要ᄒᆞᆫ者ㅣ多ᄒᆞᆯ지나玆에는重要ᄒᆞᆫ者만擧ᄒᆞᆷ이니要컨ᄃᆡ朝鮮의敎育은朝鮮人을中心으로ᄒᆞ고現代政治的拘束에限ᄒᆞᆫ者ㅣ안이오世界思潮와時代順應에適切ᄒᆞᆫ方針을用ᄒᆞᆷ을望ᄒᆞ노라

朝鮮의新敎育計畫

朝鮮總督府來年度豫算에計上ᄒᆞᆫ敎育費는約七百萬圓으로其內新規施設의主로ᄒᆞᆫ것은京城에新設ᄒᆞᆯ二十萬圓의豫算으로써高等學校一校를設置ᄒᆞᆷ과同時에師範學校를創立ᄒᆞ고元山大邱의兩地에中學校新義州及京城에高等普通校를各一校式增設ᄒᆞ고更히設立地는未定이얏스나甲種程度의農林學校를新設ᄒᆞ고農林學校以外에는旣히數個買收도了ᄒᆞ야來年四月에開校預定인ᄃᆡ預算確定ᄒᆞᆫ次第되로各其職員의任命을發布ᄒᆞᆯ터이오生徒의募集에着手ᄒᆞᆯ터인ᄃᆡ前記京城에創立ᄒᆞᆯ師範學校는現在京城中學校及京城高等普通學校에附屬ᄒᆞᆫ[illegible]兩敎員養成所를合倂ᄒᆞᆷ과同時에本科及豫科를置ᄒᆞ고日本에在ᄒᆞᆫ師範學校와同一ᄒᆞ야[illegible]高等普通學校卒業生을本科에는高等小學校卒業生을收容ᄒᆞ야將來小學程度의敎育에從事ᄒᆞᆯ日鮮人敎員을養成ᄒᆞᆯ터인ᄃᆡ尙히昨今問題되는京城醫學專門學校의昇格에關ᄒᆞ야는大正十一年에實現ᄒᆞᆯ것갓치傳ᄒᆞ나同校의昇格에就ᄒᆞ야는아즉何等具體的決定을見치못ᄒᆞ얏는ᄃᆡ若醫學專門學校의昇格이實現되면現在同等地位에在ᄒᆞᆫ京城工專　京城專修　水原農林諸學校도昇格을希望ᄒᆞᆯ것은明白ᄒᆞᆫ지라全部를昇格ᄒᆞ야組合大學制로採用ᄒᆞᆷ도現在와如히豫科에相當ᄒᆞᆫ學校가存在치안이ᄒᆞᆫ지라漸々本年度에京城에一高等學校가新設될터인狀況의下에在ᄒᆞ야此收容ᄒᆞᆯ學生을如何히得ᄒᆞᆯ가要컨ᄃᆡ高等普通學校의普及이先決ᄒᆞᆯ問題오學昇格問題와如ᄒᆞᆫ것은朝鮮敎育令改正審議機關되는朝鮮敎育調査委員會의調査審議로부터決定ᄒᆞᆷ을要ᄒᆞᆯ것인즉十一年度에昇格의實現을見ᄒᆞᆯ것은아즉不容이라ᄒᆞ며聞ᄒᆞᆫ바에依ᄒᆞ면全鮮各道에서中等以上諸學校의分布狀態로見ᄒᆞ면來年度브터一校도설치안이ᄒᆞᆫ곳은全南慶北의二道뿐이라全南에는目下私立高等普通學校가有ᄒᆞᆫ바同校를近々官立으로變更될터이라來年度의官立新學校는大體以上과如ᄒᆞ고此外明年度에는京城府公立商業學校의新設을見ᄒᆞᆯ豫定으로目下審議中이며[illegible]

泰西奇聞

結婚慾이가장强ᄒᆞᆫ때는어느때?

라하드、콤베르에서發行ᄒᆞᄂᆞᆫ勞働市通信은次와如ᄒᆞᆫ것이記載되엿더라

獨逸에서는出生數만안이라結婚慾도年々이退步되ᄂᆞᆫ것은統計表가確實ᄒᆞ게明示ᄒᆞᄂᆞᆫ바인ᄃᆡ此現象의原因은各樣으로說明ᄒᆞᆫ다

社會生活의硏究者들은生活法이一體로高價인것과및稅金耗費等의高率이家庭의形成을困難ᄒᆞ게만든다ᄒᆞ며[illegible]婦人의勞働力이더욱增大ᄒᆞ게되며男性의職業的希望이甚히不好ᄒᆞ게되엿다[illegible]

千九百二年에는婦人의結婚年齡이二十三歲로부터乃至二十四歲이러니千九百十年에는二十二歲로부터二十三歲의年齡이가장만케되엿다勿論그런適에도年老者의結婚이年小者보다그比例가甚히增加되엿더라(다음에는結婚ᄒᆞᆫ總數의人間年齡에對ᄒᆞᆫ統計가잇다)男子는三十歲로부터三十五歲々지의結婚數가미우增加되엿거는婦人은些少ᄒᆞᆫ增加를示ᄒᆞᆷ엔이고一部分은도로혀減少를示ᄒᆞᆫ도것은注意ᄒᆞᆯ만ᄒᆞᆫ現象이다故로三十歲를지닌婦人들은발서맛다운結婚ᄒᆞᆯ希望이조금도업다

우리의急先務

在江戶　辛泰嶽

一、첫말

飢者에易爲食이오　渴者에易爲飮이라　ᄒᆞᆷ은엇지窮々ᄒᆞᆫ　우리社會에　무엇이急務며　무엇이後務이겟슴잇가ㅣ마ᄂᆞᆫ急務中에도急務ㅣ卽急先務　이것을가리어　先은先　後는後　그리서着々進行ᄒᆞᆷ이　社會啓發上順序이고　安定을保ᄒᆞᄂᆞᆫ良策일가ᄒᆞ웁시다이것이나의擧筆ᄒᆞᆫ動機의本旨이올시다　只今도말ᄒᆞ얏ᄂᆞᆫ집과　手足업는病身들이쇼　너무쏫々ᄒᆞ오　마치러(甚)모혀서　먹을니야기ᄂᆞᆫ지々괴고거니와참우리社會ᄂᆞᆫ　너무뷔엿잇는것갓심니다이럿케말ᄒᆞ면過言이아닐던지ㅣ그러나事實인것을엇지ᄒᆞᆯ잇가ㅣ蔽一言ᄒᆞ고只今이病身當者의地位에서生覺ᄒᆞᆯ써는　엇더케ᄒᆞ던지　爲先自己의居住할집을마련ᄒᆞᄂᆞᆫ것이急先務이겟지오　그러나第三者의見地로는　그病身들의게쎄르니治療ᄒᆞ라　그리면萬事가解決되리라。勸ᄒᆞ리라　나는只今이問題에對ᄒᆞ야第三者의地位에서客觀的으로論ᄒᆞ려합니다。

二、늙은靑年의頭腦를부시자!

참　우리靑年들은늙엇소　참어도너무늙엇소　泰山以北海라도할　血氣잇는靑年들이[illegible]

[illegible]

四、實業을奬勵ᄒᆞ라

[illegible]

三、敎育을根本的으로改善ᄒᆞ라

엇던社會　엇던民族ᄒᆞᆯ것업시　그文明의向上은　敎育與否에正比된다ᄒᆞᆷ은再論ᄒᆞᆯ必要도업거니와　따라서우리의늙은靑年의頭腦를떠려부심에도敎育의方便으로안이ᄒᆞᆯ수업슴은事實이겟슴니다　距이럿케늙고腐敗ᄒᆞᆫ靑年을모다新思想　新風潮를吸入식힐에는　全혀敎育의힘을비러야되겟슴니다　따라서敎育者의　責任이重ᄒᆞᆷ도推測ᄒᆞ겟심니다　다시말ᄒᆞ면늙은靑年의頭腦를부심에는　그부실그사름브터　늙은사람이안이어야ᄒᆞ겟심니다　그런데보라!우리社會에敎育者다운敎育者가몃분이나잇는가ㅣ이러한論法으로進ᄒᆞᆯ것갓ᄒᆞ면　우리의急先務는敎育者養成에잇ᄂᆞᆫ듯ᄒᆞ다　그러나다시나는現在의敎育者라도各々自己의責任을自覺ᄒᆞ고　그道德的品格을　知識修養ᄒᆞ야써　被敎育者를知識으로보다品格으로感化케ᄒᆞ라고提言ᄒᆞ려ᄒᆞᆷ니다

左右間우리의敎育이　한참寒心한일이올시다　日本人이經營ᄒᆞᄂᆞᆫ學校에서ᄂᆞᆫ日本本位　西洋人이經營ᄒᆞᄂᆞᆫ學校에서ᄂᆞᆫ西洋本位　이러한現狀에잇서々　實로朝鮮的敎育　現實的敎育은업슴니다　이럿코야　엇지저늙은靑年의頭腦를씨스겟ᄂᆞᆫ가ㅣ萬若이러한現狀으로　그냥그頭腦에新風潮新思想을吸收ᄒᆞ엿다ᄒᆞ면　그것은實로浮雲과갓ᄒᆞ야　畵虎不成類犬라ᄂᆞᆫ徒勞에歸ᄒᆞ고말것[illegible]

五、結論

[illegible]

元朝有感

太田　宋錫祚

[illegible]

新年에立ᄒᆞ야 ᄃᆞᆫ人兄의게

曉野生

[illegible]

滑稽的

△泰西의女子觀

○女子는束縛約束한男子는다自己所有物로思ᄒᆞ나니라(스탓본)

[illegible]

賀

京城府昌信洞一四二番地　安衡植

水原郡龍珠寺　住持 姜大蓮　財務 金晶海

京城府貫鐵洞二七番地　金光商會　主 金顯洙　細工部主務 李永泰

京城府壽松洞六六　清進旅館　主 金正元

京城府蓮井洞六一　韓永錫

京城府鍾路二丁目　貿易商　金熙俊商店

京城府樂園洞一九八番地　最新式流行洋靴及經濟靴并附屬品一式　昌信洋靴店　主 李在薰

京城府鍾路二丁目百壹番地　金銀細工并新案眞鍮佩物精美製造品　裕昌商會　主 金載德

京城鍾路二丁目一番地　東西洋各綢緞布木都賣商　鍾路本新房　電話一七一八番　斗鉉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百九番地　綢緞布木毛物貿易　商廣昌商會　主 趙□用　電話一五壹壹番

賀

京城蓬萊町一丁目四番地　中央信託株式會社　長電話一〇五三番

京城府明治町一七六　石炭商　滿留屋商會　長電話壹壹〇壹番

仁川本町一丁目　仁川出張所　長電話五〇番

京城府鐘閣洞六一番地　各種洋品雜貨メリヤス製造業　模範洋品商會　主 秦範植

京城府授恩洞團成社　主任辯士　徐相昊

京城府鍾路通二丁目七四　優美館側　東洋齒術院　主 太錫均

京城長沙洞八三　東洋染織株式會社　電話三一八番 三一二番

京城府淸進洞一九六　紬緞布木商　金永璿商會

京城府公平洞六十五番地　東一鞋店　金永根

京城府鍾路二丁目八二番地　英米式　洋服商會　主 朴漢景

京城禮智洞一八三　葉烟草海産物　貿易商　申鈗

賀

京城府昌信洞六五一　趙秉澤

京城府長谷川町十番地　金正穆

京城長橋町四九番　昌東醫院　醫師 蔡永鎬

京城府樂園洞一三三　崇神人組合一同

京城南米倉町拾參　海陸物産委託販賣　信成商會　主 金炳實　電話一四八八番

株式會社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京城府鍾路通一丁目十三　東洋興產株式會社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五〇　歐米新式流行靴經濟靴并附屬品一式甲皮　義成洋靴店

賀

京城淸進洞　株式會社大同券番　電話一三七一番

한강어름우에서숭어잡는모양

短編小說

可憐兒

朴舞泉

범서에칠ᄉ에 길々히차히도록 온눈이 ᄇ노히녹지도안코 도로혀 굿어지게만 ᄒᄂ 몹시 치운ᄋ츔인데 엔칠이ᄂ를읍못 떠엿ᄂ지 쇼의구들(溫突)이라 고어름장들만싸힌 빙고(氷庫) 보다 별로히 나흘것이업ᄂ방 에서 여덟살이 될지말지ᄒᆫ 어린아이아희가 잠들엇여 눈 뜨엿다。이소년이 입은옷은 무슨빗갈인지 분별ᄒ수도업시 떡기울나 몹시더럽고 솜은그 림자도빗최여보지못ᄒᆫ것인데 어린놈에 사청업시 음습ᄒᄂ 치운을 그옷으로 막으려ᄒ며 덜々々썰고잇다。 치위ᄂ 그 여간ᄒᆫ것이 ᄋ니엿슴으로 그 의입에서 호흡ᄒᄂ되로 나오 ᄂ입김은 그되로어려서 허엿 케되여진다。 쇼년은그여나서 방안을휘둘너보고 누엇던 자리에주저안저서 약ᄒᆫ입김 으로 손ᄉ人을 호々부럿다。 그러나여러날이나 굴멋슴으로 입에서나오ᄂ 운김도 그다 지시원치못ᄒ얏다。쇼년은다시 쇼모작도ᄋ니ᄒ고 눈을꾹ㅡ 감고 누어잇ᄂ 저의어머니를 그윽히드려다보며 혼자말로 『우리어머니ᄂ 왜 병이나서 서ㅡ』ᄒ고ᄂ마즈막말을 치우 지도못ᄒ며눈에난 곳눈물이 어리여지며진주알갓치 빗치ᄂ 다。

⊠ ⊠

그의어머니ᄂ 엇던먼곳에서 이쇼년을다리고 이사ᄒ여 오 던돈부터 그되로병이나서 조 부의곰으로 사고무친ᄒᆫ 낫선 곳에와서 어린오들ᄒᆫ아만 의 지ᄒ고잇스니 엇지그의병이ᄎ 분히 요양ᄒ수가잇스랴。 그 어머니ᄂ병석에서 다만 옥남 아 니가리잇은 일어나서 박 으안에갓다오기만ᄒ면 국쇼리 고밥히준ᄃ 용ㅡ그리고네옷도 다시가려입혀쥬마용ㅡ너의으 버지만게셧드면』ᄒ며년々로그 어린ᄋ희의보치ᄂ것을 위로ᄒ 야주엇다。 그러나이날ᄋ침에ᄂ 잡이곤히들엇던지 옥남이가 일어ᄂ것도 모르고 빈듬 ᄒ

눈물지ᄂ것도 몰낫다。 옥남 니ᄂ 병석의어머니ᄂ 그와갓 치 누어잇ᄂ것을 참으ᄃ여일 어나게 ᄒ슈가업서 저의어머 니의게ᄂ 오모말로 못ᄒ고잇 ᄂ동안에 어느덧 그날의히ᄂ 다가고 캄々ᄒ여지ᄂ 저녁 이되얏다。 옥남이ᄂ스사로 비창ᄒᆫ것을 익이지못ᄒᄂ츔에 풀ᄋ 커려ᄒ아도 뜻과갓치 되 지못ᄒ엿다。 옥남이ᄂ 엇치할 수업시 어머니얼골에저의쩨암 을갓다한데되엿다。아ㅡ이것이 웬일인가ㅡ 어머니의얼골은 그보드럽던것이 다어되로가고 번々ᄒ고도 담벼락갓치 차 되차게 얼어잇섯다。

⊠ ⊠ ⊠

무엇이 엇더ᄒᆫ것인지 잘분별을 즐모르ᄂ 옥남이ᄂ 스사로혀 우리기를『몹시치워서 이러시 구나』ᄒ편이 고무슨생각이들엇 던지벌덕일어나서 곱은손을 호々불며 거진다히여진 모ᄌ 를쓰고 밧겻ᄒ로 나갓다。 옥남이ᄂ 저의집에 서ᄂ와 진 골목 을 지나 큰길 거리 에 나섯다『ᄋㅡ이것이무슨동리인 가 이상도ᄒ다』ᄒ고 옥남이 ᄂ 어릿々々ᄒ게되엿다 이ᄋ 히ᄂ시골서살다가 쳐음와서그 리ᄉ던지 그와갓치 이상ᄒ게 역이도록된동리ᄂ 쳐음보왓다 옥남이가 젼에살던곳은 사롬 들이만히 살기ᄂ살엇다 그러 나 그동리의길은 도무지 비 구경을못ᄒ얏던지 쓰레기통은 그되로 얼음너노흔것갓치 어 지럽고 들어운층에 집웅ᄒᆫ아 케되로번듯ᄒ게 이여ᄂ집이업 시 집웅은모다 꿀창이지고엇 던집은 겨우석가리만남은데다 가 거적으로둘은집이만헛다 그리고 집들이다닥다닥붓허서 꿀복이진흙에도 몹시우즁츙ᄒ 고컴々ᄒ엿다 밤에나서면 동 ᄂ 집의가동ᄒ나뿐이고 그외에ᄂ 불이라고ᄂ 그리옷에잇ᄂ솔 홍빗을 더구경ᄒ수업ᄂ 빈민 굴이고공연히기(犬)만 만히잇 서서 저녁이면 긔짓ᄂ쇼리 여간승구한곳이안이엿ᄃ 그러 나 그동리에서ᄂ 옥남이를 귀여워ᄒᄂ사롬이 만히잇서 먹을것도쥬고 여러가지로 돌 라보ᄋ쥬ᄂ 신세를만히입엇다

⊠ ⊠ ⊠

그런데 이제어동리셔ᄂ 누 가 먹을것을 쥬기커녕은 ᄒᆫ 번보ᄂ사롬도 업섯다 그런되 한곳에나선 옥남이ᄂ 밥이밥 갓지안케 밝고환ㅡᄒᆫ것에 황 홀ᄒ게되지안이ᄒ슈업섯다뎐차 자동차 마차 인력거들이 ᄭᆺ人 칠서업시 지나다니ᄂ것을 보 앗다 참보기에 재미스러웟스 나 그러나 벌서사흘이 지나도 록굶고 먹을것을 구경못ᄒ ᄂ옥남이ᄂ 쇼구루만치가 아 모것도 실치안코 집으로도라 가ᄂ것인지 원천지 사람의게 끌려가ᄂ되 그쇼가 머리를 ᄯᄋ 에다숙이고 입김 푸々너 며 길바닥 눈을 커닷케 자 국이나도록 녹여헛치며 무엇 인지먹을것을 차지며 가장피 곤ᄒᆫ듯이 어정々々 거러가ᄂ 쇼의모양을 보앗다 옥남이ᄂ 『쇼도 저녀석니가 비가곱자 저리나보다ㅡ』ᄒ고 헤우릴써 에손이시리고 곱다못ᄒ야 압 흐게되여 눈물이저절로 나게 되ᄂ되 동뒤에서 별안간에 『ᄯᅡ그』ᄒᄂ 쇼리가나며 옥남 이ᄂ 깜작놀니ᄂ되『압ᄉ압ᄂ 우人ᄂ 쇼리가들인다 옥남 ᄂ 뒤를도라보니 ᄋㅡ찬란ᄒ 고 화려ᄒᆫ게 명익빔의시옷을 입은 ᄋ희들이 열으문이나

時間은金또가

다음에記載ᄒᆫ米國엇던專門雜誌의設計ᄒᆫ 間割은家庭에가장適ᄒ다何故냐ᄒ면이러케ᄒᆫ것이ᄒ면時間이節約되고엇ᄒᆫᄂ時間에起ᄒᆫᄂ여러가지妨害를防止ᄒᆫ수가잇ᄂ外라이다故로吾人은斯와如ᄒᆫ時間割을만들어귀치안은訪問客을處置、시기를江湖諸位에게推薦ᄒ나이다

時間割

(잠보이ᄂ되견ᄃ마시오)

나ᄂ下記ᄒᆫ諸氏의對ᄒ야次記ᄒᆫ時間을드리나이다

時分秒

私用訪問客............二○

私用訪問客(무슨일잇슴닛가)............二

自働午酪製造機의賣人............一

生命保險勸誘員............一

朝飯에招待밧은友人............一二三

五馬克借用ᄒ라ᄂ이............一

十馬克借用ᄒ라ᄂ이............一

百馬克借用ᄒ라ᄂ이............

돈갑흐라ᄂ이............無制限 五

事業을ᄒ라ᄂ이............歡迎

(出獨逸雜誌)

모혀서잇슴을보고ㅡ 옥남이ᄂ 『아ㅡ저런아희들은 엇더케저 런옷을입엇나ㅡ』ᄒ고 놀ᄂ ᄉ人헤보ᄋ、엿다

⊠ ⊠ ⊠

그런ᄃ 그아희들은 옥남이를 향ᄒ야보며 모다일제히 묘쇼 (嘲笑)ᄒ며 그즁의ᄒ 음직ᄒᆫ ᄋ희가압헤ᄉ서 한손에ᄂ쌘큰 거ᄒ츙을들고서 바른손에ᄂ 화 승불을들고서 옥남 다려 『너 이자식 왜여기섯니 우ᄂ들이 잇ᄂ데ᄂ 너갓흔 거지자식을 안붓친다......너 ᄂ더런운자식이다 저리가거 라』 옥남이ᄂ 돌연히 얼골이빠른 기지 며아모말도 못ᄒ고 그저서서 그말ᄒ던 ᄋ희의얼골을 그옥이 커다만보고잇다 그말ᄒ던ᄋ희 ᄂ 다시한발거름을 떠나서며 『이자식이 왜남의얼골만 커 다보고섯거......이놈ᄋ 니얼골ᄋ 동무人엇니ㅡ』 ᄒ고ᄂ 바른손에들엇던 화승 火繩을 뎍충쥬인손에 한데 모ᄂ쥐며 바른손은 단々히다 쳐고며 옥남이에게 『너의주먹맛좀보련ㅡ 이자식 ᄋ』 ᄒ더니 다시동모아희들을보고 『우리의게 명절날이라고 오 조조흔자난거리가 성것다ㅣ악 가 함동ᄉ진불을져여 사형집ᄒ (死刑執行)어라ᄂ것을 보앗지 우리노 저놈의 거사형된고 (育竹)를 너며자』 ᄋ노말이 못나니와 그여ᄯ 희롱은 모다손바닥을치며 조 라고 크게찬성ᄒ다 옥남이ᄂ 긔가막혀 보망ᄒ려고ᄒ엿다그 러나 곳붓잡혓나 옥남이ᄂ갑 작이 어머니성각이나며 그딘 도을엿다 그런ᄯ뒤에서 별안 간에 옥남이의모자를 ᄯ벗겨 바린다 옥남이ᄂ ᄯ도라다보ᄋ 니까 모자를벗겨서 멀니ᄯ칫긔 나 하침ᄉᄂ 조고 엇던것이 의희가 그모자를 ᄲᆞ에다ᄭ코 징만히ᄒᆫ 서신으로 한부ᄅ 비々고옥기여버린다 옥남이ᄂ 설움이북밧쳐 쏘다지ᄂ눈물을 연밧언손으로씨서가며 마욱긔 여진모자를드려다보며 번번히 ᄂ닉것인줄알면서도 챗지못ᄒ 게되ᄂ것이분ᄒ기한량업섯다그 러나 한거롬을더나가 사형업 고ᄉ지밧을성각ᄒ하면 완롬ᄂ열 니고 엇지할줄을몰낫다 그린 서나종에ᄂ 작고어머니만부르 며 통곡ᄒ엿다

⊠ ⊠

옥남이ᄂ 눈에수건을가리우고 나무와한가지 업너서 결박을 당ᄒ스다 옥남이ᄂ 그저분홍 만머음고 설마죽이라ᄒᆫᄂ싱각 은업지아니ᄒ얏다 웨그런고ᄒ 니 그ᄋ희들이 별ᄂ노롬을ᄒ ᄂ라고 ᄯ충을만히 사가지고 잇섯슴으로 처음놀니ᄂ못런여갓 치 그런케ᄯ충을쏘아 사형집 힝이라고할줄을알엇다 파연그 리회人다 옥남이의헤ᄂ、쌔른 다 ᄀ뎍충에터짐이 그득ᄒ게차혓 의얼골을가리운수건은 면ᄒ게 오히려쇼々치지아니ᄒ고 옥남 저첫나 이리ᄒ야 한편은미우 지미스럽고 그와반디로한편은 몸시비참한운명의저주를 밧ᄂ 데 맛침지나가던 한로인이와 서 그아희들을 모다헛처보ᄂ 며 옥남이를불너주고 십천짜 리은전ᄒ푼을주며 『너 공연히 여기잇지말고무엇이던지 가서 사먹어라』ᄒ며 로인은다시악 가그악쇼년들을아이ㅡ 고현녀 석둘ㅡ 흥짓이업기로 거지녀 석을 다괴롭게구ᄂ구ㅡ 이쇠 모녀석들이고ㅡ』ᄒ며자긔가 던길을계속ᄒ야갓다 그로인은 참으로 옥남이의게 은인(恩人)이고 구쥬(救主)이엿다

⊠ ⊠

옥남이ᄂ 돈십전을 손에들고 싱각ᄒ고울며 부르던 어머니 의게 『이돈을갓다드리라』ᄒ고 얼 ᄂ뒤여가려ᄒ얏스나 도무지다 롬박질ᄒ긔운이업셧다 그리셔 천々히가느라니 악가을쳐보다 엇천일로더멀고 그길도ᄋ니인 것갓다 옥남이ᄂ 커옹나온길임으로얼 ᄯ른ᄒ야 거름걸니ᄂ디로 작 고가낫가 악가괴롭ᄒ굴던그악 쇼년들이 저편모통이에서 ᄭ 희쉬리무엇、리고 ᄯ들고잇슴 을보고 얼는몸을기기위ᄒ야 큰기와집모퉁이로들어스며 나 무동걸한ᄋ가 노여잇슴을보고 거긔안저서 『이제는모일업겟 다』하고 긴한숨한번을쉬엿가 그디로마음이노혀지며 심신이 가장온ᄒ게되얏다 옥남이ᄂ 손모시리지안코 발모안이압혓 다 ᄯ그러게칩던것이 다어되 도사려지고 엇진일인지 몸을 햇人듯ᄒ게ᄲ한 부자집안방ᄋ 련목갓흔데 편안이잇ᄂ것갓힌 다

⊠ ⊠

이ᄯ에옥남어ᄂ 긔운이서로허 나ᄂ것갓ᄒ며 서로운용긔가난 다ㅡ오냐이ᄯᄂ 조흠만며쉬고악 가그녀석들에게가서 밤늑빗고 어머니께도 어서가뵈여야ᄒ겟 다ᄂᄒ고 안젓던사리에서 일어 나며 스사로 깃버ᄒ야 한번우 스고 흑몸은것을털내고 옷 너려다보니 ᄋ々리상ᄒ다 약 가그아희들이입엇던옷보다로 떠회러 고찬란ᄒ ᄯ 빗압헤도 여러가지작란감이 만코 비단갓 처회ᄂ 비돌기ᄒ쌍 옥남의머리 와어기ᄃ을나갓다 너려갓다ᄒ 며 옥남이의게 깃들드련다 『ᄋㅡ이쇼년은 ᄋ조흔복스러워 졋다 그런데 ᄯ우혜서가장연 ᄉᄒ고 ᄋ름다온목소리로 가 만히 『옥남ᄋㅡ 너가여긔잇다...너 보니리로올나오나라』 ᄒᄂ쇼리가나ᄂ쌔에 옥남이ᄂ 눈이동그러지며 입을버리 고우스며『ᄋㅡ 어머니ㅡ』ᄒ고 위를쳐어다보며 두손을버릴녀 에 별서광명ᄒ고모 에다다랏다 거긔ᄂ향긔로운꼿 롬다온ᄉ당이잇고 ᄒ흥ᄂ ᄒ게ᄂ 음악소리 모ᄂ곳에조 ᄯ조흠잇며니 옥남이갓흔 만々ᄒᆫ 남녀ᄋ희들이 비단 옷ᄉ일제히입고 ᄯ쇠리갓치노 리를부르며 옥남이를다려가 한가온ᄃ세ᄂ고 손에손목을잡 ᄂ뭇놓고 춤추며노리ᄒ고 나종에는 모든옥남의게 차 례々로입을맛추고 둥々두다 려쥬ᄂ되 어머니ᄂ그모양을나 려다보며 평화ᄒᆫ안면에ᄂ 미 소를ᄯ우고 엇더ᄒᆫ奐당ᄒᆫ 옥남이ᄂ 깃봄의의쟈못 『오々 니안희ㅡ니아들ㅡ』 ᄒ고 ᄃ귀갓ᄒᆫ집으로드려가는 옥남이ᄂ잠시로입ᄒ담으리지못 ᄒ야 고우스며 ᄯ뒤놀앗다

뻬ᄂ정월초잇흔날ᄋ침인ᄃ 길 가에잇ᄂ 큰기와집엽혜잇ᄂ나 무동걸우혜ᄂ 그동리ᄋ시ᄃ들 어은 구차ᄒ부의아들이 얼 어죽엇슴을 동리사룸이발견 고 그쇼년을ᄃ려다가 저의어 머니의게 ᄎ희주려ᄒ얏더니 그 니ᄂ얼골은무엇어죽엇ᄂᄃ 어머 흠이보히며 쇼년의얼골ᄂ 늣깃 분빗이가득ᄒ고 우슴을ᄯ엿다 라(哭)

一九二○、一二、二九

〔새희〕

大亭生

○東녁하날에 어둠을ᄯ르고
소루루 오르는 뎌曙神아
픅신픅신ᄒᆫ 햇빗ᄒᆫ비품속에
반가운辛酉의해!는안키엿구나

○曙神의계안킨 辛酉의해야
새生命紋는 봄옷ㅡ을 감엇구나
自由의玉으로 꿈인樣冠ㅡ을
쎄스구나
平和의ᄯᆺ듯ᄒᆫ 빗발ㅡ퍼는

○눈이짓롭너 기두르든 그닭이
여긔曙神의게 안커곰게왓구나
어서어서 마커라 노리하라
곡고요ㅡ곡고요ㅡ곡고요ㅡ

닭에對ᄒᆫ童謠

닭ᄋ닭아우지마라 비가오면날이서고 날이서면 희가ᄯ 날이서나희가々나 그것일것업지만은 우리父母늙고보면 머리털이희여진다

이것은우리朝鮮兒童의通常ᄒ는노리인ᄃ天然的으로父母에게對ᄒᆫ孝를表現ᄒᆫ것이라自來로倫理上道德이他民族보다特殊이發達ᄒᆫ것은實로誇ᄒ바이라ᄒ노라

敬

京城府??町一丁目八八
博文書舘
主 ???

京城府鍾路一丁目三九番地
淸進鞋商
主 洪??

釋王寺布敎堂
康道峰

京城府樂園洞一四○番地
普春醫院
醫士 金永勳

京城府鍾路四丁目一六○
布木商 崔仁成
電話一七八八番
振替京城七八九番

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布木商 崔潤錫商店
主 崔潤錫

京城仁寺洞百八十八番地
朝鮮佛敎靑年會

京城黃金町二丁目十八
朝鮮料理 唯一舘
主 韓圭植
電話三三三九番

京城府授恩洞八十二番地
執中堂
醫生 李冕九

京城授恩洞?貳五番地
贊化醫院
洪在峰

京城臥龍洞七十貳番地
共信堂 金裕兢

京城府貫鐵洞一四九
滿洲實業株式會社
電話五四二

京城鍾路(元目木廛)
內外國紬緞 毛織布木等 細苧布木 綿類販賣
商 金潤冕商店
電話九三七番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百五
綢緞紬布毛物貿易商
廣澤商會
主 許澤
電話長一三○五番

京城府武橋町十三番地
和洋皮革貿易商
海信皮革店
主 李海承
電話長三○九三番
振替京城三八六九番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百十一番地
各種綢緞 洋屬繡子 布木直輸入貿易商
柳在明
電話長六四一番
振替京城一五○八番

京城府仁寺洞三六
入院隨意
尹治衡外科病院

謹賀新年
天道敎會中央總部
電話千百四番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十七番地
綢緞布木商
閔弘植
電話壹參八?番
振替京城七○五番

京城府和泉町八十六番地
染料製造業
東亞洋行

京城公平洞八八番地
金銀細工 裝佩物商
金運商店

京城府??洞
都屋商店
主 洪??

京城府??町二○六ノ一
金憲經

京城府鍾路通四丁目六三
高麗製革所製靴店
主 劉?路 金孝植

京城蓬萊町一丁目八八
五房在家新舊雜貨具備
主 朴友植

新

廣州郡奉恩寺
金尙淑
外一同

京城府??洞九五
廣生堂藥房
主 全亨默

京城府貫鐵洞??番地
信興號
電話一三八七番

京城府樂園洞一五五番地
東西醫學硏究會
慈生醫院
電話一五六八番

京城府鍾路四丁目七番地
京城商店
主 金斗興
電話一七○一番

春

恭賀新年

世界平和를告ᄒᆞᆫ後第二年의新春을迎ᄒᆞ게되얏나이다我半島의同胞兄弟姊妹와갓치이元朝의屠蘇盃로써平和의曙光을睹ᄒᆞᆯ가ᄒᆞ나이다그러나世界의平和도眞正ᄒᆞᆫ平和를得코저ᄒᆞ면力의問題가解決되여야하나니一社會와一個人도亦然하야力의問題를忘却하면아니되나니卽實力도力이오富力도力이오生殖力도力이오滋養力도力이아님은아니로되此一切의力問題를잘攝取하야잘消化하랴면個人健康을保하여야되고社會도健康을保하여야되나니此大力丸이個人과社會의健康保障上萬一의貢獻이有할가自信하는바이로소이다或者僉君子의留意ᄒᆞ심을得ᄒᆞ면新年의無上ᄒᆞᆫ幸福일가하나이다

謹告

店主李敏洪君

壯筋補血 大力丸

人生은춤健康하여야됨니다……

健康의保障은大力丸이외다……

大力丸 痲疾丸 製造本舖 洪濟堂藥房

京城府西小門外四掛里

主治效能

○壯筋補血 ○夜夢遺洩 ○先天不足 ○精神困倦 ○[illegible]經衰弱

○氣虛血枯 ○飮食不化 ○腎氣不足 ○面黃骨瘦 ○陰虛火動

定價

壹個月分	四圓五十錢
貳個月分	八圓五十錢
叁個月分	拾貳圓

電話二六五四番 ● 振替京城四八五六番

朝鮮日報　其三

吾人의 責任

雲菴 李壽俊

吾人의責任은至無限ᄒᆞᆫ거시重大ᄒᆞᆷ니다擴大ᄒᆞ면泰山보담ᄂᆞ더重ᄒᆞᆷ니다地球보담도더大ᄒᆞᆷ니다宇宙間에廣漠ᄒᆞ야他一物을容ᄒᆞᆯ만ᄒᆞᆫ間隙이無ᄒᆞᆷ니다만以筆舌로써表示ᄒᆞ자면充棟汗牛ᄒᆞ야비록五車에라도다싯지못ᄒᆞᆯ만ᄒᆞᆷ니다또ᄂᆞᆫ算板으로써計數ᄒᆞ자면過載稱量ᄒᆞ야비록一年에라도다헤지못ᄒᆞᆯ만큼만ᄒᆞᆷ니다그리ᄒᆞ면吾人의責任이重且大ᄒᆞᆷ은이처럼言을不俟ᄒᆞᆯ지라도而氏들은미리다잘理解ᄒᆞ실줄自信ᄒᆞᆷ니다만은그러나他山之石이可以攻玉ᄒᆞᄂᆞᆫ수도不無ᄒᆞ다ᄂᆞᆫ理由下에셔우리들이맛당히絶對的責任지고ᄒᆞᆯ만ᄒᆞᆫ事業에對ᄒᆞ야其條件의槪略을論述ᄒᆞ야實行上一參考的材料에供ᄒᆞ고자ᄒᆞ노라

一、敎育上責任　敎育上責任은우리一般過渡時代에處ᄒᆞᆫ青年들卽天民의先覺者와先進者로自處ᄒᆞᆯ만ᄒᆞᆫ地位에立ᄒᆞ야此二十世紀新風潮에無限ᄒᆞᆫ感化를밧ᄂᆞᆫ同時에有數ᄒᆞᆫ文明을輸入ᄒᆞ야後覺者와後進者를잘啓發ᄒᆞ며잘指導ᄒᆞ야彼年富力强ᄒᆞ며前途多望ᄒᆞᆫ將來有爲의新靑年에게健全ᄒᆞᆫ精神과高遠ᄒᆞᆫ理想과神聖ᄒᆞᆫ德性과完全ᄒᆞᆫ知識과健康ᄒᆞᆫ體育을養成시켜完全無缺ᄒᆞᆫ第二國民에一分子된絶對義務를雙肩上에負擔ᄒᆞ고前進不已ᄒᆞ야其事必成ᄒᆞ리라ᄂᆞᆫ自覺과誠心으로諸般障礙를打破ᄒᆞ며自己前路를開拓ᄒᆞ야民族과社會와國家를爲ᄒᆞ야貢獻도ᄒᆞ며犧牲도ᄒᆞ야將來一有用ᄒᆞᆫ干城의機關과棟樑의材料를養成시키ᄂᆞᆫ것이우리一般의惟一無二ᄒᆞᆫ最重最大ᄒᆞᆫ責任이라ᄒᆞᆷ니다

二、宗敎上責任　宗敎ᄂᆞᆫ神靈的으로吾人의好善惡々ᄒᆞᄂᆞᆫ德性을涵養ᄒᆞ며博愛及物ᄒᆞᄂᆞᆫ仁心을增發ᄒᆞ야信仰으로써立志의根本을삼으며希望으로써修養의淵源을作ᄒᆞ야高尙ᄒᆞᆫ人格을養成ᄒᆞ며平生의事業을成就ᄒᆞᆫ後에自由의幸福과平等의榮華를永遠으로붓터永遠々지누릴大賜ㅣ신一大福音이되ᄂᆞᆫ것은誰某라도一毫의異議를揷入ᄒᆞᆯ餘地가無ᄒᆞᆷ니다伐採ᄒᆞ樹ᄒᆞ던福되가傳生ᄒᆞ며十字架에달고死刑執行ᄒᆞ던에루살네口城下에惡漢들이甦生ᄒᆞᆯ지라도쏘ᄒᆞ此無所不能ᄒᆞᆫ偉大ᄒᆞᆫ眞理로써萬國萬民의生命의糧食을豊足ᄒᆞ게ᄒᆞ니사ᄒᆞ나님의保護ᄒᆞ시ᄂᆞᆫ손々ᄒᆞᆫ품안에도라와서몸과마음을다맛치고無限히사랑밧ᄂᆞᆫ子息이되아永遠히幸福과榮華를누리ᄂᆞᆫ效果를엇ᄂᆞᆫᄃᆡ對ᄒᆞ야ᄂᆞᆫ그冥頑沒覺ᄒᆞ며殘忍無道ᄒᆞᆫ者들이라도아좃緘口無語ᄒᆞ며眞心感服ᄒᆞᆯ슈밧게업슬줄生覺ᄒᆞᆷ니다그러면우리가宗敎上責任을잘履行ᄒᆞᆯ方針은如何ᄒᆞ면可ᄒᆞ리오ᄂᆞᆫ

우리ᄂᆞᆫ爲先信仰이篤實ᄒᆞ야希望과博愛로써ᄒᆞ나님에게命과律法을잘직혀有名無實ᄒᆞᆫ信者가되지아니ᄒᆞ고言語와實行과成就가온전ᄒᆞ야ᄒᆞ나님뜻에合當ᄒᆞ며使命에違反이되지아니ᄒᆞ도록잘ᄒᆞ엿서眞實ᄒᆞᆫ敎人이되야宗敎의名譽를낫타내ᄂᆞᆫ同時에ᄒᆞ나님께榮光을돌일만ᄒᆞᆫ十字架犧牲의精神을가진完全ᄒᆞᆫ傳道者가되야가지고이우리同胞兄弟姉妹들이黑暗ᄒᆞᆫ天地에셔罪惡中에侵沒ᄒᆞ되야惡魔ᄒᆞᄂᆞᆫ苦楚를當ᄒᆞ야더窮의行動과惡辣ᄒᆞᆫ生活로無限히苦痛ᄒᆞ며恒常哀號ᄒᆞ야東西南北方向을모지못ᄒᆞ고장차魔鬼에巢穴로入ᄒᆞ며罪惡에地獄으로向ᄒᆞᆷ음에우리天賜ᄒᆞ신福音을몬져바든卽先覺이며先進이며能力者며聰明者며警世者이며導民者이될만한健全ᄒᆞᆫ靑年들이秦越相視ᄒᆞ며對岸觀火ᄒᆞ야彼之死ᄂᆞᆫ於何關이리오ᄒᆞ야俗所謂「남죽ᄂᆞᆫ것이ᄂᆡ고뿔만도不如」라ᄂᆞᆫ잔忍無人情沒道德ᄒᆞᆫ俗諺과野卑ᄒᆞᆫ惡風을痛切除去ᄒᆞ기를等閑視ᄒᆞ며例事看過ᄒᆞᆯ뿐만아니라反히堂々ᄒᆞ게標榜ᄒᆞ며模範ᄒᆞ야乘袖傍觀ᄒᆞ며ᄒᆞᄂᆞᆫ말이雖閉戶不救라도可也니第待下回ᄒᆞ야滋味스럽게求景이나ᄒᆞ자고ᄒᆞ다假定ᄒᆞᆯ것갓트면그ᄂᆞᆫ맛치幼兒가匍匐ᄒᆞ야將入井ᄒᆞᆯ지음에胸中으로갑작이쇼사올ᄂᆞᆫ惻隱ᄒᆞᆫ마음으로써救出ᄒᆞ지아니ᄒᆞᆷ은ᄀᆞᆺ혜잇ᄂᆞᆫ長者의不仁이며瞽者가장차懸崖에當到ᄒᆞᆫ것을보고沮止치아니ᄒᆞᆷ은傍觀ᄒᆞ던明眼者의殘忍이며聾者가後方에장차臨迫ᄒᆞᆫ汽笛聲을不聞ᄒᆞ고泰然히 軌條間으로進行ᄒᆞᄂᆞᆫ것을보고引出치아니ᄒᆞᆷ은在傍ᄒᆞᆫ耳聰者의無道ᄒᆞᆫ罪責이라고ᄒᆞᆯ수밧게업다ᄂᆞᆫ것과恰似ᄒᆞ도다現時이와갓치天下萬民들이暗黑ᄒᆞᆫ罪惡가온ᄃᆡ浸溺ᄒᆞ야殘忍ᄒᆞᆫ惡魔의苦楚를當ᄒᆞ고잇거ᄂᆞᆯ우리靑年信者들은ᄒᆞ나님주신福音의眞理와光明ᄒᆞᆫ빗과全能ᄒᆞᆫ權勢와博愛ᄒᆞᄂᆞᆫ德性으로써惡ᄒᆞᆫ者를善으로化케ᄒᆞ며暗黑에在ᄒᆞᆫ者를光明ᄒᆞᆫᄃᆡ로引導ᄒᆞ며懦弱ᄒᆞᆫ者에게ᄂᆞᆫ權勢를주며猜忌ᄒᆞᄂᆞᆫ者에게ᄂᆞᆫ사랑ᄒᆞᄂᆞᆫ마음을부여一般病들고苦ᄒᆞ며無識ᄒᆞ던者에게ᄂᆞᆫ健康에藥을주며安樂에福을주며知識의힘을주ᄂᆞᆫ千態萬象으로宗敎의機關을設備ᄒᆞ며東奔西走ᄒᆞ야우리傳道의範圍를擴張ᄒᆞ고徹底的으로傳道ᄒᆞ야滿天下同胞들이携手比肩ᄒᆞ고和平ᄒᆞᆫ正義의樂ᄒᆞ리서神聖ᄒᆞᆫ人道福音노리로主의압으로갓가히나아가永遠ᄒᆞᆫ天國의福樂을圓滿ᄒᆞᆫ家庭에셔無限히누리게ᄒᆞᄂᆞᆫ이우리傳道者의重且大ᄒᆞᆫ責任이다　그런ᄒᆞᆫᄃᆡ近日우리傳道者의一般形便을觀察ᄒᆞ고보면가장缺點되ᄂᆞᆫ바가不少ᄒᆞ도다그ᄂᆞᆫ무엇이냐ᄒᆞ면其中一部分傳敎者들은爲先自己가宗敎의眞理를잘硏究ᄒᆞ지못ᄒᆞ야薄弱ᄒᆞᆫ說敎와無名的傳道로反히有識ᄒᆞᆫ被傳道者에게一場恥笑를買ᄒᆞ며萬般嘲弄을受ᄒᆞ야信者의代表的無識을表示ᄒᆞ며宗敎의神聖ᄒᆞᆫ名譽를損傷ᄒᆞᄂᆞᆫ者가往々有之ᄒᆞ니참寒心ᄒᆞ도다不耘其田而耘人之田으로自己ᄂᆞᆫ宗敎의眞理를分明히硏究ᄒᆞ지못ᄒᆞᆫ卽無識敎人이況且有識ᄒᆞᆫ一般不信者를引導ᄒᆞᆯ重大責任을一時的妄想으로써辭讓ᄒᆞ지안코能히堪當ᄒᆞᆯ줄自認ᄒᆞ얏다가結局은自己의無識廣告ᄂᆞᆫ勿論이어니와宗敎의羞恥々지를ᄂᆡᄂᆞ니마ᄂᆞ니恒常若此輩에게重大責任을負擔시키ᄂᆞᆫ것은맛치一勺之水로輿薪의火를消ᄒᆞ며一斗之米로全國의人을救ᄒᆞᆷ과無異ᄒᆞ야緣木求魚ᄒᆞ며隨海捕兎의嘆을未免ᄒᆞ야雖終身傳道ᄒᆞᆯ지라도一毫의效果를不得ᄒᆞᆯ것은明若觀火로다然則宗敎를普及ᄒᆞ야社會의改良과民族의幸福과國家의榮光을期圖ᄒᆞ랴면무엇보담도먼저傳道者를改選ᄒᆞ되一日宗敎의眞理를充分히硏究ᄒᆞ며二日常識修養이多少間有ᄒᆞᆫ者로써其任에當케ᄒᆞ야眞理로써充分ᄒᆞᆫ傳道를ᄒᆞᄂᆞᆫ同時에感化中自覺시켜一分一刻이라도速히救主에압헤갓치나와懺悔ᄒᆞ고몸과마음과힘을다ᄒᆞ나님게밧친後에ᄒᆞ나님에뜻ᄃᆡ로實行ᄒᆞ며命令ᄃᆡ로服從ᄒᆞ야우리社會와民族과國家를榮光스럽게ᄒᆞᆫ天國을近ᄒᆞᆫ將來에建設할重大責任을各自擔ᄒᆞ게ᄒᆞᆯ것이올시다(未完)

「체크」大統領과 中歐三小國

大戰後 新興國의一인「체크슬로박」은建國의 初에「마사릭구」博士를大統領으로推戴ᄒᆞ고其指導下에셔內治及外交에着々히成績을擧ᄒᆞ야國家의基礎를確立코자ᄒᆞ나然이나尙히國步가艱難ᄒᆞ야前途의安全을絶對로確保ᄒᆞ기不能ᄒᆞᆫ 모다今에同國의政治的推移를見ᄒᆞ건ᄃᆡ去九月十五日에辭表를提出ᄒᆞᆫ「쓰사루」內閣의後를承ᄒᆞ야國家主義者의「사미」氏가非政黨的實踐內閣을組織ᄒᆞᆷ에從來結盟ᄒᆞ얏던社會主義派ᄂᆞᆫ玆에分裂이生ᄒᆞ야社會民主黨의幹部ᄂᆞᆫ「露國勞農主義의直接指導를受ᄒᆞᄂᆞᆫ共産主義ᄂᆞᆫ社會民主々義와全혀相容치못ᄒᆞ다」ᄂᆞᆫ旨를決議ᄒᆞ고第三國際主義의綱領을排斥ᄒᆞᆷ에對ᄒᆞ야同黨의左極派ᄂᆞᆫ黨의機關新聞「쁘라보리다」紙를抑取ᄒᆞᆷ이此로因ᄒᆞ야右極派ᄂᆞᆫ其本部를議會內에置ᄒᆞ고發刊을 繼續ᄒᆞ야一時에二種의「쁘라보리다」紙의發行을見ᄒᆞᄂᆞᆫ奇觀을呈ᄒᆞ니二派의軋轢ᄒᆞᄂᆞᆫ狀態ᄂᆞᆫ殆히停止ᄒᆞᆯ바를不知ᄒᆞᆯ것도다元來「쓰사루」內閣瓦解前에ᄂᆞᆫ同國社會主義者ᄂᆞᆫ西歐急進派中唯一의團結로稱ᄒᆞ던者이라首府「쁘라하」及「비루젠」兩市에本部를置ᄒᆞ고其代表者를內閣에列ᄒᆞ야其勢力이確乎不拔ᄒᆞᆷ과如ᄒᆞ얏스나然이나同黨社會主義派의勢力範圍를見ᄒᆞ면中央派ᄂᆞᆫ「모라비야」及「스로박」地方에最히勢力을占ᄒᆞ야前述ᄒᆞᆫ二派에接近ᄒᆞ고又勞農主義全部의贊同을不得ᄒᆞᄂᆞᆫ「말구스」左極派가有ᄒᆞ며更히露國風潮에感染ᄒᆞ야歸ᄒᆞᆫ勞農主義者의極端左極派가有ᄒᆞ야其間에活躍을試ᄒᆞᄂᆞᆫ狀態이라 然而「마사리쓰구」博士의政治的施設은一面으로言ᄒᆞ면過激派의侵掠防禦가殆히其全部를占ᄒᆞ얏다可謂ᄒᆞᆯ者이라波蘭間에國境問題에關ᄒᆞᆫ紛議를惹起ᄒᆞ야戰端을開始ᄒᆞᆷ에至ᄒᆞ얏다가幸히無事히落着되고預히赤化運動의內外로勃發ᄒᆞᆯ것을洞察ᄒᆞᆫ「마사리쓰구」ᄂᆞᆫ露波開戰에中立을宣戰ᄒᆞᆷ과同時에상히首相의地位를占ᄒᆞᆫ「에도와드뻬네」博士로「유고스라부」首都「쎄굴라도」及「루마니아」의首都「ᄲᅮ가레스도」에到ᄒᆞ야三國協調의事에當케ᄒᆞ얏스니此中歐三小國協調成立의目的은一은三國의獨立을維持ᄒᆞ야墺匈國復辟派의陰謀對抗上防禦同盟이오一은反漢派企劃에對ᄒᆞᆫ同防禦ㅣ라「마사리쓰구」博士의對內方針은敍上과如ᄒᆞ나對外方針은絶對的平和主義를基礎로ᄒᆞ야墺地利及匈牙利와協調ᄒᆞᆷ은안이라境遇에依ᄒᆞ야露國勞農政府의承認을 辭ᄒᆞᆯ事를言明ᄒᆞ얏스되但히勞農主義를國內에蔓延케ᄒᆞᆷ은多年間苦心惜懷의結果로辛勤이得ᄒᆞᆫ獨立을水泡에歸케ᄒᆞᄂᆞᆫ者인故로此一事ᄂᆞᆫ斷然不許ᄒᆞ야極力防遏코자ᄒᆞᄂᆞᆫ바이라故로其在任中은極力勞農主義와戰ᄒᆞ얏스나然이나最近西歐近東小亞細亞、中央亞細亞에赤化運動은浴々勃興ᄒᆞ야其勢를不知ᄒᆞᄂᆞᆫ中特히露國政變의結果ᄂᆞᆫ近東政局은根本的으로斬新ᄒᆞᆫ傾向이有ᄒᆞ야事態가重大ᄒᆞ니最近電報에依ᄒᆞ면「체크會로바」黨員이「아다구」勞働本部急進派員을放逐ᄒᆞᆷ을 見ᄒᆞ고直히 産業革命을斷行ᄒᆞ야 其遂行ᄒᆞᄂᆞᆫ 共産主義를 現實 目的으로炭坑勞働者의罷工을命ᄒᆞᄂᆞᆫ同時에諸工場의占領을企ᄒᆞ다가反히二百名의首魁가捕縛되야其計劃이全然破裂ᄒᆞ얏다ᄒᆞ니此ᄂᆞᆫ同國에關係가有ᄒᆞᆫ者의閑却치못ᄒᆞᆯ現象이라外로過激派의宣傳이有ᄒᆞ고內에復辟黨의陰謀가有ᄒᆞᆫ艱難에處ᄒᆞ야進一步ᄒᆞ야獨立을形成ᄒᆞᆫ大功績을揭ᄒᆞᆫ「마사리쓰구」博士ᄂᆞᆫ諸小列國의卓越ᄒᆞᆫ人物이라ᄒᆞᆯ시로다

泰東史話

彭思永이九歲時에尙書를從ᄒᆞ야岳州에留駐ᄒᆞ더니조朝에起ᄒᆞ야장次舍에往ᄒᆞᆯ시路邊에셔一個의金釧을拾得ᄒᆞ엿ᄂᆞᆫ지라默々히立ᄒᆞ야求索者를待ᄒᆞ더니一吏가來ᄒᆞ야徘徊ᄒᆞ기를久히ᄒᆞ거ᄂᆞᆯ思永이問ᄒᆞᆫ즉果然金釧을遺失ᄒᆞᆫ者이라公이其製作에狀貌를詰合ᄒᆞ고金釧을還付ᄒᆞ니吏가酬百金으로써謝ᄒᆞ거ᄂᆞᆯ公이笑曰我가만일財貨를欲ᄒᆞ것ᄉᆞ면진ᄃᆡ金釧을取ᄒᆞ고金釧은數百金에不過ᄒᆞ리오ᄒᆞ고견却ᄒᆞ더라일즉科擧에赴ᄒᆞᆯ시貧乏ᄒᆞ야盤資를辦키難ᄒᆞᆫ지라다만金釧數隻을携帶ᄒᆞ야旅舍에投接ᄒᆞ얏더니衆人이探翫의意로金釧의示ᄒᆞᆷ을請ᄒᆞ더니一客이故히一個의金釧을袖裏에潛入ᄒᆞᄂᆞᆫ지라公이泰然히不知와如히ᄒᆞ니衆人은莫知ᄒᆞ고俱히驚慌ᄒᆞ야求索ᄒᆞᄂᆞᆫ지라公이天然히言曰金釧의數가다만이라ᄒᆞ더라衆人이將次辭歸ᄒᆞᆯ시袖에藏ᄒᆞ엿던者가擧手ᄒᆞ야揖ᄒᆞ니釧이地에墜ᄒᆞᄂᆞᆫ지라衆이始로公의洪量을敬服ᄒᆞ더라公

桂屋漫筆

詩話拔萃 (九)

桂下散人

佔畢金齋公宗直이年十六에京城에赴擧ᄒᆞ야白鵬賦를作ᄒᆞ얏다가見屈ᄒᆞ얏ᄂᆞᆫᄃᆡ乖崖金守溫이時에文衡으로在ᄒᆞᆫ지라試所에셔落榜ᄒᆞᆫ試券을各文任家에分送ᄒᆞᆯ시佔畢의試券이乖崖家에送ᄒᆞᆫᄂᆞᆫ中에入ᄒᆞᆫ지라乖崖가披閱타가讀ᄒᆞ고大히讚歎ᄒᆞ야日此ㅣ眞日에文衡을典ᄒᆞᆯ國器어ᄂᆞᆯ高才로見屈ᄒᆞᆷ이可惜이라ᄒᆞ고其券을取ᄒᆞ야詣闕稟啓ᄒᆞᆫᄃᆡ上이奇異히녁ᄒᆞ사靈山訓導를命除ᄒᆞ시다時에漢江濟川亭柱上에詩를題ᄒᆞᆷ이有ᄒᆞᆫᄃᆡ雪裡寒梅雨後山을看時容易畵時難이早知不入詩人眼이면寧把臙脂寫牧丹이라ᄒᆞᆫ지라乖崖가適히濟川亭에往遊ᄒᆞ다가見ᄒᆞ고歎賞ᄒᆞ야갈오ᄃᆡ此ㅣ반다시前日白鵬賦를作ᄒᆞᆫ人의所作이로다ᄒᆞ고物色ᄒᆞ야尋見ᄒᆞ니果然佔畢의詩라常時文章의敬慕이此와如히神異ᄒᆞ더라

平壤府院君趙大臨은 太宗朝의부馬오開國功臣趙浚의子라龍을持ᄒᆞ고勢를怙ᄒᆞ야교縱不法ᄒᆞ야僭衣를服ᄒᆞ거ᄂᆞᆯ大司憲孟思誠과持平朴安信이啓稟치아니ᄒᆞ고携飄ᄒᆞ얏더니 太宗이大怒ᄒᆞ사二人을逮ᄒᆞ야車에載ᄒᆞ고장찻棄市코져ᄒᆞ심의朴이蒼黃失措ᄒᆞ거ᄂᆞᆯ孟이日吾ㅣ일즉이君을志操가ᄒᆞᆷ을도知ᄒᆞ얏더니今日에견ᄒᆞᆷ이엇지此와如ᄒᆞ뇨ᄒᆞ고官祿로ᄒᆞ야ᄒᆞ瓦石을持來ᄒᆞ라ᄒᆞ야七絶一首를書ᄒᆞ야日運回千載懲河淸ᄒᆞ니自謂君王至聖明이라爾職不供甘受死로ᄃᆡ恐君留殺諫臣名이라ᄒᆞ고政院에早納ᄒᆞ라ᄒᆞ얏더니 相成石璘이奏稟ᄒᆞ야死를減ᄒᆞ고流配ᄒᆞᆫ다後에孟은官至上相ᄒᆞ고朴은判書에至ᄒᆞ니라

今瓊雨ᄂᆞᆫ 肅宗時人이라孀婦詩를作ᄒᆞ얏ᄂᆞᆫᄃᆡ三年春黃嫁ᄂᆞᆫ衣에似病非愁洗浴稀라朝起未會看出日이오午眠常自到斜暉라多情果媚分殘食이오多事秋虫吊蹇機라最是中宵佳興在ᄒᆞ니開郎呼去捷如飛라ᄒᆞ니可히眞境을畵出ᄒᆞ엿다ᄒᆞᆯ너라

鄭北窓礦은 明宗時奸相으로善類를網打ᄒᆞ든鄭順朋의子나天姿가粹粹ᄒᆞ고風骨이秀朗ᄒᆞ야神淸無欲ᄒᆞ고望若仙人이라後世에셔東方異人이라稱ᄒᆞ니라ᄂᆞᆫ書法에特別히學習ᄒᆞᆷ이無ᄒᆞ되六藝의術을能通ᄒᆞ고少時에書를山寺에셔讀ᄒᆞᆯ시寺下百里內事ᄂᆞᆫ知치아니ᄒᆞᆷ이無ᄒᆞ더니使臣을隨ᄒᆞ야燕京에赴ᄒᆞ야各國使臣과遇ᄒᆞᆯ시其國語로應ᄒᆞ야酬酌ᄒᆞ되凝滯ᄒᆞᆷ이無ᄒᆞ더니琉球國使臣이公을見ᄒᆞ고下拜日公은神人이라我ㅣ本國에在ᄒᆞᆯ時에命을筮ᄒᆞ니某年某月에明國에셔異人을當遇ᄒᆞ리라ᄒᆞ얏다ᄒᆞ고낭中에셔探出ᄒᆞ야示ᄒᆞ고日果然公이로다ᄒᆞ더라年이四十을纔過ᄒᆞ고卒ᄒᆞᆫ지라망을屬ᄒᆞ고家人이發喪哀哭ᄒᆞᆯ時에忽然이回ᄒᆞ야起坐日吾ㅣ忘ᄒᆞᆫ事가有ᄒᆞ다ᄒᆞ고筆硯을取ᄒᆞ야詩를寫ᄒᆞ되怯生讀罷萬卷書ᄒᆞ니一日飮盡千鍾酒라高談伏羲以上事ᄒᆞ고俗說從來不掛口라顔淵三十稱亞聖ᄒᆞ니先生之壽又何久오ᄒᆞ고寫畢에筆을投ᄒᆞ고復臥而逝ᄒᆞ니可히仙化라謂ᄒᆞᆯ너라

崔相錫恒이形貌가奇怪ᄒᆞ더니翰苑에初入ᄒᆞᆷ에李女作가詩를作ᄒᆞ야戲曰何物奇形이院裡過오望之堪笑亦堪嗟라據來兩眼ᄂᆞᆫ蒼蠅卵이오步上層階類蟾蛙라手擧飯匙如鼎이오口橫烟竹似吹笳라人開帳事吾偏見ᄒᆞ니始覺今年厄會多라ᄒᆞ니一時가傳笑ᄒᆞ더라

白沙李相公이鰥居ᄒᆞᆯ時에一女가有ᄒᆞ야其愛擇婿ᄒᆞᆯ시石洲權韠의任식이佳秀ᄒᆞᆷ을見ᄒᆞ고招ᄒᆞ야三色桃로써命題ᄒᆞ고呼韻ᄒᆞ야詩를賦ᄒᆞ라ᄒᆞ니口를應ᄒᆞ야卽對日天桃灼灼映晴簾ᄒᆞ니三色如何共一枝오恰似美人梳洗了에滿頭紅粉未均時라ᄒᆞᆫ지라公이稱許ᄒᆞ고 地에吉日을消ᄒᆞ야成婚ᄒᆞ니쉬에時年이十三이러라

어每人이거름ᄒᆞ야日昇ᄒᆞᄂᆞᆫ德을뭇지아니ᄒᆞ고다만平心ᄒᆞ야物待物ᄒᆞᆷ을學ᄒᆞ노라ᄒᆞ며恒常其의子與弟에敎ᄒᆞ야日昇ᄂᆞᆫ數歲時로부터多에被中에處ᄒᆞ야自然히天下의事者를思치안이치못ᄒᆞ엿노라ᄒᆞ더라

幼少의時로부터應接을量ᄒᆞ며貪欲의地에處ᄒᆞ야聖人의器이多ᄒᆞᆷ은應德에大人이아니면不能ᄒᆞᆯ거ᄂᆞᆯ被中에處ᄒᆞ야天下의事物ᄒᆞ며[illegible]

初戀 (二六)

두게네프原作　[illegible]生 譯

(十四)의續

「나ᄂᆞᆫ慰勞ᄒᆞ노라고 그런말을ᄒᆞᄂᆞᆫ게지요」

詩麗ᄂᆞᆫ눈을깜박々々ᄒᆞᆫ다

「그거시慰勞가되여요！……오ᄉᆞ參尉令監！」詩麗ᄂᆞᆫ이外에ᄯᅡᄂᆞ말을發見못ᄒᆞᆫ것갓치 이런말을ᄒᆞ엿다「그리고 여보永植氏ㅣ당신도갓치가시라오！」

「나ᄂᆞᆫ갓치가ᄂᆞᆫ이가 만으면실혀요！」나ᄂᆞᆫ고기를숙인치 입으말도 중얼거렷다

「당신은 돌이가ᄂᆞᆫ것을 조와ᄒᆞ신단말이구려！……그러면ᄒᆞ만두서요 康尙監司도져실ᄒᆞ면그만이지요」하고 그ᄂᆞᆫ한숨을쉬ᄂᆞᆫ다 「參尉ᄂᆞᆫ말을줄周旋ᄒᆞ여주셔요 來日은꼭말한四이잇서야되겟서요」

「이애 돈은어듸셔나니ㅣ」 公爵夫人이춤견한다

詩麗의얼골에그늘이지며

「걱정마셔요 어머님에듸나고안이할레니 國榮氏가信用手形을주시겟지요」

「信用手形 信用手形」公爵夫人이중얼거리더니 忽 목을쏴며「쇼남오」라고불으지젓다

「어머니 제가왜招人鍾을놀이지안이햇서요」말이맛ᄒᆞ얏다

「쇼남오！」夫人은ᄯᅩ우친다

國榮이가모라감을告ᄒᆞ고 나모그집을나왓다詩麗ᄂᆞᆫ나를만류ᄒᆞ지도안이ᄒᆞ얏다

(十五)

그잇흔날 블숙이일어나 집힝이를하나ᄊᆞ거가지고城門밧게나왓다나의煩悶을씨스려ᄒᆞᆷ이라

氣ᄂᆞᆫ明朗한ᄃᆡ 희빗은발가로ᄯᅩ깁지안ᄒᆞ고 新鮮ᄒᆞᆫ空氣ᄂᆞᆫ[illegible]리를넘고노닌다 모든것이이바람에움작이기도ᄒᆞ되 新鮮ᄒᆞ지ᄒᆞ안이ᄒᆞ얏다 오뢰동안나ᄂᆞᆫ川으로 슈풀로彷徨ᄒᆞ얏다 愉快ᄒᆞᆫ것갓흔일어나지안ᄒᆞ고ᄒᆞ염업ᄂᆞᆫ妄想이자오른다 妄想을씨스랴나온것이妄想을더하러나온것이되엿다 그러나靑春이라든지 元氣라든지 鮮ᄒᆞᆫ空氣라든지 行樂이라든지 ᄒᆞ을노茂盛ᄒᆞᆫ풀밧헤놈ᄂᆞᆫ快味라든지 이모든것의影響이업ᄂᆞᆫ것은 안이엿다오이즈라도 이질수업ᄂᆞᆫ그사ᄅᆞᆷ씨ᄀᆞᄭᅡ쓰의心思 · 다시금[illegible]을두ᄂᆞᆫ다 詩麗가나의決心「나의勇氣에對ᄒᆞ야 公平스럽을수가업ᄂᆞᆫ것이 나의게ᄂᆞᆫ도로혀愉快ᄒᆞᆫ이엿다……나ᄂᆞᆫ이러케생각ᄒᆞ엿다 詩麗ᄂᆞᆫ나보다ᄯᅩᄂᆞ사랑ᄒᆞᆯ더조와ᄒᆞᄂᆞᆫ지를나ㅣ조와ᄒᆞᆫ돈마든무슨相關이잇스라ㅣ그代身ᄯᅢᄂᆞᆫ스물둘은 ᄒᆞᆯ수만잇스면 ᄒᆞ게다ᄒᆞᆫ안이어날 나ᄂᆞᆫ그것을보기조케ᄒᆞᆯ바리엿다 그리고아以下ᄯᅩ무슨일이라도 나ᄂᆞᆫᄒᆞᆯ수가엿다

나의空想은 또始作ᄒᆞ엿다男猛스럽게 詩麗를 敵手에서엿ㅣ앗ᄂᆞᆫ일 완몸에ᄒᆞ칠십을ᄒᆞ고鐵窓에 갓친詩麗를 敗軍ᄂᆞ된칼마진傷處에서피가ᄯᅳᆨ々솟지며詩麗의압헤서 우리집應像ᄒᆞ여보앗다ᄯᅩ에 결녀잇ᄂᆞᆫㅣ(마메크、오헤이마칠데 善에여ᄂᆞᆫ도것을그런그럽을싱각ᄒᆞ엿다 이現상각을ᄒᆞ다가 나ᄂᆞᆫ커다란얼풍ᄯᅡ木鳥을를쇼럼이바라보앗다 그서는가ᄂᆞᆫ樺木줄기에 올나가셔 쉬일시언시화목뒤로셔 마치런ᄐᆞ레바스의동뒤에셔 靑樂師카니다보듯 或은왼便으로或은右便으로넘다본다

이윽고「흰눈이안이면」이라ᄂᆞᆫ노ᄅᆡ를불넛다 그리고그ᄯᅢ에ᄂᆞᆫ니남업시다々ᄂᆞᆫ님은ᄒᆞ야 가을바람만솔々」이라ᄂᆞᆫ漏史詩를외왓다 ᄯᅩ나ᄂᆞᆫ쇼ᄅᆡ를줌혀ᄒᆞ마코프의悲劇의一節에 큰마그가볍치어다보며 述懷ᄒᆞ던ᄃᆡ目을朗讀ᄒᆞ엿다 그리고나도感情的詩를한마듸지으랴ᄒᆞ야 全曲을읫ᄂᆞᆫ못귀를싱각해보앗다 그것은「오々詩麗야ㅣ詩麗야……」라ᄂᆞᆫ것이엿다 그러나그것은마참너짓지못ᄒᆞ엿다

賀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七　洋靴專門　光美洋靴店　主 李泰弘　金世鎔

賀正

京城府鐘路通二丁目六　普信堂時計舖　主 玄錫柱

京城南大門市場　雜貨商　趙性元

京城鐘路通四丁目四十一番地　海陸洋靴店　主 李演淑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共愛堂藥房　主 朴容相

京城府鐘路二丁目七十七番地　眼鏡專門商　明眼堂　主 張熙元

京城府和泉町五番地　同和藥房　電話二〇一八番　振替三二一八番

京城府唐珠洞五番地　半島賣藥商會

賀正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五十番地　信行商會　電話一八三二番　振替京城六〇八〇番

朝鮮日報社記者　白樂玉

正

京城府[illegible]町五番地　參茸唐材直輸入販賣商　廣濟堂藥房　主 金斗永　振替京城一四八三番

京城府鐘路二丁目二十一番地　普仁堂藥房　主 金東達

京城府寬勳洞三十番地　朝鮮圖書株式會社　電話一九五四番　振替八二五五番

京城府黃金町一丁目百十一番地(舊小廣橋西川邊道)　海陸物産委託賣買　順興商會　主 安台俠

賀正

京城府三角町五八　朴潤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慈善堂藥房　主 金錫胤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五八番地　參茸房　趙炳璿

京城府鐘路四丁目二四　萬壽堂藥房　主 朴周東

京城府清進洞九番地　唐藥材都散賣商　中央藥業商會

朝鮮日報記者　玄禧運　雅名 玄哲

賀

賀正

京城府[illegible]洞九九　各種染料製造　各種文房具製造　各種化粧品製造　各種綿及紙類製造　商務實業團　工藝研究部

參茸唐草藥材直輸入商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三三番地　永昌堂　乾材藥局　崔聖弼　長電話一三八三番　振替京城一二〇四番

京城府清進洞一二六番　大盛堂藥房

京城府長沙洞八十五番地　辯護士　權泰鉉　長電話三〇一番

京城府敦義洞七五番地　辯護士　李琮夏　電話七二八番

京城府慶雲洞九六　三友洋服店　電話一三六九番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六四番地　鮮鞋各種　洋靴及經濟靴製造　卸商　高重熙　振替京城四二五五番

賀正

京城府仁寺洞壹五參　全州李氏大同宗約所　長電話二五一八番

朝鮮日報編輯局　朴健守　自宅　京城府壽松洞一〇三　仁川府龍里一〇四

正

問題의其壹

△社會改造問題

五個年의時日에亘ᄒᆞ든歐洲의大戰亂이告終ᄒᆞ고「베르사이유」의平和條約이締結된後一年을經ᄒᆞ야第一回國際勞働總會가瑞西「제네바」에서開催되얏슴은昨年十一月頃事이라或者ㅣ由是로世界의眞正ᄒᆞᆫ平和와人類의眞正ᄒᆞᆫ幸福이到來ᄒᆞᆯ가ᄒᆞ더니事實은不然ᄒᆞ야所謂第一回의國際聯盟도强大國對弱小國의協調가一致치못ᄒᆞ고國家本位를超脫ᄒᆞᆷ에不能ᄒᆞᆷ으로因ᄒᆞ야忽々히閉會를告ᄒᆞᆷ에至ᄒᆞ고列强의政治家及論客等은各其內政의料理와밋社會의內部改善에全心力을傾注ᄒᆞ게되얏도다

然則過去五個年間의歐洲大戰亂으로다만幾千萬의犧牲만出ᄒᆞ고何等의剩餘物이無ᄒᆞ얏는가ᄒᆞ면此亦不然ᄒᆞ야獨墺의崩壞와露西亞의解體와土耳其의垂亡으로因ᄒᆞ야歐亞의地圖가多少改造되는同時에그完不完은莫論ᄒᆞ고近十餘의新興國이新設됨과事가國家間題에關ᄒᆞᆫ지라吾人의論ᄒᆞᆫ바아니거니와政治의新聲이라고云ᄒᆞᆯ만ᄒᆞᆫ데모크라시主義가更起ᄒᆞ게提唱되며全歐가因ᄒᆞ야風靡ᄒᆞ게되는一面에는社會改造의聲이在々絶叫되야今에歐米의新思潮는此復日東亞의天地에輸入되야思想界의一大動搖를致ᄒᆞᆷ에至ᄒᆞ얏도다

改造々々! 社會의改造라ᄒᆞ면그語意가社會의組織制度로는到底히吾人々類에게平等되고또滿足ᄒᆞᆫ慰安을與ᄒᆞ기不能ᄒᆞᆫ즉此를改造ᄒᆞ야世界人類로ᄒᆞ야금徹底ᄒᆞᆫ理想的生活이라는彼岸에到達ᄒᆞ게ᄒᆞ야되겟다는要求에不外ᄒᆞᆫ즉未知케라歐米의現社會는그組織이果如何ᄒᆞᆫ가

世人이輒히歐米의物質的文明을謳歌ᄒᆞ고歐米人의平等生活을讚美ᄒᆞ지만其實은不然ᄒᆞ야歐米의現社會組織됨이資本主義에置重ᄒᆞ게된故로文明의日進ᄒᆞᆷ을따라資本萬能이라는傾向이日漸滋大ᄒᆞ게되야다만生活의不平等이懸殊ᄒᆞᆯ뿐아니라有産階級의專權이日甚ᄒᆞ게되미無産者의不平이蘊蓄되지其日이已久ᄒᆞ얏다가맛參時代의産物로其聲이始發ᄒᆞ게됨에至ᄒᆞ고此聲이一發ᄒᆞ자其鳴이大而遠ᄒᆞ야一人이唱ᄒᆞ미幾千萬이玆에附和ᄒᆞ야此等의唱和는殆히國境의界限도無ᄒᆞ게됨에至ᄒᆞ니此今日의勞資問題가是已ㅣ라

此勞資問題가何由로發生ᄒᆞ얏는가ᄒᆞ야그提道者의內部的心理를推究ᄒᆞ면多數無産階級卽勞働者心理에는以爲ᄒᆞ되吾人々類의生活上第一要素되는生産品은原料를除ᄒᆞᆫ外에는資本과勞力의二要素가合致ᄒᆞ여야될지니若ᄒᆞᆫ즉資本과勞力價値를同一視ᄒᆞ여야되겟거늘現在의社會는不然ᄒᆞ야資本의勢力이勞力의價値를無視ᄒᆞᆯ뿐아니라그提供者되는少數의有産階級은그誅求가無厭ᄒᆞ야多數의勞力提給者로ᄒᆞ야금自家의犧牲만되라고要求ᄒᆞᆷ즉이엇지勞働神聖의直義를沒却ᄒᆞᆷ이아니리오ᄒᆞ야於是乎勞働階級의同盟이發起되니卽所謂鐵道罷業이니坑夫罷業이니船員罷業이니電車罷業이니、職工罷業이니ᄒᆞ는歐米式의大規模罷業이玆에基因ᄒᆞ얏다可謂ᄒᆞᆯ것도다

試ᄒᆞ야此無産者有産階級의暗鬪가開幕된以來의經過가如何ᄒᆞᆫ가ᄒᆞᆷ은外電의報道에據ᄒᆞ야그槪略을綜合ᄒᆞ면各國勞働ㅣ側의勞働時間制限과밋勞銀値上의要求가提出된든其初에는工場閉鎖의減殺이니收支의不相償이니ᄒᆞ는口實下에資本主側은主張이더우强硬ᄒᆞ야容易히勞働者側의要求를採納치아니ᄒᆞ다가及其也勞働側의結束이益々鞏固ᄒᆞ고因ᄒᆞ야罷業의範圍가益々擴大ᄒᆞ게되미萬一此를其儘看過ᄒᆞᆫ다ᄒᆞ면生産品의減少로因ᄒᆞ야內而市場의恐慌을惹起ᄒᆞᆯ뿐안니라交通關係에도絶大ᄒᆞᆫ影響이波及되는同時에延ᄒᆞ야國際市場에도莫大ᄒᆞᆫ打擊이有ᄒᆞᆯ지라於是乎資本側의多少讓步로勞資의協調에對ᄒᆞᆫ第一步의開始된結果ㅣ勞働時間은八時間制를採用ᄒᆞᆷ에至ᄒᆞ얏고勞銀에至ᄒᆞ야도大部分勞働側의主張을聽納ᄒᆞ게됨에至ᄒᆞ얏스나勞働側에서는此로써滿足ᄒᆞ다ᄒᆞ지안코다시一步를進ᄒᆞ야利益分配의參加를要求ᄒᆞᆷ에至ᄒᆞᆫ지라將來此懸案은必也兩方間幾多의波瀾과曲折을經ᄒᆞ다가最近에는「佛國議會에서는鐵道改造法案을可決ᄒᆞ고鐵道從業員에對ᄒᆞᆫ利益分配案을承認ᄒᆞᆷ」이라는電報來電을接ᄒᆞ게됨에至ᄒᆞ얏도다

然則歐米의勞資調和問題는次第로解決될希望이不無ᄒᆞ다觀測ᄒᆞ다ᄒᆞ면工業本位의國家되는歐洲各國의社會的趨勢는從此內部로부터動搖가始作되다가及其也內部의騰從이積厚ᄒᆞ게됨에至ᄒᆞ면彼露의赤化宣傳에感染됨에至치아니ᄒᆞᆷ을難保ᄒᆞᆯ는지도未可知ᄒᆞᆫ바이니그成行의如何는吾人의觀望에止ᄒᆞ는바인즉玆에贅論ᄒᆞᆯ必要가無ᄒᆞ거니와

轉ᄒᆞ야我朝鮮의現社會는如何ᄒᆞᆫ가ᄒᆞ면一般의民度가아모리低下ᄒᆞ다ᄒᆞ더라도膨脹ᄒᆞ게流入ᄒᆞ는世界新思潮의支配를밧지안을수업고不寧惟是라再昨年秋節總督이着任되고因ᄒᆞ야文化政治를宣言ᄒᆞᆫ자十年間너무寂寞ᄒᆞ든半島社會도言論이니集會이니出版이니ᄒᆞ는各方面에亘ᄒᆞ야多少間防閑이稍緩ᄒᆞᆷ을따라各種의社交的團體가在々發起되는同時一部人士間에는勞働問題의研究를標榜ᄒᆞ고設立된朝鮮勞働共濟會이니日京城勞働大會이니ᄒᆞ는新機關이頭角을現出ᄒᆞᆷ에至ᄒᆞ얏고그主義綱領과밋前途의研究事項은姑論ᄒᆞ고事實에置重ᄒᆞ여야社會의健全ᄒᆞᆫ發達을期待ᄒᆞ기可得ᄒᆞ리라ᄒᆞᆷ은吾人의持論이니或者消極的에失ᄒᆞᆫ嫌이不無ᄒᆞᆫ지도不知ᄒᆞ겟스되社會萬有의現象을洞察ᄒᆞ건대改造方法을研究ᄒᆞᆷ에는먼저現社會의實際的事實을無視ᄒᆞ고는아니될더임으로써此主張下에서若干의見解를吐露코저ᄒᆞ노라

過去의半島社會는姑置勿論ᄒᆞ고現在의組織制度가如何ᄒᆞᆫ가ᄒᆞ면歐米의其者와는殊異ᄒᆞ야依然히農本位되는舊態古國의舊面目을脫키不能으로京城과如ᄒᆞᆫ都會中心地에는多少의工場이잇고玆에勞働ᄒᆞ는職工人의腦裏에는世界新風潮에刺戟ᄒᆞᆫ바不無ᄒᆞᆷ으로써再昨年과如ᄒᆞᆫ物價暴騰當時에는勞銀의値上要求로因ᄒᆞ야職工界의多少動搖가有ᄒᆞ얏지만亦大問題가됨에至치못ᄒᆞᆫ事實이엿도다

然즉朝鮮에서勞資問題를研究ᄒᆞ라ᄒᆞ면果然那邊에求ᄒᆞᆷ이可ᄒᆞᆯ가朝鮮의産業은農本位에在ᄒᆞᆫ故로朝鮮의資本主는地主其人이고朝鮮의勞働者는作人이十之七八을占ᄒᆞ게된結果年來土地의兼併이滋甚ᄒᆞᆯ뿐안니라地主對小作人間의關係는맛치主奴와如ᄒᆞᆫ觀이有ᄒᆞ야小作其人에게는死活與奪의權은地主의專橫에一任ᄒᆞ게될으로旣租又는打作의半々制度를勿論ᄒᆞ고그制度上根本的缺陷이不無ᄒᆞᆫ즉設令無識無所解ᄒᆞᆫ階級에在ᄒᆞᆫ小作人으로써現狀破壞의行動에出ᄒᆞᆷ은其者는無哉아ᄒᆞ더라도朝鮮의小作制度는不可不急速키改善ᄒᆞ야地主對小作人의關係卽朝鮮의勞資協調에遲滯업게解決ᄒᆞᆯ必要가有ᄒᆞ다ᄒᆞ노라

所以로日本內地의慧眼ᄒᆞᆫ資本家側에서는業已大勢에洞察ᄒᆞᆫ바有ᄒᆞ야小作組合이라는社會的新施設이在々計劃됨을聞ᄒᆞ얏거니와此半島社會에서는有産階級의自覺이고無ᄒᆞᆫ인지此等의研究此等의施設에自發的으로新案을提唱ᄒᆞ는其人이無ᄒᆞᆷ은抑何ᄒᆞᆷ이뇨嗟呼라吾人은現狀維持를主張ᄒᆞ는同時此現狀은如何ᄒᆞᆫ方法으로써永續ᄒᆞᆷ을可得ᄒᆞᆯ가ᄒᆞ는問題에至ᄒᆞ야는그解答이萬難ᄒᆞ나니何故이뇨ᄒᆞ면爲政者와밋民間有識階級에在ᄒᆞᆫ其人의國家社會에對ᄒᆞᆫ先見的施措가無ᄒᆞ고보면社會의裡面의暗鬪는반다시外部에發作ᄒᆞᆯ其日이有ᄒᆞᆫ所以ㅣ라

於是乎見ᄒᆞᆫ吾人은外來의危險思想을防遏ᄒᆞ는데致力ᄒᆞᆷ보다各方面에亘ᄒᆞ야制度의改造와思想의善導에加一層留意ᄒᆞ기를希望ᄒᆞ는此時를際ᄒᆞ야江湖有産階級에게提案ᄒᆞ야그改善의具體案을徵求코져ᄒᆞᆷ에止ᄒᆞ노라

歸趣는各自에게在ᄒᆞᆷ

宋根雨

飽食煖衣와身安志樂은人의欲ᄒᆞ는바ㅣ라汝도또ᄒᆞᆫ此를欲ᄒᆞ는가汝도또ᄒᆞᆫ愛惜ᄒᆞ는가? 功名利達과般樂怠敖는人의安ᄒᆞ는바ㅣ라汝도또ᄒᆞᆫ此를安ᄒᆞ는가汝도또ᄒᆞᆫ此를愛惜ᄒᆞ는가? 만일問ᄒᆞ되汝가飽食煖衣를得ᄒᆞ나汝의一身은失ᄒᆞ지며汝가功名利達을得ᄒᆞ나汝의一身은失ᄒᆞ리라ᄒᆞ면汝는必然코三舍를辭退ᄒᆞ야顧戀ᄒᆞᆯ바無ᄒᆞ리로다嗟呼로다一身이有ᄒᆞᆫ後에飽食과煖衣가비로소價値가有ᄒᆞᆯ것이오一身이有ᄒᆞᆫ後에야功名과利達이비로소効用이有ᄒᆞ리로다汝는何故로營々ᄒᆞ며苟々ᄒᆞ며空然히疲役ᄒᆞ야止ᄒᆞ기를不知ᄒᆞ는가汝는何故로毁譽와得喪의奴隷를作ᄒᆞ며誘惑과邪의창獐를作ᄒᆞ야恥ᄒᆞᆯ바를不知ᄒᆞ는가、吾人은果然何를愛惜ᄒᆞᆯ가는命인가富貴인가名達인가逸樂인가吾人은果然何를愛惜ᄒᆞᆯ고夫小人은其小ᄒᆞᆫ物을愛惜ᄒᆞ고大人은其大ᄒᆞᆫ바를愛惜ᄒᆞ나니世界로브터見ᄒᆞᆫ진ᄃᆡ吾人의一身은世界를爲ᄒᆞ야作ᄒᆞᆫ者라汝는汝의一身의愛惜ᄒᆞᆷ을知ᄒᆞᆫ後에비로소世의愛惜ᄒᆞᆯ지니라「在山泉水淸出山泉水濁、侍婢賣珠回、牽蘿補茅屋、摘花不插髮、采柏動盈掬、天寒翠袖薄、日暮倚修竹」此는杜少陵의幽谷에서棲遲ᄒᆞ는絶代佳人을詠ᄒᆞᆫ詩라紅顔은易凋ᄒᆞ고綠髮은將霜이라彼女는何를爲ᄒᆞ야스사로樂地를捨ᄒᆞ고苦境에居ᄒᆞ야凄絶ᄒᆞᆫ生涯에自甘ᄒᆞ얏는고此는無他라戰々兢々ᄒᆞᆷ으로써其貞操를持ᄒᆞ야敢히失ᄒᆞᆷ과恐懼ᄒᆞᆷ이니彼는富貴로써此를換치아니ᄒᆞᆯ것이오彼는榮、珠玉으로써此를換치아니ᄒᆞ리로다彼는一身의貞操로써翠帳紅閨와換치아니ᄒᆞ리니彼는翠帳紅閨를不好ᄒᆞᆷ이아니로되貞操를愛ᄒᆞ는故며此와相換ᄒᆞᆷ을不認ᄒᆞ는故며「歸去來兮、田園將蕪胡不歸旣自以心爲形役奚惆悵而獨悲舟搖々而輕颺風飄々而吹衣乃瞻衡宇載欣載奔携幼入室有酒盈樽、三逕就荒松菊猶存」此는陶靖節이五斗米에折腰ᄒᆞᆷ을不屑ᄒᆞ야彭澤의印을解ᄒᆞ고徒와如히歸ᄒᆞ고五條寂寞ᄒᆞᆫ五柳村으로飄然歸ᄒᆞ던情境이라軒冕의榮과名利의厚來는엇지先生의顧念ᄒᆞᆯ바리오만은先生은此를不顧ᄒᆞ고何故인고此는無他라戰々兢々ᄒᆞᆷ으로써其介節을自保ᄒᆞ야此失ᄒᆞᆯ가恐懼ᄒᆞᆷ이라彼는高牙大纛으로써此를換치아니ᄒᆞᆯ것이오彼는食前方丈과侍妾數百으로써此를換치안이ᄒᆞᆯ지라彼는金門玉堂으로써此를換치아니ᄒᆞ리니彼는金門玉堂을不好ᄒᆞᆷ이아니로되介節을愛ᄒᆞ는故며此와相換ᄒᆞᆷ을不忍ᄒᆞ는故이라一身을愛惜ᄒᆞ는者는元來此와如ᄒᆞᆷ이當然ᄒᆞ거니와然ᄒᆞ나彼一世의才人俊秀는動輒權家의姻親을希ᄒᆞ며富翁의贅婿를甘ᄒᆞ야汲々ᄒᆞ야求ᄒᆞ며切々ᄒᆞ야奔ᄒᆞ며得々ᄒᆞ야安ᄒᆞ며樂々ᄒᆞ야樂ᄒᆞ니此輩는果然自己를愛ᄒᆞᆫ다說ᄒᆞᆯ지어다經에云ᄒᆞ되天下의物을得ᄒᆞᆯ지나만일一身을失ᄒᆞᆫ진ᄃᆡ何用이有ᄒᆞ리오ᄒᆞ얏나니此는以上의異評를道破ᄒᆞᆷ이아니리오試觀ᄒᆞ라彼幽谷의貞女는淸濟ᄒᆞᆫ生涯가肉體를疲弛ᄒᆞ게ᄒᆞ지못ᄒᆞ얏나니此는無他라其精神上快樂이此보다大ᄒᆞᆫ故이며彼陶先生의西疇勞作이其憂感의愁苦를不作ᄒᆞ얏나니此는無他라其精神快樂이此보다大ᄒᆞᆫ故이라吾人이만일黃金萬鎰에心醉ᄒᆞ야禮義를不顧ᄒᆞ고受ᄒᆞᆯ진ᄃᆡ엇지誤ᄒᆞᆷ이안이리오汝는엇지黃金萬鎰로써一身보다大ᄒᆞ다ᄒᆞ리오黃金이엇지天下보다小ᄒᆞ지안이ᄒᆞᆷ가ᄒᆞ물며誘惑에漏使ᄒᆞ야自己의一身을誤ᄒᆞᆷ이榮達과富厚逸樂을得ᄒᆞ기不能ᄒᆞᆷ이리오榮達과富厚와逸樂으로써吾의貞操와介節을換치아니ᄒᆞ던而此도得ᄒᆞ기不能ᄒᆞ고卒然히萬劫地獄에墮ᄒᆞ면이엇지誤의大誤가아니리오 (完)

元朝志感

桂下散人

其一
守歲燈前坐悄 夢中已感歲難眠
隔窓乍聽金鷄唱 好是吉祥新아年

其二
曉天迢遞瑞光連 三白雪痕宜臘前
隴畝遺蝗應入地 是年氣候占豐年

其三
巡簷索笑與梅妍 春色山家暖意先
安得誰人調美手 蒼生普濟始今年

其四
乾時遲於上水船 關東霜雪滿華顚
生涯淡泊知吾分 叢桂歸棲問幾年

其五
慈闈追暮感懷偏 雪兩未掃阡
森眼儀容如昨日 光陰忽忽已三年

其六
淸晨具饌小床邊 白髮雙親情可憐
賴有孝庭家督在 落來微俸饋新年

其七
弟兄垂老友情牽 結屋相隣강尊聯
史貧窮兒委禽近 愛看頭角已成年

其八
사々竊守詰晨天 認得眉間喜氣傳
阿娘夢熊須吉報 含飴棠下樂年々

其九
契托芝蘭作好緣 共然詩酒賞風烟
知音此世數君子 一夜相思經一年

其十
淺見非材敢自專 多慚報館共垂賢
縱把筆言文溢 只許丹心未改年

其十一
一世人 走貨泉 塲嘆貧富各殊懸
春來花木皆生 遲與還能保晚年

其十二
계林秀麗 山川 霜雪多時閱劫千
笑看扶 紅日上彩繩誰 계長年

其十三
酬節何人放紙鳶 巷街家 滌自喧진
滿城活氣斯間在 岐어聰英政妙年

其十四
世事紛 競利權 列强勢力未均圓
人間風雨何時霽 要使終看進化

其十五
天地推移人事遷 青邱春返動光鮮
床頭滿酌屠蘇酒 扶醉々々共賀年

賀正

京城堅志洞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長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賀正

京城長橋町四五
李鍾[illegible]

賀正

京城府壽松洞八二
三十本山聯合事務所
委員長 姜大蓮
財務 李混惺

賀正

京城電氣株式會社

賀正

京城府公平洞五五
大東印刷株式會社
電話六七八番

金秉殷
京城北米倉町一四〇
電話七九〇番

賀正

京城鍾路二丁目
韓敬善洋靴店
電話一六六八番

京城府義州通一丁目一九四番地
婦人仙藥 千金順經丸
湿壯筋骨 健陽丸
淋疾靈藥 速治丸
製造本舖 弘仁堂藥房
主 金仁培

京城西大門町一丁目四
洋靴 經濟鮮鞋 永信鞋商
崔廷潤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七〇
世豊洋靴店
主 金顯琟

京城蓬萊町
金銀細工商 李聖基

京城鍾路二丁目
洋靴專門商 青年洋靴店

京城寬勳洞一二七
日光洋靴店

京城黃金町二丁目二二
洪泰煥

賀正

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〇三
共同貿易株式會社

敬頌新春

一月元朝

朝鮮京城光化門局私書函第九號
(京城鍾路二丁目)
圖書雜誌 出版、輸入、都散賣
廣益書館
主 高敬相

新春의好讀物

海王星
模範 最新化學問題詳解
最新唱歌 三版
新訂初等諺文 再版
修養第二輯 印刷中
女子界第六號

紹介

創造第八號印刷中
懸吐玉麟夢
李适亂及丙子亂

朝鮮婦人의新自覺

신년벽두로부터 우리부인의할일

흐르ᄂᆞᆫ세월이 멈춤이업시ᄒᆞ면 삼빅륙십일이라ᄂᆞᆫ날자도임의다가고오ᄂᆞᆯ부터ᄂᆞᆫ 일월일일이라ᄂᆞᆫ새해를당ᄒᆞ엿스니 지ᄂᆞ간일년동안의 모던우리의한일을싱각ᄒᆞ면 감기무량의평ᄒᆞᆫ금치못ᄒᆞ겟ᄃᆞ 예시노정현모셰뽐ᄂᆞᆫ잘못ᄒᆞᆫ일이ᄂᆞ엇나ᄒᆞ여 하로에셔번식이나몸을살피엿ᄃᆞᄒᆞ엿거든이야엇지ᄒᆞ로에 열두번이라도저몸을살피기를 시려ᄒᆞ리요 이럼으로우리갓흔 범々ᄒᆞᆫ사람이지난일을 모다몸동안에 여러가지로 남북쇠련운일파잘못된일이 한둘이 안이로다 그러나 우리의지난일은 한갓쓸대이될뿐이요 작년도 실핀ᄂᆞᆫ해에 거울이될것밧게ᄋ모것도남은것이 업스니 파거ᄂᆞᆫ파거로미두어 모도씨셔버리고 새로운 신년브터ᄂᆞᆫ 새ᄉᆞ람한마음으로 한칭더 빗나ᄂᆞᆫ일을ᄒᆞ지안이ᄒᆞᆯ수업ᄂᆞᆫ바이올시다 엇더한시ᄃᆡ와 엇더한 나라를물론ᄒᆞ고 신구의사상이 교환되고 문화의 충돌이 이런날ᄯᆡ에ᄂᆞᆫ 사회의모든것이 복잡ᄒᆞ여 그감피를잡기 어려ᄂᆞᆫ고만옵을 진정ᄒᆞᆫ가국란ᄒᆞᆫ것이나오ᄂᆞᆫ날 우리조선이 정히이러ᄒᆞᆫ셔ᄃᆡ를당ᄒᆞ얏도다 엇더한ᄉᆞᄅᆞᆷ은 말ᄒᆞ되 다른외국사ᄅᆞᆷ파달나 우리조선부인ᄂᆞᆫ 가뎡에집히드려안져 밧갓일에ᄂᆞᆫ 간섭ᄒᆞ지안이ᄒᆞᄂᆞᆫ것이 제일조흔부인네라ᄒᆞ엿이요 이것이 혼세ᄒᆞᄂᆞᆫ집ᄂᆞᆫ치시하ᄂᆞᆫ방법이라 구티여 만은일을바리고 밧갓일 셔지근섭할필요가업다ᄒᆞ나 이것은크게ᄐᆞ르ᄂᆞᆫ난말이올시다 이런파갓치쇄국시ᄃᆡ로 우리셔리만살적에ᄂᆞᆫ조흐히도우리오죠와도우리며ᄒᆞ을보아 도우리ᄒᆞ이 요자랑을ᄒᆞ야도우리ᄌᆞ랑이니 시비를그커렴분간치안이ᄒᆞ여도 곡직이우리에게만잇섯고 층찬ᄂᆞᆫ그커렴만이안이ᄒᆞ여도 착ᄒᆞᆷ이우리의게잇섯지만 오날은그ᄯᅢ와달나셔셰계가이우스갓치통ᄒᆞ엿고지식이셔로넘나들어 시비곡직、남파갓치 여론에 오르고 션파악이 한가지로 판단이되게되엿스니 엇지쇼홀ᄒᆞ 마음을支코잇기를ᄒᆞ리요 이런ᄒᆞᆷ으로우리ᄂᆞᆫᄂᆞ녀를물론ᄒᆞ고 조션사ᄅᆞᆷ이된이상에ᄂᆞᆫ 반드시조션을위해셔 일을ᄒᆞ여야ᄒᆞᆯ거시요더구나조션부녀된이상에ᄂᆞᆫ 조션부녀의직무를 다ᄒᆞ지안이ᄒᆞᆯ수업ᄂᆞᆫ빌이올시다 그러나 우리ᄂᆞᆫ엇더한사경파엇더한처디에셔가뎡의쥬인이되여왓ᄂᆞᆫ지 ᄯᅩ난ᄂᆞᆫ 나라 부인들은 엇더ᄒᆞᆫ할동을ᄒᆞ며 ᄃᆞ른집가뎡은엇더케처리를ᄒᆞ며 ᄂᆞᆷ의집자식은 엇더케길너셔 훌륭한인지가되게ᄒᆞ엿난지 나의자식은 엇더ᄒᆞᆫ직업파 엇더ᄒᆞᆫ 집을가젓스니엇더케가뎡을 ᄃᆞ스렷스며원만히이루어갈난지 우리집자녀난엇더한피습파 엇더한특상을가젓스니 엇더케교육을식켜야진보가속ᄒᆞᆯ난지이러ᄒᆞᆫ 모던문제를연구ᄒᆞ여그남편의사업을도으며 그자녀를교양ᄒᆞ고 그가뎡을ᄃᆞ사릴것은 모도여러분의목하에크게힘슬빌이올시다 예로부터 지금에가지 공을죽빅에긔록ᄒᆞᆫ 일홈을후세에드리운이난한인도두그안히의안으로 모으난힘을입지안이ᄒᆞᆫ이가업고 ᄯᅩ그어먼이의가르친을밧지안이한이가 업ᄂᆞᆫ고ᄒᆞ여도셜코망말이라고ᄒᆞᆯ수가업심니ᄃᆞ그려면 우리의가뎡에쥬부되시난여러부인은 조그마ᄒᆞᆫ 한가뎡에에업ᄂᆞᆫ여인ᄂᆞ고 결코최임이적

오나 의무가가벼운것이안이요 우리의 사회를 ᄂᆞ아가게ᄒᆞ며 우리의 자손을 츈사ᄅᆞᆷ만드난큰쳐임이 곳여러분의 두억기에미엿고 여러분의 두손에달엿슴니다 나라에셔ᄂᆞᆫ 며ᄂᆞᆯ의교육기관파 녀자의 지식을보고 모던설비가 완젼이되여 부인들이 보도록만든신문이교도여러가지가잇셔 빈호고십은니로 학문을비홀수가잇스며보고십흔최파 읽고십흔 글임의로읽거 문명ᄒᆞᆫ길을 ᄒᆞᆫ가지로 ᄂᆞ아가게ᄒᆞ지만ᄂᆞᆫ 우리ᄂᆞᆫ 현금사정은 신문화의모든것이 초창ᄒᆞᆫ시ᄃᆡ라 그설비의완젼치못ᄒᆞᆫ것이 이루ᄂᆞ말할수가업지마ᄂᆞᆫ 그즁에 더욱이유감으로싱각ᄒᆞᄂᆞᆫ것은 이사회가 우리부녀의게 ᄃᆡᄒᆞᆫ모든시식이 설비를 동한히ᄒᆞᄂᆞᆫ폐단이만은즁심가ᄒᆞᄂᆞᆫ비이올시다 몃기ᄂᆞ동녀자보통한교가업지ᄂᆞᆫ안이ᄒᆞᆫ지만은 일쳔만 우리녀자가파연몃치나 그학교문을 드려다보며 우리조션에ᄂᆞᆫ녀자 초등학교가 업지ᄂᆞᆫ안이ᄒᆞ지만ᄂᆞᆫ우리자미즁에ᄂᆞᆫ 몃치나그들을비우ᄂᆞᆫ지 우리가이것을한번싱각ᄒᆞ면 진실도 너른바다에 한줌자른 파갓도다 그런빈안이라 임ᄂᆞᆫ남의쥬부가되고남의엄어니가되며 남의며느리가되우리부인들은 여러가지형편으로 도쳐히 쇼셔잇ᄂᆞᆫ 학교교육은밧지못ᄒᆞᆫ거시니 사회에몸이미인 그남편을 붓드러두고 글을가라치ᄂᆞᆫᄂᆞ고할ᄯᅮ도업ᄂᆞᆫ것이요 ᄯᅩ도신칭을두어글을비우ᄂᆞᆫ것도 체마다어려운일이라 그러면 모든다어려ᄇᆞ고모르ᄂᆞᆫ그ᄃᆡ로 무식한그ᄃᆡ로 일싱을마치ᄂᆞᆫ것이 오를가 결코그럿치못ᄒᆞᆯ것이니여러부인은님의권고보다도 ᄌᆞ긔가 ᄌᆞ긔를권고ᄒᆞ며 남이날을 일너죽ᄂᆞᆫ것보나 ᄌᆞ긔가 ᄌᆞ긔를일너셔 근검 마음파 근실한싱의로 부지런히힘쓰면 반ᄃᆞ시여러분에게 귀ᄒᆞᆫ무식은면ᄒᆞᆯ것이올시다 하로에한장은어려울지라도 일년에삼빅륙십자ᄂᆞᆫ넉々히비울수가잇스며 일년에한권최은어려울지라도 십년에삼쳔을빈자ᄂᆞᆫ 비울슈가잇슬것이니 이ᄀᆞᆺ치힘쓰ᄂᆞᆫ것은 다만여러분이일신만위ᄒᆞ셔 그러ᄒᆞᆫ것이안이라 우리의사회를위ᄒᆞ며 우리의후세자손을위ᄒᆞ야ᄒᆞ려한것을빌우고 알지안이ᄒᆞᆯ슈ᄂᆞᆫ것이올시다 ᄋᆞᆯᄒᆞ나우리ᄂᆞᆫ도ᄂᆞᆷ 못치ᄉᆞ니야ᄒᆞᆯ것이오 ᄂᆞᆷ파곳치알어야ᄒᆞᆯ거시니 오ᄂᆞᆫ것이남만못ᄒᆞ고 지식이남의게밋지셔야 무슨수로 남파곳치나오가기를비라며 남파곳치살수가잇슬ᄂᆞ가 ᄒᆞ물며이신체긔의오날々은 셔로살기를다토며 힘셰인놈이 약ᄒᆞᆫ놈을못살게ᄒᆞ며 나은놈이 못ᄒᆞᆫ놈을먹으려ᄒᆞᄂᆞᆫᄯᅢ를물론ᄒᆞ고 ᄂᆞᆷ이한거름을나아가면 우리ᄂᆞᆫ두거름식거러가야져오 곳치살수ᄂᆞ니 즁ᄒᆞ고귀ᄒᆞᆫ최임을맛흔 여러부인들은작년의지난모든일은 임의이져바리드리고도 신년셰회의 ᄋᆞ느브터ᄂᆞᆫ 시로운청신파 시로운마음으로 남ᄂᆞᆫ게밋지々안케분발ᄒᆞᄂᆞᆫ기를바라ᄂᆞ이다

朝鮮日報에對ᄒᆞᆫ余의感想

京城府 노泳福

南山의竹을盡ᄒᆞ고東海의水를盡傾ᄒᆞ려도 오히려다쓰지못ᄒᆞᆯ나의셔류ᄂᆞᆫ종을조희、삼고白岳山을붓ᄉᆞ지며ᄃᆞ도오히려다쓰지못ᄒᆞᆯ나의懷抱、古木나무갓흔나의肝腸灰燼갓흔、나ᄂᆞᆫ際限ᄒᆞᆫ만흔恨을품은나의生涯寂寞ᄒᆞᆫ旅窓孤枕우에셔거미ᄌᆞᆨ을기ᄃᆞ린지몃번이며우淚ᄒᆞᆫ孤筇隻身으로獨行疋馬를몰ᄂᆞᆫ지幾度이냐슬픔이이셔도同樂ᄒᆞᆯ사람이업시悲ᄒᆞᆫ宇宙間에四面에모다楚歌인孤窓의生涯ᄂᆞᆫ몃엇시寒窓을보니엿도다寒雪險峭에辛苦를겨면草木ᄂᆞᆫ반다시和風을日에芳菲를자랑ᄒᆞ好時가잇고雲圖光明ᄒᆞᆫ中天望月도夜가잇ᄂᆞᆫ니만은春風과、月을能히人力으로써ᄀᆞ配ᄒᆞᆯ것이라ᄒᆞ면世上의모든強者들은永遠히望ᄒᆞ春風의主人이될것이오아모勞力업는사ᄅᆞᆷ은一生에暗黑界의主人되고말것이다그러치마ᄂᆞᆫ無聲無臭ᄒᆞ게오ᄂᆞᆫ公理ᄂᆞᆫ人力으ᄅᆞ써能히이것을抵抗치못ᄒᆞᆯ것은確定ᄒᆞᆫ理致가아닌、寒雪險峭와晦昏衝牛爲江山에誕生ᄒᆞ야二千萬兄弟姊妹의김히든春夢을喚醒ᄒᆞ니寂々寥々ᄒᆞᆫ東半島에오직砲聲이有ᄒᆞ야錚々ᄒᆞ도다日報君ᄋᆞ君의責任과君의希望을비록野叟와村童ᄋᆞ라도모다諒解ᄒᆞᆫ바인즉ᄯᅩ다시暾々히陳述ᄒᆞ야聽者의耳양症이르킬必要가업다만은病床에서良醫를對ᄒᆞᆫ듯ᄒᆞ나의情은逢ᄒᆞᆫ悲喜別時悲歎ᄒᆞᆫ날파갓치君을歡迎ᄒᆞᄂᆞᆫ마음은오히려돕지치고一種의感懷가迸出ᄒᆞᄂᆞᆫ도다아ㅣ君이여ᄂᆞ시ᄒᆞᆫ번우리의過去生活을回想ᄒᆞ지어다우리ᄂᆞᆫ식過갓흔두눈을가지고能히物을視치못ᄒᆞ얏스며秋蓮갓흔古舌을가지고能히言을吐치못ᄒᆞ얏스며耳로能히聲을듯지못ᄒᆞ얏스며足으로能히步를行치못ᄒᆞ얏도다아ㅣ萬物의靈이되ᄂᆞᆫ우리사ᄅᆞᆷᄂᆞᆫ思潮ㅣ라ᄒᆞ며人道의正義를宣傳ᄒᆞᄂᆞᆫ世界의今日에우리ᄂᆞᆫ沓過去의우리가아니라今日、우리ᄂᆞᆫ階級의우리가아니라平等의우리ᄂᆞᆫ悲觀의우리가아니라樂觀의우리요殘弱退屈의우리가아니라剛毅勇敢、우리라萬里鵬程에展翼高飛ᄒᆞᆷ은우리、압길이오和風麗日에萬花爭春ᄒᆞᆷ은우리의氣運이오白頭山의巖々파鴨綠江의滾々ᄒᆞᆷ은우리의希望이라우리의生涯ᄂᆞᆫ自今滋味잇슬것이오우리懷抱ᄂᆞᆫ일노붓터暢快ᄒᆞ리로다그러면日報君은幸福밧을우리며와엇더ᄒᆞᆫ關係가有ᄒᆞᆫ日報君의가곳우리의煩悶ᄒᆞᆯᄯᅢ、ᄂᆞᆫ淸心丸이되고孤獨ᄒᆞᆯᄯᅢ에ᄂᆞᆫ慰勞者가되고臨事ᄒᆞᆯᄯᅢ에ᄂᆞᆫ顧問官이되고閑居ᄒᆞᆯᄯᅢ에ᄂᆞᆫ消遣友가될日報君이다아光明正大ᄒᆞᆫ우리日報君이여漆夜昏衢에셔失路彷徨ᄒᆞᄂᆞᆫ저同胞들은速히坦道로前進ᄒᆞ라迷路를指示ᄒᆞᄂᆞᆫ우리日報의慧灯이잇ᄂᆞ니라平生의事業을花柳界에일삼ᄂᆞᆫ同胞들아밧비前非를悔過ᄒᆞ라峻烈ᄒᆞᆫ우리日報의筆이잇ᄂᆞ니라飽食煖衣ᄒᆞ야自己의私益만計圖ᄒᆞ고公共社會에同情치안ᄂᆞᆫ同胞들아밧비肥己心을두지말고博愛心을養成ᄒᆞ라우리日報의諄々ᄒᆞᆫ敎道와便捷이잇ᄂᆞ니라勇猛스럽게脚을社會에立ᄒᆞ야民族의精神을發揮코져ᄒᆞ라貴ᄒᆞᆫ日報名조흔日報君은無病ᄒᆞ고君은長壽ᄒᆞ고君은善鳴ᄒᆞ야朝鮮半島를光明ᄒᆞᆫ域에進케ᄒᆞ라

新을求ᄒᆞᄂᆞᆫ方法

한 셔

人皆曰日月의照ᄒᆞᄂᆞᆫ곳에一도新事物이無ᄒᆞ다ᄒᆞ더라吾人은嚴正ᄒᆞᆫ意義下에果然如何ᄒᆞᆫ點에셔新이란者를發見ᄒᆞᆯ것인줄을知치못ᄒᆞ노라人生의行旅ᄂᆞᆫ、現在巡廻ᄒᆞᆷ과如ᄒᆞ야往ᄒᆞᄂᆞᆫ듯ᄒᆞ다가還ᄒᆞ고還ᄒᆞᄂᆞᆫ듯ᄒᆞ다가往ᄒᆞ되일즉窮極이無ᄒᆞ니라惟컨ᄃᆡ所謂新이란者ᄂᆞᆫ畢竟循環無窮ᄒᆞᄂᆞᆫ舊가안이나吾人이新年이라ᄒᆞ야歡迎ᄒᆞᆷ은昨年의新年이一次循環ᄒᆞ야來ᄒᆞᆫ者ㅣ안이냐吾人이舊라ᄒᆞ야歡迎ᄒᆞᆷ오旣往晩新가되야休紙筒에投ᄒᆞ얏든것을ᄃᆞ시整出ᄒᆞᆯ것이안이냐所謂學者先生의新說이라ᄂᆞᆫ것도十中八九ᄂᆞᆫ既히閑却되얏든古人의舊說을世人의記憶外에셔喚起ᄒᆞᆯ것이안이면아마舊說에新衣를着ᄒᆞᆯ것되ᄂᆞᆫ니라然이나吾人은快코그것으로써剽竊이라罵치안이ᄒᆞ노ᄂᆞ니萬若此로써剽竊이라罵ᄒᆞᆯ진ᄃᆡ天下에剽竊되지안은者ㅣ爲希ᄒᆞ리라夫天地間에新事物이無ᄒᆞ다ᄒᆞ면學者先、이엇지ᄒᆞᆯ노此를新케ᄒᆞᆷ을得ᄒᆞᆯ가

果然則新을求ᄒᆞᄂᆞᆫ方法은何에在ᄒᆞᆫ가曰반다시新에向ᄒᆞ야新을求치말고舊에向ᄒᆞ야新을求ᄒᆞ라古人의所謂溫故而知新이是者ㅣ엇지我를欺ᄒᆞᆷ이리오吾人은聞ᄒᆞ我의셔되를投ᄒᆞᆯ新墾、가無ᄒᆞ歎ᄒᆞᄂᆞᆫ事ㅣ有ᄒᆞ나然이나此新墾ᄒᆞ나ᄒᆞ야遺却ᄒᆞ얏든것이라果然다면旣히開墾ᄒᆞᆫ다ᄒᆞ고餘地가無ᄒᆞ시셔되를投ᄒᆞᆯ必要가無ᄒᆞᆯ가苟히此를放擲ᄒᆞ고보면如何ᄒᆞᆫ沃田이라도荒蕪地됨을免치못ᄒᆞ리라果然則未墾地 開ᄒᆞᄂᆞᆫ同時에旣墾地의注意를怠치못ᄒᆞᆯ것이라否라旣墾地로ᄒᆞ야곰荒蕪에委치안必要ᄂᆞᆫ新히荒蕪地를開ᄒᆞᆷ보다緊要ᄒᆞᆫ所以니라故로曰新을求ᄒᆞᄂᆞᆫ方法은間或過去에溯及된다ᄒᆞᄂᆞᆫ니라惟컨ᄃᆡ時ᄂᆞᆫ能히新으로ᄒᆞ야곰舊되게ᄒᆞ고舊도ᄒᆞ야곰新되게ᄒᆞᄂᆞ니舊友로積阻ᄒᆞ얏다가對面ᄒᆞ면新知와如ᄒᆞ고舊衣도오리ᄀᆞ만에着ᄒᆞ면新衣와如ᄒᆞᆫ다即新衣라ᄒᆞᆯ지라도此를長時日間連着ᄒᆞ면다지新衣됨을見치못ᄒᆞ리라吾人은新을求ᄒᆞᄂᆞᆫ方法에셔時의作用이라ᄂᆞᆫ것을看過치못ᄒᆞᆯ것이니라新을求ᄒᆞᄂᆞᆫ方法은日接의機會를逸치안이ᄒᆞᆷ보다先될ᄌᆞ이無ᄒᆞ니其機會ᄂᆞᆫ過去現在未來의三世를通ᄒᆞ야此를求ᄒᆞ라大ᄒᆞᆫ獲物은도로혀他의注意를免ᄒᆞᆫ過去에在ᄒᆞᆫ지도未可知也니엇지다만古人의謂ᄒᆞᆷ이리오或은故吾를捉來ᄒᆞ야初心을點檢ᄒᆞᆯ지라도ᄯᅩᄒᆞᆫ新을求ᄒᆞ方法되지안임이無ᄒᆞ니人의進境은十方无의오決코界限이無ᄒᆞ니라

巴里寡婦의新意匠

파年의ᄯᆞᆯ이잇ᄂᆞᆫ伶俐ᄒᆞ고똑々ᄒᆞᆫ어머니이고同時에남의愛妻인婦人은몃칠前男便을死別ᄒᆞᆫ佛國麵麭商店寡婦두비ㅣ、발모아女史ᄂᆞᆫ것이、彼女ᄂᆞᆫ男便의死亡廣告와未婚의ᄯᆞᆯ님求婚廣告를巧妙方法으로兼ᄒᆞ야내기를잘理解ᄒᆞ엿다

그런ᄃᆡ그것만으로도滿足지안이ᄒᆞ고그廣告로自己의商店을ᄉᆞᆫ들의게極力推薦ᄒᆞ고ᄯᅩ同時에自己의돌어잇ᄂᆞᆫ賣집을ᄂᆞᆯ나가겟ᄉᆞᆷ으로本月一日부터移轉ᄒᆞᆫᄂᆞᆫ일석지通知ᄒᆞ엿ᄂᆞᆫᄃᆡ二三佛國新聞에記載된意味가만ᄒᆞᆫ死亡廣告ᄂᆞᆫ如左ᄒᆞ더라

今朝에나의男便이고ᄯᅩ우리의깁히사랑ᄒᆞ고恭敬ᄒᆞᄂᆞᆫ父親인麵麭製造師안ᄃᆞ—발로아ᄂᆞᆫ宿患으로써百藥이無效ᄒᆞ와天國으로도라가시니嗟홉ᄂᆞᆫ눈물이마를시업ᄂᆞᆫ寡婦外에ᄯᆞᆯ이둘이남앗ᄂᆞ이다其中長女에레ᄂᆞᆫ은발셔滋味스러온家庭을이루엇스나次女올란스ᄂᆞᆫ人物이絕等이고桃夭期를當ᄒᆞᆫ人ᄂᆞᆫ되엿의盡心竭力ᄒᆞᆫ것을힘입어如何ᄒᆞᆫ男子에도부쓰럽지안ᄂᆞᆫ婚相當ᄒᆞᆫ準備가잇슴니다

埋葬은 曜日임니다아々可憐ᄒᆞᆫ寡婦두니ㅣ발로아及에레ᄂᆞ쥬본、올란스、발로아兩女의身世商賣ᄂᆞᆫ단골兩班들이今後에中斷ᄒᆞᄂᆞᆫ일업시寡婦가繼續ᄒᆞ도有力ᄒᆞᆫ援助ᄒᆞ쥬실것갓흐면것이고ᄯᅩ집主人이何等理由업시家貸、올님으로來月一日早란스通十九番地로부터미되町十二番地에移轉ᄒᆞᄂᆞᆫ이다

賀正

京城堅志洞八〇番地
金永杰
電話六一番

京城堅志洞九八番地
公民醫院
醫師 權熙穆

賀正

京城竹添町一丁目二十九番地
洋藥各種賣藥製造商
濟世藥房
主 林禎基

京城堅志洞
漢城圖書株式會社

賀正

京城府義州通二丁目三番地
永信洋靴店
主 朴東煥

京城府公平洞八十七番地(舊鐘路)
大昌貿易株式會社
電話 長一二七二番 七三七番 六一〇番 二九六六番 一四九五番
振替口座京一〇八二番
外國電信略號四一〇一番

謹賀新年

仁川府內里一九四番地 朝鮮料理 漢城館 李弘石
〈스기야기御飯은本館의特色〉

仁川府內里二二八 順安商店 主 李永安

仁川府外里一七六 陽春堂藥局 藥主 馬晩鎬

仁川府外里一三二 旭日理髮館 主 徐在[illegible] 理髮師 安禹鎬

仁川府外里二三九 各種耐久靴製造販賣店 三成泰 主任 李[illegible]

仁川府外里一三五 綢緞布木商 李昌文

仁川府新町四四 綢緞布木各種洋屬商 德應泰 主 沈宜淑 電話一七三番

仁川府外里一四〇 穀物商 羅應煥

仁川府外里 洋[illegible]及고무[illegible]靴製造 友恭舍

仁川府外里一四〇의一 雜貨商 德潤商店 主 朴義錫

仁川府內里一四八 物産客主 洪在範

仁川新町一六 穀物商 尹鳳瑞

仁川府新町六五 綢緞布木洋屬各種雜貨一式 金斗基商店

仁川府內里一〇七 書籍紙筆文房具並活版印刷 二林商店 電話一〇二八番 振替京城七五五三番

仁川府外里 朝鮮料理 花月館 主 朴春植

仁川府新町四三 綢緞布木商 朴承裕

仁川府內里 永信組

仁川府外里七九의一 綢緞布木諸雜貨商 朴根秀

仁川府寺町五番地 米穀並麵子商 青松商店 主 沈宜植

仁川牛角里一의一 米穀商 金元培

仁川府金谷里一五 米穀商 趙基鳳

仁川府寺町二七의一五 仁信組 組員一同

仁川府內里一〇四 綢緞布木洋屬雜貨及裁縫所 河裕清

仁川府內里六番地 漢豊旅館 主 朴漢[illegible]

謹賀新年

仁川府內里二〇九 陶瓷器洋雜貨其他諸種卸小賣 鄭雲球商店

仁川府仲町三丁目 米穀精米都賣並委託販賣 仁川屋精米所 主 鄭[illegible] 電話三四四番

仁川仲町三丁目 綢緞布木商 瑞興泰 主 朱明[illegible]

仁川府內里一三四의四 綢緞布木商 李珪鈺 振替京城七八八八番

仁川府內里二〇九 고무[illegible]製造元 李奎夏

開城藝妓組合一同

開城大和町 中央理髮館 主任 黃士玉

開城南門外 松高人蔘商會 主任 申泰得

開城南本町 海東人蔘商會 主任 崔基鴻

開城南本町 各種便利靴精靴附屬品其他 永昌便利靴店 主任 王慶得

開城郡大和町 高麗人蔘エキス 洋藥各種 商 三山堂 電話二八九番 振替口座京城八四二四番

朝鮮開城南本町一五一 元祖開城人蔘 高麗人蔘 販賣機關 開城人蔘商會 長距離電話六八番 振替口座京城四三四六番

朝鮮開城南本町一八三番地 開城便利靴特製專門製造所 開城便利靴店 振替口座京八五一二番 電信略號(생)又八(시[illegible])

쇼셜 發展 (二九)

霽空 作

二九、텬재와작품(天才와作品)

리영이가 오모리청놈니드러드 강남은곳이것을 진평ᄒᆞᄂᆞᆫ비방(秘方)을올고잇다 그것은 그사람의 그림을충찬만ᄒᆞ면 곳되ᄂᆞᆫ것이다

강남은 변안ᄒᆞᆫ마음이풀인것갓치 연ᄒᆞᆫ말소리로

『안이 실상말ᄒᆞ면 이 그림은디걸작일세 나를잡간동안고요히 그그림압헤다두어두게 드려다보ᄂᆞᆫ그가운ᄃᆡ에 곳바다에셔시원ᄒᆞᆫ바룸이 니마를씨치ᄂᆞᆫ것갓ᄒᆞ니』

이말 강남이가오쳠ᄒᆞᄂᆞᆫ말이안이다 누구던지그그림을보고셧스면 바다에셔바람이불어오지안이ᄒᆞ나냐고 의심ᄒᆞᆯ만치도되엿다

과연강남이 비방ᄃᆡ로 리영은 마음이푸러져셔

『그러치? 그림을그려줄모르ᄂᆞᆫ자네의게도 정말그림을ᄒᆞᆯ긔분(氣分)이드나 ᄋᆞᄋᆞ고마운일이다 고마운일이다 여보게우리 갓치그림압해가셔보고잇셰』

라고ᄒᆞ고 도로허리영이가 강남의 손을잇글고 그그림압헤가셔 갓치드려다보고 잇셧다

정말이지 예술가의게는 칭찬ᄒᆞᄂᆞᆫ말갓치 묘ᄒᆞᆫ약은업다 칭찬ᄒᆞᄂᆞᆫ말을 듯지안이ᄒᆞ면 ᄋᆞ모리 텬재라도 싱각되로 그림을 잘그릴수가업다가도 칭찬ᄒᆞᄂᆞᆫ 말만들으면 엇더ᄒᆞᆫ근심이던지 다이져바려진다 강남은 자긔가 그림은 그릴줄몰ㅅ도 그러한 방편은 알고잇다

강남이가

『오늘자네를 붓은것은 다른것이안이라 이그림을 살사ᄅᆞᆷ이이잇셔 조금자네의게 무러볼말이잇기에 불은것일셰 디처이바다는 어ᄂᆞ곳 경치인가』

리영 이가

『ᄋᆞ모곳 경치든지 그림의가치에는 틀님것이 업겟지 자네싱각되로 ᄋᆞ모곳이라고던지하게』

강남이다시

『내싱각에는 셔남(西南)히변인듯하이』

리영이다시

『그러이 셔남히변일세』

강남은다시 리영의 마음을 거슬늘가 염녀ᄒᆞ여 ᄋᆞ모말도업시 큰칙상잇는 곳으로 불너와안고 리영은 혼자의자를자바단이며 그그림을 드려다보고안자 정신업시그림에 쏘로니는것더니 한숨을길게쉬며

『ᄋᆞᄋᆞ 나의힝복은 이소녀와 남은올ᄯᆡ에 다진ᄒᆞᆫ다 쇼녀의발이 나의권청을 층동시키기에나도 다른날만다시 되발면을ᄒᆞ라고 니야기를ᄒᆞ엿더니 오날날이거시 무슨니발던인고 그림을그리면 사는사ᄅᆞᆷ은업고 빗슨첩ᄋᆞ만ᄋᆞ가며 그즁에다병은깁퍼오고 려관주인은 나가라고쏘차니기에 홈유ᄒᆞᆯ수업셔 강모파 계약을한그ᄯᆡ에ᄂᆞᆫ 마음에 깁버ᄒᆞ엿더니 차ᄎᆞ히가지날사록 자긔의그림이 다른사람의 월홈으로 칭찬을듯ᄂᆞᆫ것을볼ᄯᆡ마다 의지가지업ᄂᆞ나의시방ᄋᆞᆼ우가 월홍으로틀상ᄒᆞᄋᆞᄋᆞ나ᄂᆞᆫ실타 나ᄂᆞᆫ실혀이세상이 나ᄂᆞᆫ실타』

리영이가이러케 혼자말ᄒᆞ도자탄을ᄒᆞ며 문득을ᄒᆞ다가 홀연이 어ᄃᆡ셔 강남의음성으로 오더니 감긔(感氣)에 견ᄃᆡ지못ᄒᆞᄂᆞᆫ쇼리로

『여보게강남 나ᄂᆞᆫ인제 그림은 그리지 안이ᄒᆞ겟네 그림은 결코그리지 안이ᄒᆞ겟네』

ᄒᆞ더니 그냥가라고한다

강남은 황망이 붓들면셔 ᄋᆞ짓는것 못갓고 층동이ᄒᆞᄂᆞᆫ것도갓치

『자비는 텬재를 그쳐를 쇼홀히ᄒᆞ나ㅣ자비는자비의텬재를 손경ᄒᆞ지 안이ᄒᆞ나』

리영의 강남의 이말한마듸가 리영의 락심한 금쇼를 찔너다시회싱ᄒᆞ게ᄒᆞ엿다 리영은 이말을듯더니 아모말업시 두눈을 얼골에 듸이고 오직

『참으로 못견ᄃᆡ겟다 참ᄋᆞ이짓은못ᄒᆞ겟다』

라고 사나히 목쇼리로 우름을 울엇다

강남이가 ᄯᅩ더니

『이그림이 쳔원에 팔니비요다옴 화요일에오게 쳔원을그냥나 그ᄃᆡ의게 줄것이니』

강남은 이그림을 그냥다 리영의게 쳔원을 쳔원에따라 쥬겟다고 ᄒᆞ엿지만은 실상은 이그림이 삼쳔원에 팔니기로 계약이 성립된것이다

제그림은 제가못팔고 남의게셔류락이되다니 참으로 이상한일이다 리영과 강남은엇더한게약을 ᄒᆞ엿는지 하회는 리일 ᄯᅩ다시

......(三十、녀시인오유럭)......

人類社會와 宗教關係

新幕 崔永昌

우리人類가이世上에샤ᄂᆞᆫ가온ᄃᆡ여러가지로複雜ᄒᆞᆫ事業에相關치안이ᄒᆞ여ᄂᆞᆫ되일도잇고不得己相關ᄒᆞ여야、될일、도잇ᄂᆞᆫ것은個人々이理想的으로理解ᄒᆞᄂᆞᆫ바이라一夫一婦ᄂᆞᆫ家庭을造成ᄒᆞᄂᆞᆫ關係가잇고先生과生徒ᄂᆞᆫ敎受ᄒᆞᄂᆞᆫ關係가잇고人民과政治ᄂᆞᆫ保護ᄒᆞᄂᆞᆫ關係가잇거니와宗敎와人類사이에ᄂᆞᆫ엇더ᄒᆞᆫ關係가잇ᄂᆞᆫ지아모關係가업ᄂᆞᆫ지이것은자셔히了解ᄒᆞᆯ人間題로다

大抵敎라ᄒᆞᄂᆞᆫ것은무엇을指示ᄒᆞᆷ인가사람이사ᄅᆞᆷ다온性靈的精神修養을指示ᄒᆞᆷ이로다孔敎에云ᄒᆞ되大命之謂性이오率性之謂道요修道之謂敎라ᄒᆞ고耶穌敎에云ᄒᆞ되肉體生活은棄ᄒᆞ고聖神生活을慕ᄒᆞ며外面을단장ᄒᆞ지말고內心을단장ᄒᆞ라ᄒᆞ셧스니이두聖賢의말삼을綜合ᄒᆞ야보면眞善美ᄒᆞᆫ萬物中에最靈長인性靈的道德精神을修ᄒᆞᆷ이敎라云ᄒᆞᄂᆞᆫ다 그런즉나의게天賦固有ᄒᆞᆫ性靈的道德精神은一秒一刻이라도琢磨修養치안이치못ᄒᆞᆯ者니만일如此精神이吾人肉體와分離되면分離되ᄂᆞᆫ그當場으로性靈的人의價值ᄂᆞᆫ損失되고他의動物과다름이업시될것이로다그러면宗敎家外에ᄂᆞᆫ道德的精神이업다ᄒᆞᄂᆞᆫ것은안이지만은宗敎信仰이업ᄂᆞᆫ道德心은舵업ᄂᆞᆫ大船과갓치暴風을맛ᄂᆞᆫ다이리저리밀녀단니며浮沈되기가쉬日고荒田에苗芽와갓치根底가深着치못ᄒᆞ야乾晒ᄒᆞ면容易ᄒᆞᆫ다ᄒᆞᄂᆞ니有形無形間諸般事爲에成功은遠ᄒᆞ고失敗가踏至ᄒᆞᆯ것이로다 ᄯᅩᄒᆞᆫ勸善懲惡에特效가잇ᄂᆞ니政治法律로써人民에惡行을懲戒ᄒᆞᄂᆞᆫ것은形式的屈服ᄒᆞᆷ이오實地的自悟悔過ᄒᆞᆷ은안이니그에心內上惡根을革去치못ᄒᆞᆷ은事實이니이갓흔境遇에ᄂᆞᆫ道德에特權과聖神에感化가안이면到底不可能ᄒᆞᆯ지니宗敎가안이면、뉘ㅣ能히ᄒᆞᆯ바리오그런즉이우에모든事實은個人個人의宗敎와直接關係ᄒᆞᆫ關係가잇도다ᄯᅩᄒᆞᆫ結力과共益事業에偉大ᄒᆞᆫ功効가잇나니사ᄅᆞᆷ에生活이라ᄂᆞᆫ關係ᄂᆞᆫ農은商을依ᄒᆞ며商은工을依ᄒᆞ며工은士農을依ᄒᆞ야互相幫助生活ᄒᆞᄂᆞᆫ人類社會가이世上에셩긴以上에ᄂᆞᆫ그關合相助ᄒᆞᄂᆞᆫ精神과共濟共益에事業이一日一時라도업지못ᄒᆞᆯ것은贅論을待치안이ᄒᆞᆯ바어니와甲論乙駁ᄒᆞ며今是昨非ᄒᆞᄂᆞᆫ亂麻之弊와如ᄒᆞᆫ衝突思想을鮮明ᄒᆞᆫ精神으로統一ᄒᆞ야共益에大事業을成功ᄒᆞᆯ者、뉘오断必코宗敎에力이라ᄒᆞ노라

그實例를擧ᄒᆞ야말ᄒᆞ자면世界ᄂᆞᆫ勿論ᄒᆞ고우리 島안에만보드리도某會니某社니何校니何館이니ᄒᆞᄂᆞᆫ經營이許多ᄒᆞ지만은그中에實地的으로偉大ᄒᆞᆫ功을成就ᄒᆞᆫ者누구인가ᄒᆞ면아모敎아모敎ᄒᆞᄂᆞᆫ宗敎側인것은吾人이目覩ᄒᆞᄂᆞᆫ바가안인가이것은우리가離某를勿論ᄒᆞ고具體的으로深重ᄒᆞᆫ關係가잇ᄂᆞᆫ바로다

그런즉個人으로나團體ᄂᆞ나、집흔因緣과귀ᄒᆞᆫ關係가河海갓고金玉갓것만은盲人과巫女에怪術妖言은俯頭順從ᄒᆞ면셔光明正當ᄒᆞᆫ宗敎를傳ᄒᆞᄂᆞᆫ사람에말은回頭反目ᄒᆞᄂᆞᆫ사람과또ᄒᆞᆫ엇더ᄒᆞᆫ宗敎를勿論ᄒᆞ고그에內容은詳細히알지도못ᄒᆞ고되ᄂᆞᆫ되로批評ᄒᆞᄂᆞᆫ同胞여悔ᄒᆞ고改ᄒᆞ라心靈上罪惡을覺醒ᄒᆞᆯ지어다

楊州郡榛接面 普通學校新設

趣旨書

京畿道楊州郡榛接面々長金甲洙李禹鍾、金容鶴、申哲、南晟祐、俞亨濬、李夏鉉、鳴坂收一、崔漢楨、任昌淳、安源植、崔漢植、許우、李圭明、李海星、柳冀駿 李載武、洪淳哲、成樂天、任憲宰氏等의發起로同面內에普通學校를新設ᄒᆞ기爲ᄒᆞ야趣旨書를發布ᄒᆞ얏ᄂᆞᆫ듸其全文이如左ᄒᆞ더라

古書에有云ᄒᆞ되玉을琢치아니ᄒᆞ면器를成치못ᄒᆞ며人이學치못ᄒᆞ면知ᄒᆞᆷ이無ᄒᆞ다ᄒᆞ얏스며又云ᄒᆞ되生子非難養子難이오養子非難敎子難이라ᄒᆞᆷ은時의今古와洋의東西를不問ᄒᆞ고不易의格言이라古者에ᄂᆞᆫ八歲에小學에入ᄒᆞ고十五歲에ᄂᆞᆫ小學의學을了ᄒᆞ고大學에入ᄒᆞ야大人의學을受ᄒᆞᆷ으로州와黨에庠序의敎育機關이有ᄒᆞ야子弟를敎育ᄒᆞᆷ이라盖敎育도世를隨ᄒᆞ야其方法이異ᄒᆞ고時를從ᄒᆞ야其趣向이同치아니ᄒᆞᆷ이니干戈를舞ᄒᆞ야平城의圍를解키難ᄒᆞ며詩를賦ᄒᆞ야虜騎를退치못ᄒᆞᆯ가ᄒᆞ요修道之謂敎라云ᄒᆞᄂᆞᆫ支那漢宋의古語와吟風詠月은學問으로日賦日詩와吟風詠月ᄒᆞ고城을爲ᄒᆞ고壕를深히ᄒᆞ던過去我朝鮮末流의學이아니라即二十世紀의新學問彼歐米列强이地球를雄視ᄒᆞᄂᆞᆫ學問이是라惟我面은戶數千五百餘 數ᄒᆞ며人口八千餘를算ᄒᆞᄂᆞᆫ我郡의屈指ᄒᆞᄂᆞᆫ大面으로舊學의書堂은雖有ᄒᆞ나新學의敎育機關인學校가無ᄒᆞ야將來동량의材와柱石의資格이有ᄒᆞᆫ妙少ᄒᆞᆫ子弟로暗黑ᄒᆞᆫ長夜의舊夢을覺치못ᄒᆞ게ᄒᆞᆷ은人 父兄된者이엇지其責을免ᄒᆞ고面이야識者의太息을禁ᄒᆞᆯ바이오니리오子에게千金의財를遺ᄒᆞᆷ이一卷의經을遺ᄒᆞᆷ과不如ᄒᆞ다ᄒᆞᆷ은先哲의格言이라强ᄒᆞᆫ者가弱ᄒᆞᆫ者의肉을食ᄒᆞ며優ᄒᆞᆫ者가劣ᄒᆞᆫ者를勝ᄒᆞᆷ은智育의勢를不待ᄒᆞ야明ᄒᆞᆷ이火를 觀ᄒᆞᆷ과如ᄒᆞᆫ지라 是를憂ᄒᆞ고一야有志諸君을同ᄒᆞ야我面에一校를繼코자ᄒᆞᆫ나一二의同志로ᄂᆞᆫ到底히其果를收키難ᄒᆞ와多數子弟의 父兄과同感ᄒᆞ 시ᄂᆞᆫ僉益의早義言仰치오니치못ᄒᆞᆯ지라玆에義연募集의方法과諸般의期成節次ᄂᆞᆫ目下當局에諒解를求ᄒᆞᄂᆞᆫ中이오니望컨ᄃᆡ右에微衷을諒ᄒᆞ시와特히ᄂᆞᆫ義연의厚情을賜ᄒᆞ시와我鄕으로ᄂᆞᆫ鄒魯의美를得케ᄒᆞ심을千萬切企ᄒᆞᄂᆞᆫ所以로소이다

京城樂園洞一八九
海東醫院
醫師 皮熙泰

京城黃金町壹丁目一〇一
合資會社 淸水組京城支店
李壽東

京城公平洞五十番地
李完珪

京城鍾路一丁目四十九番地
金銀細工商
三光商會
主 金同圭

京城茶屋町七七番地
綢緞洋屬
廣和順商店
電話 一七二四番
振替京城一九二九番

開城大和町七番地
合名會社 開城社
電話長六三番
京城出張所
京城公平洞八七番地
電話長二〇〇九番

京城崇仁洞 三八番地
關聖敎本部

京城安國洞一六四番地
洋靴及深濟靴製造販賣
東亞洋靴店
主任 鄭來晳

京城鍾路二丁目三番地
金銀細工美術物商
和信商會
主 申泰和

京城觀水洞十三番地
錦成東

京城淸進洞九十二番地
布木商
金淳悅

京城蓬萊町一丁目八一
五房在家
車鼎淵
振替京城一〇九八番

京城鍾路二丁目百番地(前靑布廛)
鍾路組
人力車場
電三四三八番

京城義州通一丁目一
穀物貿易委托販賣
和泉精米所
主 崔萬奭
長電話一六九五番
振替京城四五三五番

京城府鍾路一丁目 六十一番地
綢緞布木商
朴恂遠
電話一〇一四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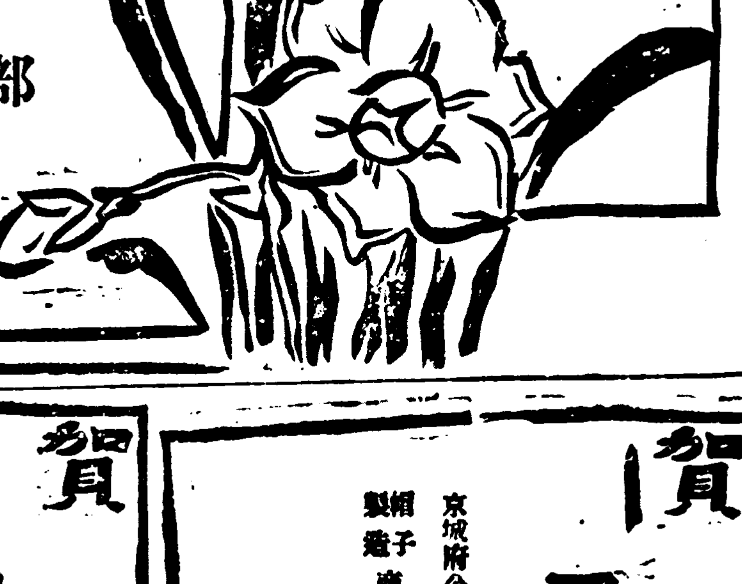
京城南大門通四丁目二
綢緞布木商
梁在爀
電話一九九六番
振替京城八七九番

京城鍾路五丁目六番地
車永薰

京城南大門通五丁目十八
新舊雜貨 五房在家
權永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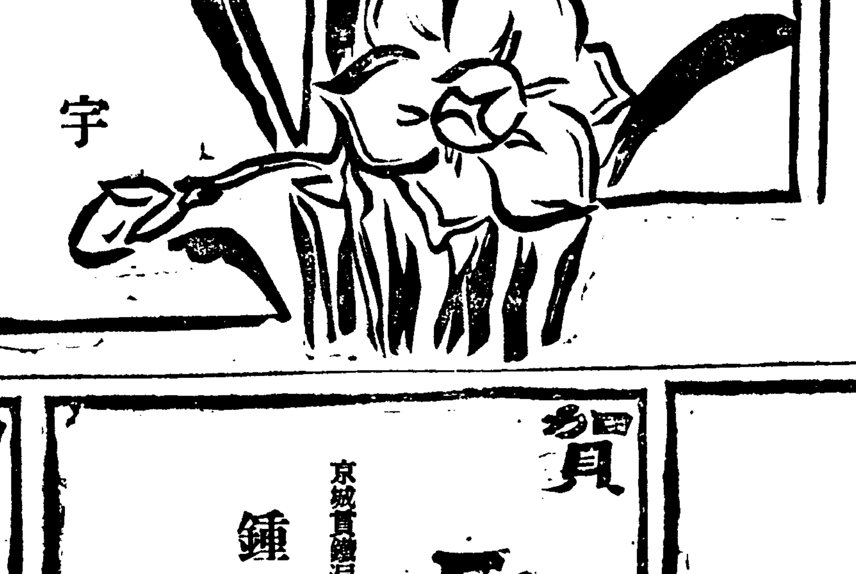
京城南大門通四丁目二十四番地
我齒術院
主 金[illegible]奎

賀正
京城府鍾路通二丁目六十七番地
朝鮮勞働共濟會
電話二、七四七番
振替京城七二三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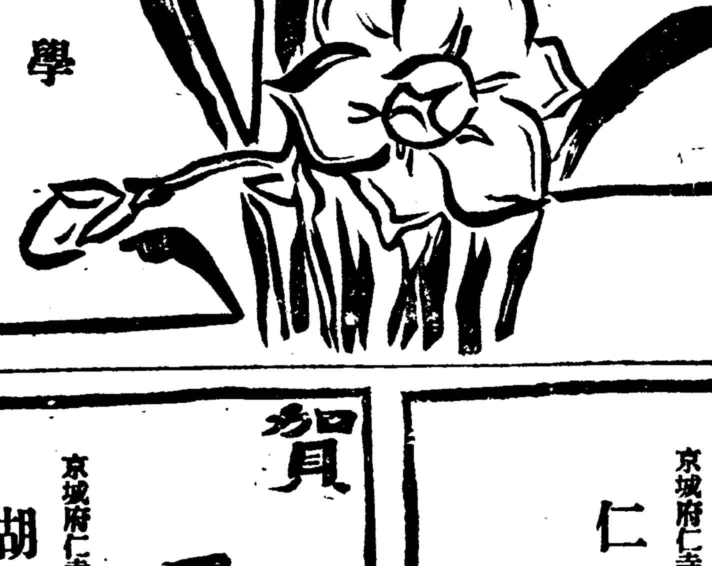
賀正
京城府慶會洞一七七番地
侍天敎總部

賀正
光武臺圓成社主
朴承弼



賀正
京城府長沙洞
府協議員
崔翰宇

賀正
京城[illegible]智洞一七九
天一藥房
主 趙寅奭
電話三一三〇番
振替京城三〇七七番



賀正
京城府鍾路通三丁目八
米穀食塩貿物商
金永學

賀正
京城府公平洞六二番地
帽子製造商
海昌商會
主 徐丙寬
韓百潤

賀正
京城府鍾路一丁目四十三番地
長安洋服店
電話二四四五番
振替京城三〇一番

賀正
京城貫鐵洞一四九
鍾路寫眞館

賀正
京城府仁寺洞一五三番地
仁寺旅館
電話二五一八番
主 申彥常

賀正
京城府仁寺洞一三五
湖海旅館
電話三一三一番
主 金永穆